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왕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5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관광지화된 도량

사찰은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관광지인가.

철따라 아름답게 변신하는 산과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라면 종교에 관계없이 한 곳 이상의 사찰은 가봤을 것이다. 이렇게 초종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배하고 불법의 그윽한 향훈의 체취를 조금이라도 맡고 간다면 불교의 포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참배를 마치고 가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사찰일수록 청정도량의 본래 모습이 훼손되고 있다. 물론 국보급 문화재와 부처님의 법향 등을 현장에서 가깝게 느끼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생제도를 위해 스님들이 정진하는 수행처인 경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음식을 먹는 등 일반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곳이 수행을 위한 도량인지 관광객을 위한 사찰인지 구별이 가질 않는다.

인근 음식점·주점 즐비
청정수행도량 무색

사찰 주변의 환경도 문제다.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을 비롯해 잘 알려진 도량의 경내를 조금 벗어나면 각종 음식점들과 민속주점들이 즐비하다.

사찰의 감시도 소홀한 편이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한 안내판은 곳곳에 깨끗하게 정돈돼 있지만, 정작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찰내 방문객들의 준수사항 등은 눈에 잘 띄질 않는다.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경내에 들어서기 전에 한번만 보면 도량의 경건함과 예절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찰측에서도 전담 안내자를 둬 관광객들의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오는 방문객들을 사찰 보호란 이름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찰과 종단이 함께 나서 도량의 참모습이 퇴색되지 않게 주변 환경 정리와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사회봉사 강화해야" 54%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연구원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

기복 탈피 뚜렷…교리공부 아직 과제

"불자들의 신행에서 사회봉사와 교리공부를 강화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은 재가불자의 신행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교리공부(63.2%)와 사회봉사(54.3%)라고 꼽았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불자는 15.8%에 그쳤다. 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싶으나 마땅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거나,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는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능을 나누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18.5%에 머물며, '어렵다 실천한다' 또는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가 각각 44.5%, 27.8%에 이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생과 윤회를 믿는다'고 응답한 불자가 55.9%에 머무는 등 교리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서 불교의 바른 이해를 위한 교리공부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야심경의 핵심을 잘 모른다거나 반쯤 이해할 뿐이라는 응답도 80.1%에 이르렀다. 설문 응답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교리학습을 받았으면서도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르고 있거나 이해도가 낮았음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면도 나타났다. 기복성의 탈피, 정기신행층의 확산은 교리 이해의 부족, 가르침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동국대 교수)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성불교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으나, 이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평가하고 "전후세대를 위한 현대적 번역경전의 보급, 구태의연한 법회의식의 탈피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련 사설, 분석, 평가 2, 24, 25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은 화합-공존의 정신"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이 봉축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22일자로 발표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은 하찮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일깨워주셨다"며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려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달라"고 당부했다. 〈메시지 요지 2면〉

정성운 기자

로마교황청 봉축 메시지

로마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도 14일 축하메시지를 통해 "불자여러분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복이 내리기를 빌며, 다시한번 우정과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처님 황금빛 광명 온세상 비추네



연등축제가 13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제등행진에는 코끼리를 탄 아기부처님 등 각종 장엄물 400여개를 앞세우고 3만여명의 불자들이 거리를 오색등불의 물결로 수놓으며 부처님 오심을 봉축했다. 〈관련 기사 화보 2, 23면〉

고영배 기자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11일 열린 종정추대식에서 대중들에게 법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조계종 혜암종정 추대식

11일 조계사 3천명 동참…법어 · 교시 내려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성관(慧菴 性觀) 스님 추대법요식이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종정 추대식은 오후2시 정각 33번의 범종이 울리는 가운데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안내로 종정 혜암스님이 대웅전에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 봉독, 총무원장 인사말, 원로의장 추대사, 대통령 메시지 낭독, 불자와 법장 봉정, 종정스님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혜암대종사는 이날 법어를 통해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고,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음이라. 깊은 산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을 설하고, 산봉우리 석불은 빙긋이 웃네"라고 설파했다. 〈종정 인터뷰 · 법어 전문 3면〉

종정 혜암스님은 추대식에 앞서 '지계청정(持戒淸淨) 종풍선양(宗風宣揚) 전법도생(傳法度生)'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인사말과 추대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행자의 구도적 삶으로 종단의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리라 굳게 믿는다"며 "오늘의 이 기쁨이 종단의 안정 화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는 이제 안정속에 원융화합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데 불교계가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정 추대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들과 3원장, 중회의장, 호계원장, 23개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각 종단 대표,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신도대표,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서석재 박상규 함종한의원 등 정 ·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 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사이버 부처님 탄생	20면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	24 · 25면
룸비니의 부처님오신날	21면	나누며 사는 사람들	23면
대담 : 21세기 불교교육	5면	연등축제 화보 · 이모저모	12면
되돌아본 봉축 100년	22면	시방세계 - 30일 단기출가 동자승	9면
		불교동화 - 빵집아저씨 장가가던 날	27면

구산선문 참선 기행

5월 : 실상산문(실상사) · 쌍계사 · 칠불암

◇출발 : 5월 29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20세기를 빛낸 큰스님들!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경쟁력으로 뭉친 조폐인
세계로 뛰는 한국조폐공사



"근세 100년 고승 기념메달"
한국조폐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
한국조폐공사는
21세기 세계조폐산업을 선도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규격
-소 재 : 황동(금도금)
-지 름 : 80mm
-케이스 : 고급 우단

■화폐를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조각가가 디자인하고 조각하여 주화제조 방식과 동일한 압인(壓印)방식으로 제조한 고품위메달입니다. 문양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수집가치가 높습니다.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E-mail kbusdev@komsep.com
http://www.komsep.com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TEL 02)722-4162

봉축사설

이제 실천이 남았을 뿐이다

불자들의 신행의식(信行意識)에 반가운 수치들이 보인다. 현대불교신문이 개원 25주년을 맞는 한국불교연구원과 함께 행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은 신행 이유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72.3%)' 와 '견성성불을 위해(21.8%)' 등을 꼽았으며 사주 관상점 등을 안본다는 불자가 86.9%였다. 이는 한국불교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종래의 이미지를 벗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종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 가운데 하나인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뜻도 이 깨달음을 강조해 보여 준다.

깨달음이란 누구에 의지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혀든 등불 아래 철저한 주체적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경지다. 어떤 신성한 대상을 절대시하며 믿고 받든다는 가장 종교적인 단어인 신앙(信仰) 대신 불가에서 신행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깨침에 이르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보살의 길만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 믿음의 네 기둥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불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복이라든가 민속적 신앙 등은 사실 부처님의 정법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기복과 원망(願望)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희구며 이를 배제하고는 종교신앙을 말할 수 없다. 부처님도 여기에 무심하시지 않다. 석존께서 깨달음을 열고 이후 45년간 인간구원의 전법에 전념하신 것도 고집멸도(苦集滅道)란 현실적 고통에 대한 분명한 처방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다고 자신과 가족만의 안녕을 위해 유명 기도처나 찾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적어도 불자라면 '나'에 대한 확장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웃이 좋아지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라와 세계가 좋아진다면 곧바로 나에게 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웃과 세계야말로 확장된 나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혼자만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계가 좋아질 것을 바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철저한 이기(利己)야말로 이타행(利他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번 의식조사에 응해준 한국불교연구원의 구도회나 우리는선우, 동산반야회, 삼보법회, 바른법연구원, 정토회 등 불교계에는 수행을 중심으로 한 신행단체들이 많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모임 등을 통한 이들의 깨달음을 위한 정진의 열기는 자못 높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의 수행결과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는 구체적 실천행을 보여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불교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이웃과 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과 회향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불자 스스로가 사회봉사에 소극적이란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불교에서 보다 강화되어야할 점을 사회봉사로 꼽았다. 생활속에서의 나누는 삶 실천에도 '잘하고 있다'는 불자에 비해 '어쩌다 실천'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 '전혀 못하고 있다'는 불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이웃과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부끄러운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불교계에서도 환경이나 생명존중, 빈곤·기아의 퇴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열기가 일고 있다. 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을 정토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의지의 실천과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타종교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우리들의 올바른 신해행증의 실천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면이 아닌가 한다.

돌이켜보면 근래 한국불교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교가 인류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불교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 자체에 있다. 불교야말로 배타적이 아닌 호혜와 포섭의 종교다. 육바라밀행과 사섭법의 가르침은 이웃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기말 현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분명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책임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45년간의 부처님 설법은 다름아닌 행동으로의 가르침, 사는 모습 자체로서의 가르침이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로 더욱 빛나게 된다. 타종교와의 비교우위도 신행이 아니고는 증명해 보일 수가 없다.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은 곧바로 포교와도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신행을 한다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의식이 믿음직해 보인다.

이제는 불자들의 실천이 남았을 뿐이다.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호국불교 위대한 전통 경제난 극복 동력으로"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모든 불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선택하여 깨달음을 얻고 중생의 앞길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립니다.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권을 존중하셨고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철저한 평등사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불성(萬有佛性)'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물론 하찮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교는 1천6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단순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불교문화는 찬란한 민족문화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의 크나 큰 원력으로 온 겨레가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국불교의 위대한 전통은 우리들의 자랑스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불교계는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호국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되살려 온 국민의 화합위에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의 새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월 22일 대통령 김대중

화합과 자비의 공동체 '염원'

16일 연등축제 3만불자 동참

주요도시서 제등행진… '국민축제로'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16일 조계사 옆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 등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거행됐다. <연등축제 화보·이모저모 12면>

이날 오후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종단 총무원장을 비롯해 스님과 신도 3만여명이 동참해 부처님의 오심을 경축했다.

법회 이후 스님과 신도들은 취타대와 외장대를 선두로 코끼리 범종 용 비천상 등 불교를 상징하는 각종 장엄등을 앞세우고 조계사까지 행진했다. 특히 올해는 등길이에 등을 걸어 종로거리를 등불의 물결로 만들어 연도의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등행진을 마친 불교도들은 우정국로에서 회향한마당을 열어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4천여개의 연등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등불글씨(6m×60m)를 만들어 화합과 자비의 공동체 구현을 염원하며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는 우정국로에서 등만들기, 전통문양 탁본 등 체험마당, 놀이마당, 불교사진 및 그림 전시회, 우리농산물 장터 등이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며 외국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은 8일 KNCC 김동완 총무를 만나 종교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사면동의안 차기종회로 이월

조계종 140회 종회 btn 정상화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1일 제140회 임시종회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사면동의의 건을 논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 회기서 심의키로 했다.

총무원은 이번 종회에 83년 이후 징계받은 24명의 사면동의를 종회에 요청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은 "종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차기종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상정된 9개 안건 가운데 btn특위 활동보고, 사면동의 건, 직능직 선출위원 선출의 건 등 3개 안건을 논의하고 이날 폐회했다.

종희는 btn특위(위원장 정휴)의 요청에 따라 교구 본말사 스님·신도 소유의 주식을 양도받아서 btn을 정상화하도록 총무원 집행부에 촉구키로 결의했다.

종희는 또 공석중인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위원 6명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은 범하(통도사 박물관장) 종열(화엄사 전 주지) 성오(범어사 주지) 수경(수덕사) 지선(백양사 전 주지) 도진(직지사 중암) 스님 등이며, 당연직 3명(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위원회가 구성됐다. 정성운 기자

고산스님, 타종교지도자 잇단 만남

8일 김동완 KNCC 총무 12일 정진석 대주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잇따라 개신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화합을 다지고 있다.

고산스님은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방문, 김동완 총무와 환담했다. 고산스님의 이번 방문은 두 차례(1, 4월)에 걸친 김 총무의 총무원 방문에 답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고산스님은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국민들이 서로 존중한다"며 종교지도자들간의 만남을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김 총무는 고산스님에게 북한돕기 등의 사업에 불교와 개신교가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12일에는 명동성당 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방문, 정진석 서울대교구장과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이날 정 대주교에게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화공의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듯, 마음이 일체의 근원)'라고 쓴 부채와 햇차, 저서 〈선, 깨달음의 길〉을 선물했다. 정 대주교도 고산스님에게 로마 시스틴성당의 천정화가 조각된 기념메달을 전하며 우의를 표했다.

정진석 대주교는 "종교지도자들이 합심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조만간 총무원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KNCC와 서울대교구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btn이사회 허문도사장 선임 교계 허사장 퇴진운동 움직임

불교TV는 10일 총지종 총지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허문도씨의 대표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또 이수덕 동진메카트로닉대표를 상근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임완숙 외)를 비롯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배영진),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 등 교계단체는 "80년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당사자인 허씨가 언론사 사장에 취임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허씨 퇴진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계 안팎의 이런 반응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퇴임설에 대해 허문도사장은 "퇴임의사는 사실무근이다"며 "직원들이 내게 힘을 실어 준다면 후원회 결성 및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총무원은 종단이 보유한 불교TV 주식 43억원중 80%를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현대만평 박구원



온누리에 자비를…

<奉恩學林> 제1차 강좌 '화엄특강' 수강생 모집

"공부하는 봉은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출요경(出要經)에 이르기를 "學人이 修行해야 할 것은, 本末에 통달하고 白法·黑法을 정확히 인식하여 병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원인을 알며, 顚倒와 전도 아님을 능히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맞추어 聖藥(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심 속에서 傳法의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學人으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빈 것을 채우고자 하나 함께 할 도반과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탄허 큰스님의 月精寺 華嚴 특강과 관응 큰스님의 棟華寺 唯識 특강의 전통을 이어 〈봉은학림〉을 개설, 각성 대강백을 모시고 그 첫번째로 〈華嚴經入 法界品〉을 선정, 함께 공부할 도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어 부처님의 혜명이 면면히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제 목 : <봉은학림> 제1차 강좌 '화엄특강'
◐강 사 : 각성 큰스님(화엄학회 회주)

◐강독경전 : 화엄경 입법계품
◐기 간 : 1999년 6월14일 ~ 7월15일까지(한달)
◐수업시간 : 매주 월·화·수·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봉은사 법왕루
◐수강대상
1) 수강생 - 서울 경기 지역 스님 (선착순70명)
2) 청강생 - 각 대학 불자 교수 및 화엄경을 수강할 수 있는 일반 불자 (선착순50명)
◐수 강 비 : 7만원(교재비 포함)
◐문 의 : 봉은사 포교실 (전화 02)516-5652)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사 설

문화재廳에 거는 기대

정부가 중앙부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면서 문화재관리국만큼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해 청(廳)으로 승격시킨 것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예산이나 전문성 문제로 겪었던 문화재 보존과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불교계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문화재청 설치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문화입국(文化立國)의 기치를 내건 정부의 의지와 문화계의 요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도 변변치 못하고 국토도 넓지 못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입국' 밖에 방법이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영국여왕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세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번 문화재청 승격은 바로 이같은 인식을 바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재청'을 설립했다고 문화대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곧 서구화를 세계화로 인식하고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를 파괴해왔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을 헐어내고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유서깊은 문화재를 손상시켰다. 최근에도 건축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크앞에 위락시설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정책으로는 문화입국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문화주의적 발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급 청으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대됐다고 타부처의 비전문가가 밥그릇을 차고 들어온다면 청승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반드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사학 등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전문가들을 임용하여 학예직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화재관리국 시절 순환인사라는 명목으로 행정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경험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책과 예산상의 특별한 배려다.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의 성보라는 양가적(兩價的) 가치를 지닌다. 불교문화재는 '성보(聖寶)'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컨대 경복궁내 석탑이나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들이 신앙의 성보로서 예배될 수 있도록 사찰로 이관하고, 경주박물관의 파불(破佛)에 대해서도 신앙적 감정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다. 문화재청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런 만큼 할 일도 많고 기대도 크다. 관계자들은 청승격을 계기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여·야가 없다

'새시대 불교포럼' 출범

전문직 젊은 재가 32명 참여

사회정의-불교발전-평화통일

분과별 불교사상 입각 대안제시

젊은 재가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시대 불교포럼'을 창립한다.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김연규 외대교수)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새시대 불교포럼은 부처님의 중도연기론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정의, 평화통일, 불교발전을 목표로 월례포럼, 종단지원사업,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사업인 월례포럼은 사회정의, 불교발전, 평화통일 등 3개 정책분과를 두고 매월 한가지씩 사회제반문제를 각 분야별로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심층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월례포럼의 내용은 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게 된다.

특히 새시대 불교포럼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능동적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종단만들기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종단의 각종 사회정책과 종단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과 인력뱅크를 구성해 전문적인 조언으로 종단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홍사성 창립준비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구원활동과 종단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및 조직사업, 대중·교육사업등을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포럼에는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우호(행정자치부 사무관) 배정회(과학기술부 사무관) 최수종교수(한림의대) 박경준, 최순열교수(동국대) 박일환(국민회의 정책위원) 유연(LG증권 과장) 이원석(동부지청 검사) 김형욱(청와대 종합상황실 과장) 박영규(작가) 신상진(성남의원 원장)씨등 32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다.

창립준비위원은 정책위원장 박승원 소장(시스템경영연구소), 조직위원장 정웅정 사무처장(재가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노귀남(경희대 강사), 실행위원장 조성열(성균관대 강사)씨 등이다. 새시대불교포럼은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비는 월 1만원. (02)725~428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공단과 '공원무료입장' 재협상"

조계종 관람료위원 15명 선출…위원장 혜광스님



◇혜광스님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4일 불교회관에서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도증 소지자의 당해사찰 무료입장'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집행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포교원이 준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규탄 결의도 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채택키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 일동'으로 발표하려 했던 결의문에는 △공단이 재적사찰에 한해 무료입자을 강행할 시정부를 상대로 사찰소유토지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용료 청구 또는 공단시설물의 퇴거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도들의 사찰출입 자유 보장 △신도등 소지자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하지 않는다 등 3개항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관람료위원 15명은 다음과 같다.

혜광(위원장, 법주사) 장윤(부위원장, 전등사) 법철(간사, 총무원 재무부장) 도후(신흥사) 도영(금산사) 녹원(직지사) 성오(범어사) 종상(석굴암) 양산(총무원 문화부장) 일연(동학사) 설송(대전사) 종고(천은사) 운수(내장사) 세영(신륵사) 운공(운주사).

관람료위원회는 관람료사찰 주지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혜광스님, 부위원장에 장윤스님, 간사에 일철스님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보림사-봉정사 관람료사찰 지정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혜광)는 4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장흥 보림사와 안동 봉정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보림사는 9산선문 가운데 최초로 개창된 사찰(759년 원표대사 창건)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44호) 등 국보 2점과 보물 8점, 전남도유형문화재 1점 등 다수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1천원으로 정했다. 봉정사는 4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사찰로 682년(신라 경문왕 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국보 15호로 지정된 극락전을 비롯 보물 3점, 경북도유형문화재 2점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2천원으로 결정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국방부장관 면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편향대책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편향대책위 관계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장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스님 15명 징계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6일 16차 심판부를 열어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도견 법민-공권정지 5년, 혜총 각의-공권정지 4년, 동광 덕현-공권정지 2년, 태관 돈명-공권정지 1년3개월, 성천(전 불국사 부주지)-공권정지 1년, 철우-공권정지 6개월, 선관-면직, 능엄 청우 명현 효진-문서견책.

정성운 기자

조계종 혜암종정 부처님오신날 법어

"인간은 귀천없는 본래 천진불 가진자는 남 돕고 권위자는 公心을"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어허 좋을시고,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모든 중생 생일 잔치 얼시구 좋고 좋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천진불(天眞佛)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본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에라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이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心)을 쓸지어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 없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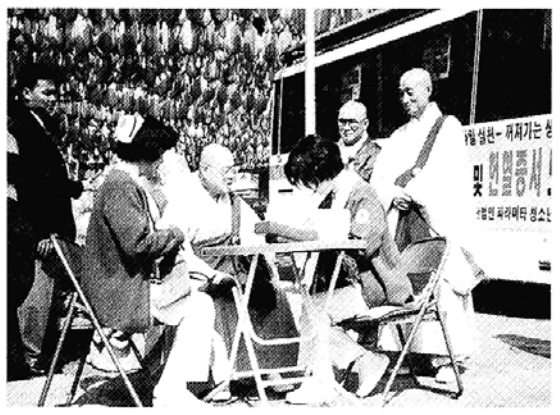
본분사로 말하자면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다.

바다밑에 등불켜니 온세상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악-

불기 2543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혜암



자비의 헌혈운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련스님)가 4일부터 '자비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참석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헌혈을 준비하는 모습.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직능종회의원 27일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6일 중앙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46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궐위된 율원·행정분야 직능직 종회의원을 27일 선출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보궐선출은 월서스님의 재심호계원장 취임, 성우스님의 사퇴, 현근스님의 제명에 따른 것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17~19일이다.

선관위는 또 14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을 선출하도록 중앙종회에 권고키로 했다.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당연직 3인과 종회에서 선출한 6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정성운 기자

승려 기본교육 이수 조계종교육원 촉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4월 30일 95년 제8기 행자교육부터 97년 제13기 행자교육을 수료한 1천2백78명의 사미(니) 가운데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5백명의 명단을 공식발표하고, 기본교육이수를 촉구했다.

교육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미(니)가 올 상반기중에 입학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당 본말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장 이혜총스님 취임식

■일 시 : 불기 2543년 5월 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장 이혜총 스님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 5.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 관 합 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혜 총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시설개요

개 관 : 1996년 3월 4일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 2,285㎡ 건물 : 2.749 ㎡

※ 복지관 사업 안내 ※

□ 복지관 사업
가정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예식장 대관
□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타
□ 부설 어린이집
□ 부설 무료한방진료
□ 부설 무료급식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집안청소/세탁/방문간호/병원동행/말벗/이·미용/도배/사업 및 업무보조/기타
□ 후원자 모집 (자비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요)
아쿠르트 후원/우유 후원/현물 후원/결연금 후원 등
□ 후원구좌 :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용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은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 정산시 5%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우)608-09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6-7 ☎ (051)628-6737~9 전송 : (051) 628-6562

"팔만대장경은 마음 心자 하나 본심 깨쳐 중생제도 해야"

인터뷰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14일 해인사 원당암 뜰을 거니는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본심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수행의 궁극"이라며 "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암(慧菴·79) 조계종 종정 예하가 14일 오전7시30분 해인총림 원당암(願堂庵)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승으로 94년, 98년의 종단 개혁불사를 이끈 스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장좌불와의 꼿꼿한 기품을 견지했다.

스님은 IMF관리체제와 최근의 종단사태를 언급하며 "역경이 지나간 후에 좋은 일이 오는 법이니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발심해서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불기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의미로 열린 기자회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수가 태산만하면 성공도 태산 고난 회피말고 선물처럼 반길것

-종정 예하께서 취임하시면서 내린 교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종단이 혼란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막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엄정하게 지켜서 승가의 본분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지계청정(持戒淸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종단의 바른 가풍을 드러내자는 '종풍선양(宗風宣揚)',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자는 '전법도생(傳法渡生)'을 당부했습니다.

-종정에 추대된 이후 생활에 변화가 온 것은 없습니까?

▲저는 가능한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부처님 접안법회에는 종종 갑니다. 큰스님이 접안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느냐고 조르는 경우가 많아 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사양할 방침입니다. 종정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남은 여생을 토굴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스님의 평소 일과가 궁금합니다.

▲나는 재가불자들과 함께 선불당(選佛堂)에서 밤새 정진합니다. 선불당은 동·하안거에는 1백여명이, 봄가을 산철에는 20~3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정진하는 대중선방인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입제·결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예불을 올리고 아침 7시경에는 목욕을 합니다. 공양은 오전10시경 하루 한끼만 먹습니다. 오후에는 운동삼아 도량을 돌며 풀을 뽑거나 청소를 합니다. 저녁에는 처소인 염화실에 잠깐 들러 우편물등을 점검하고 다시 선불당을 향하는데 장좌불와를 계속 하다보니 취침과 기상시간이 따로 없게 되었어요.

-불교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님께서는 돈오돈수의 가풍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간명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합치면 마음 심(心)자 하나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본심을 깨달아 중생을 제도하는 것 외에는 다 외도입니다. 일체중생을 떠나 다생부모가 없고 다생부모를 떠나 일체중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견성하면 곧 다생부모를 건지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입니까?

일본서 공부하다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 제방의 선지식을 닥치는대로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가는 곳마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돈오점수법(頓悟漸修法)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철스님과 그 도반인 향곡스님만은 돈오돈수법(頓悟頓修法)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증이 생겨 마조나 백장, 황벽스님등의 어록을 살펴보니 단박에 깨쳐 부처를 이루는 돈오돈수법이 바른 법이요, 점수법은 소승법이고 방편법이며, 교는 장엄물이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돈수법은 일언지하에 돈망생사하는 법이요, 일초직입여래지의 가르침입니다.

-평소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5가지 계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소식(小食)하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는 용맹정진을 주문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수지맞는 일중의 하나가 공부하다 죽는 일인데 목숨내놓고 정진하다보면 견성이 가까워오고 죽음은 멀어집니다. 견성하면 생사를 넘어서는 까닭입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잡듯 사무치고 간절하게 정진해서 낮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건너뛰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진해야 합니다.

셋째는, 안으로는 본심을 깨닫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참선공부하는 것과 남을 돕는 일뿐입니다. 넷째, 주지 등의 소임을 가급적 맡지 말라고 합니다. 차별적으로 보면 각자의 소임이 다 있어야 하지만 소임을 맡다보면 공부는 온데간데 없고 집착하게 되니 멀리 하라는 겁니다. 천하총림이 다 망해도 눈하나 꿈쩍하지 말고 내 공부만 할 것을 당부합니다. 소임을 살더라도 공행(空行)을 닦아야 합니다. 가도 가는 바 없이 가고 먹어도 먹는 바 없이 먹으면서 해도 하는 바 없이 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 것을 당부하지요. 출가수행자들은 원래 탁발하면서 공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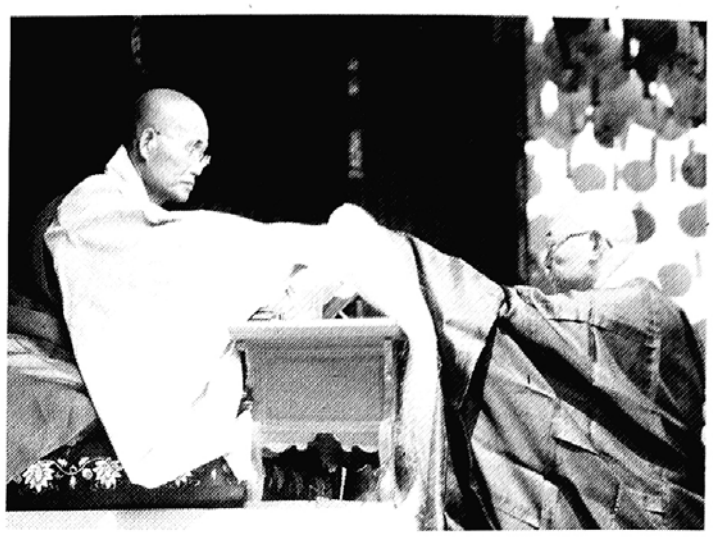
-장좌불와를 하게된 계기는.

▲행자시절에 옛 어록을 보니, 근기가 뛰어난 자는 7일안에 견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길로 공양주노릇 팽개치고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용맹심을 내어 일주일간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정진을 했어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견처가 열리지 아니해서 다시 1주일간 장좌불와를 했고 또 1주일, 1주일하다가 어느덧 50여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젠 눕고 싶어도 불편해서 눕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부디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지난 후에 즐거운 일이 오는 법이니 어려움을 열심히 극복해나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나 재앙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실수가 주먹만 하면 성공도 주먹만 하고, 실수가 허공만 하면 성공도 허공만한 법입니다. 역경이 클수록 성공도 큰 법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회피하지 말고 좋은 선물이 왔다고 반길 일입니다. 지난 종단사태도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11일 종정추대식에서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이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스님에게 법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봉정하고 있다.

한번 주장자 치니 진망이 무너지고 산 눈을 떠보니 모두 화장세계로다

혜암종정 취임법어

(上堂 卓拄杖一下)
拘束元來非我意 隨緣處處是吾家
世事已送浮雲外 難避事情正若何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구속됨이 원래 나의 뜻이 아니기에
인연따라 곳곳이 나의 집이었네
세상사를 벌써 뜬 구름밖에 보냈지만
피하기 어려운 사정에는 어쩔 수 없네

天下萬物無非佛 世上萬事無非道
深谷流水誦藏經 山上石佛微微笑

삼라만상이 부처 아님이 없고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음이라
깊은 산골짜기 흐르는 물은 법을 설하고
산봉우리 석불은 빙긋이 웃네

一打拄杖眞妄壞 活眼開眼無邊春
一喝一聲大門開 日月星宿輝古今

한 번 주장자를 치니 진망이 무너지고
산 눈을 떠보니 모두 화장세계로다
한 번 할을 하는 소리에 하늘문이 열리니
해와 달과 별들이 고금에 빛이 나도다

(擧拈 拂子云)
爾有拂子 與爾拂子
爾無拂子 奪爾拂子

(불자를 들고 말하되)

그대에게 불자가 있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주고
그대에게 불자가 없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빼앗는다

佛祖 拂子 卽不問 且道
這介拂子 畢竟甚???處?

불조의 불자는 묻지 않거니와 일러보시오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擧拈 拂子 天地壞 千門萬戶 盡豁開

불자를 들어 보임에 천지가 무너지니
천문만호가 모두 활짝 열리네
아악~

불기 2543년 5월 11일

종정 추대법요 이모저모

○…혜암스님은 추대식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인 11시30분에 조계사에 도착, 비행기편으로 상경한 혜암스님은 총무원이 마련한 승용차로 김포공항에서 총무원으로 이동했으며,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청사 앞에 미리 나와 혜암스님을 맞이했다.

고산스님이 "먼길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다"고 인사를 건네자 혜암스님은 고산스님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악~"할 3천대중 압도

○…"자 여기를 보시오" 혜암스님은 법어에 앞서 "기운차게 말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 말이 잘 안나옵니다"라고 말한 후 약간 쉰 목소리로 법어를 읽어내려갔다. 불자와 법장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오른손으로 불자와 법장를 높이 들어 올리기도 했다.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마지막 '아악~' 할을 할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장내에 운집한 대중들을 압도. 이날 법요식에는 스님 8백, 조계사 쌍계사 해인사 신도 등 3천여명이 운집, 일부 신도들은 일찌감치 종각에 올라 자리를 잡기도.

○…행사를 주관한 총무원은 이날 아침부터 조계사 경내의 차량 진입을 막아 모처럼 탁트인 경내를 만들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국국악관현악단과 조계사 합창단도 행사 시작 두 시간 전부터 나와 '꽃으로 앉으신 님' 등을 연습하며 추대식의 음성장엄을 준비. BBS와 btn은 이날 50여분에 걸쳐 추대식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했다.

성철스님 쓰시던 불자 사용

○…종정 혜암스님에게 봉정된 불자와 법장은 전 종정 성철스님이 쓰시던 것. 통도사에서 전래로 종정추대식에 봉정하던 불자와 법장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종정추대위원회는 성철스님의 유품을 새로운 전래품으로 정했다.

혜암스님의 법어 중 "그대에게 불자가 있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주고, 그대에게 불자가 없으니 그대에게 불자를 빼앗는다. 불조의 불자는 묻지 않거니와 일러보시오. 이 불자는 필경 어느 곳에 떨어져 있습니까?"라는 내용을 두고 한 불자는 "통도사측에 일갈하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종정 추대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정화회의에서는 종로경찰서에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집회신고서를 접수. 그러나 종로서에서 같은 시간 행사가 열려 불가하다고 통보, 호법부 스님들은 조계사 주위와 인사동을 순찰하며 정화회의측 동향을 감시. 정화회의는 이날 '종정 월하' 라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 불자는 "평온하고 검소한 추대식 였다. 추대식을 계기로 종단의 긴장관계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한마디.

불자와 법장 선수행 상징-전법의 증표

선종에서는 불자(拂子)와 법장(法杖)을 선수행 지침의 상징으로 여겼다. 전법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조당집〉에서 혜능대사가 한 스님에게 불자를 세워들고 거듭 "보았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전등록〉에도 "옛 사람이 방망이를 들거나 불자를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는 내용이 있다.

불자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 의미의 법구로 불진(拂塵)이라고도 불렀다. 짐승의 털이나 삼(麻) 등을 묶어서 자루 끝에 맨 것으로 원래는 벌레를 쫓는 데 쓰는 생활용구였다. 불가에서는 흰 말의 꼬리로 만든 백불(白拂)을 귀히 여긴다.

중국에서는 특히 선종의 장엄구로서 수좌 또는 주지가 불자를 잡고 법좌에 올라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 이를 병불(秉拂)이라고 한다.

주장자라고도 불리는 법장은 선사들이 좌선이나 설법할 때 지니는 지팡이다. 외출할 때도 지니고 다니며 위험에서 몸을 지키는 도구로 썼다. 상단을 정두(淨頭), 하단을 촉두(觸頭)라고 한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따스하게



대한불교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땅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화합과 공생의 자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중단없이 정진할 것입니다.

종 정 혜 암
원로회의장 탄 성
총 무 원 장 고 산
중앙종회의장 법 등
호 계 원 장 월 서
교 육 원 장 일 면
포 교 원 장 정 련

불기 2543년 5월 22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탐진치 삼독 버리면 우리 모두 한생명

법등 밝혀 공생화합시대 열자



고 산
조계종 총무원장

兜率王宮同一土 無來而來本眞性
도솔왕궁동일토 무래이래본진성
爲度衆生現世間 無說而說皆成佛
위도중생현세간 무설이설개성불

도솔천과 정반왕궁은 차별없는 하나의 국토요, 옴이 없이 오는 것이 본래의 참된 성품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설함이 없는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만들어온 세상은 탐, 진, 치 삼독이 들끓는 세계였습니다.

지금도 발칸반도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종교분쟁 또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불행한 이웃에 자비와 지혜를



덕 암
태고종 종정

지난 해부터 몰아닥친 IMF체제의 경제적 위기가 좀 풀렸다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기업체의 도산과 실업률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정치계의 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인륜과 도덕성마저 타락할대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자비와 지혜로써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제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나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가진 것 없어 애태우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고통받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애 샘솟는 인간사회 이뤄야



도 용
천태종 종정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밝은 광명과 같이 지혜의 광명으로 미암(迷暗)의 중생계를 사무쳐 밝게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중생계는 오직 5욕 탐심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의 충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와 원한을 일으키어 서로 싸우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는 밝은 마음을 등지고 마침내는 삼악도에 떨어지고 육도를 돌고 돌며 생사고해를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극단과 극단으로 흐르지 말고, 대립과 갈등, 쟁투를 지양하여 중도(中道)와 화합 정신으로 생활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직업을 갖고 옳고 바르게 사는 올바른 생활이 불법에 있습니다. 이기적 사욕을 버리고 공리공복을 위해 살도록 합시다.

나눔 실천 더불어 사는 삶 확대



각 해
진각종 총인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하신 것은 부처와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동체대비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심이며 또한 우리 중생의 괴로움을 섭수하고 헤아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귀명해야 할 영원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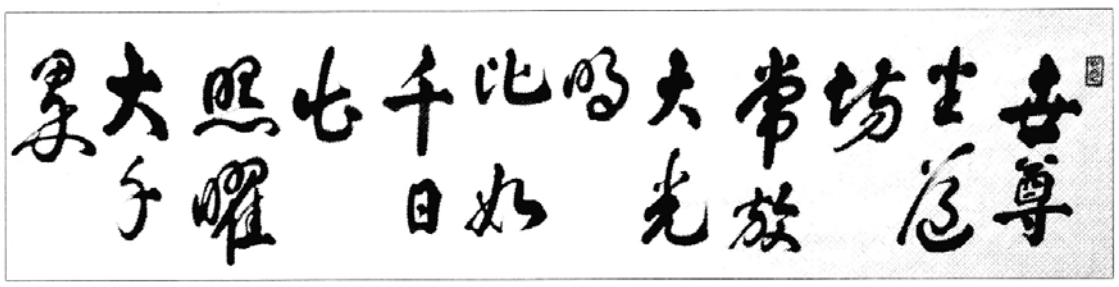
우리들은 무시 광대겁으로부터 공생공업(共業)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서로에게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일체는 인연의 화합으로 생기하고 소멸하는 것이기에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눔으로써 공업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쳐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연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명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동업중생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비와 믿음의 환희등불 켜자



홍 파
관음종 종정대행

부처님은 진리의 몸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류의 등불로서 광명을 밝혀 주시고 계십니다. 〈법화경〉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청정하게 하고 그 법성지견을 보고 깨달아서 나와 같이 안락한 생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바세계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심지로 하여 환희의 등불을 밝힙시다.



송월스님 봉축휘호

世尊坐道場 常放大光明(세존좌도량 상방대광명)
比如千日出 照曜大千界(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세존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셔서 항상 큰 광명을 나투시니 비유컨대 천개의 태양이 나온 것과 같아서 삼천대천세계에 비추었더라.

미망 제도 마음의 평안 얻자



혜 안
보문종 종정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시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시며 '삼계의 미망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고 하신 일성이 2,5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렁찬 법음으로 온 우주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여기 있기에 모든 불자들은 이 뜻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 내몸같이 사랑해야



일 화
법륜종 종정

하늘위와 하늘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외침으로써 참다운 우주의 주인과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자존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평등사상과 모든 생명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자비의 실천행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진리의 등불, 소망의 등불을 켜서 고해 중생들의 마음을 밝은 광명의 빛으로 장엄합시다.

남북통일·인류화해 발원



운 파
조동종 종정

고해 화택의 임야에 허덕이는 미한 중생 구원하고자 도솔에서 룸비니로 강탄하신 싯달타 태자 귀한 몸 7보 길으며 설하노니 내가 암야에 등불 켜리라 기원하노니 남북평화 통일에 7천만은 하나로 뭉치고 세계인류는 화해하여 영원한 평화의 사랑으로 지상의 정토 살기좋은 낙원을 건설하여 지이다.

고통의 삶 극복 불보살의 길로



록 정
총지종 종령

부처님 오신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여 그 분의 탄생을, 그 분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즐거움이나 미소로써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뇌와 번민을 통하여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 힘든 시대 이 고마운 고통들이 대처하기에 따라 우리들을 불보살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없어



대 산
삼론종 종정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의 절규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는 희망의 새 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가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나누어 줍시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으며 남과 북이 서로 달리하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밝은 사회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온 세계를 밝히도다



동 광
총화종 종정

世尊爲出現 常放大光明
세존위출현 상방대광명
比如千日出 照曜大千界
비여천일출 조요대천계

우리 세존이신 부처님이 강세 하니 온 법계가 밝아온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온 세계를 밝히도다.

空山足春雨 緋桃間丹杏
공산족춘우 비도간단행
花發不逢人 自照溪中影
화발불봉인 자조계중영

빈 산에 흡백 봄비가 내리고, 복숭아꽃 살구꽃 울긋불긋 피었네, 산중이라 꽃피어도 보는 이 없어 저혼자 시냇물에 그림자 드리웠네

차별없는 자비등 밝히자



금 파
대한법화종 종정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IMF 극복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속히 국난이 극복되고 남북통일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本無自他全一體(본무자타전일체)/起愚痴心兩分斷(기우치심양분단)/無差慈燈照天高(무차자등조천고)/平和統一還歸本(평화통일환귀본) 본래는 너나없이 한몸인데 /어리석은 마음이 두갈래로 만들었네 /차별없는 자비의 등불 높이 비추어/평화통일 이루어 본체로 돌아가세.

부처님 가르침 하나씩 실천



해 곡
열반종 종정

천만 불자들은 오늘을 봉축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어리석음과 화를 내는 3독을 불태워 열반에 이르려는 산고의 아픔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의 날로만 보내기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은 것 한가지씩이라도 실천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 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 · 환속 · 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안될래 | 〈제2권〉 그 믿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 신국판 | 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정보사회 이끌어갈 참사람 양성"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21세기 비전 - 불교교육' 대담 송석구 동국대총장 : 손제석 위덕대총장

2000년이 눈앞에 있다.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세기는 세계화 정보화가 한층 앞당겨지는 첨단의 열린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고(思考)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가운데 불교교육의 시대적 과제와 역할에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93주년이 된 조계종립 동국대 송석구 총장과 1996년 설립되어 내실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진각종립 위덕대 손제석 총장의 대담을 마련 '21세기 비전-불교교육'의 전망을 듣는다. 두 총장의 대담을 통해 불교 종립대학의 역할을 점검하고 21세기 불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송 석 구
- 1940년 서울 生
- 1962년 동국대 철학과 졸업
- 국립대만대 철학연구소 수학
- 1981년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 취득
- 국제중국철학회장, 고운학회장, 한국동양철학회 명예회장
- 주요저서 〈율곡의 철학사상〉 〈한국의 유, 불 사상〉 〈불교와 유교〉 등



손 제 석
- 1931년 포항 生
- 1956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1976년 서울대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국제정치학회장 등 역임
- 1985~1987년 문교부장관
- 주요저서 〈초국가 기구의 역할〉, 〈대학과 대학인〉 등

지덕겸비 교육 펼쳐야 '삶의 균형' 회복
종립대학 질적-양적 세계화 추진할때

"부처님 가르침에 투철 인간중심 열린교육 21세기 교육의 지향점"

△송석구 총장=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내용을 사회와 인류에게 이해시키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45년간을 전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불교교육이 지도자를 중심으로한 강원, 선원 교육이라면 근대에 들어 출가와 재가의 교육이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종립학교는 출가위주의 교육에서 재가·출가의 교육으로 일체화하고, 신행위주의 교육에서 과학·이론적 보편교육으로 대중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손제석 총장=새로운 세기의 교육 역시 지난 시대의 교육을 법고창신(法古創新)하면서 자기자리를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여 실체적 시간을 전제로 논리적 비약을 하거나 교육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오히려 퇴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교교육은 지식뿐 만이 아니라 덕성까지 겸비한 지덕겸비(知德兼備)의 '참된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까닭에, 지난 시간 지식편중의 잘못된 교육에 균형감각을 불어넣어 주는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총장=동국대가 불교교육의 선도를 해왔지만 불교교육, 불교에 대한 사상 이론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대학들에서도 불교를 교육시키고 있지요. 시대에 맞는 전인교육을 보완해 불교교육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사명감도 없지 않습니다.

△손총장=지나치게 지식·기술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도덕·덕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추세를 일정정도 바로 잡아낸 점이 불교교육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향후 불교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맞기 쉬운 脫인간화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화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에 보다 투철하게 입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교육의 미래사회적 비전이 될 것입니다.

△송총장=많은 문명비판가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불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교인들이 과연 그동안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왔느냐 하는 뼈아픈 성찰이 먼저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불교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부처님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틀을 새시대에 맞게 짜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와 지계,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총장=불교인들의 자기비관과 참회를 통한 자기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 땅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대중들의 알뜰한 귀의처가 될 수 있는 데서 희망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종단과 각급 불교교육기관에서는 불교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변화는 오직 교육을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한 불교인들의 신행과 생활의 통일'은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송총장=21세기 정보화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소외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소외와 허무성을 막는 일이 육바라밀 실천이예요. 육바라밀을 관념으로만 알면 안됩니다. 보시 하나라도, 지계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경하고 마음의 평등성을 인지하고 누구나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면 바로 내가 '부처고 그사람도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손총장=정보화는 농업화와 산업화에 이은 인류사의 제3의 물결이며, 저는 '인간화'를 제4의 물결로 간주하고 있지요.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진단한 바 있는 '문명의 피안'으로서의 과학기술의 만개는 인간의 문제를 내재적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이 반드시 탈인간화는 아니며, 디지털체계가 완성적으로 발달하면 인간화의 실마리도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란 네트워크화를 말하며, 이는 중심이 따로 없어서 서로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완전한 정보화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완전한 정보화냐 하는 점입니다. '열린 네트워크'여야 하겠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송총장=요새 학생들은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는 불교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합니다. 비디오 등 첨단 시청각기구는 필수지요.

△손총장=맞는 말씀입니다. 시대변천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고, 불교교육의 방편도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는 속인 정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되면 자아의 독립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 자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주체적 자아 사상이지요. 불교에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게 해서 자아와 자아의 싸움, 그를 통한 자아의 확립을 이끌어주는 禪교육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서구사회에서 선의 붐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손총장=국내에서도 이미 사이버대학이 많이 운위되고 있으며,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럭커(P.F.Drucker)같은 이는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공간중심의 대학은 사이버대학에 밀려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과연 그럴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사회가 되어도 종이로 된 책이 사라질 수 없듯이, 대학도 그럴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이버대학은 바로 이 인격적 접촉이 불가능한 까닭에 오늘날의 대학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끊이지 않는 학내 총기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식위주의 교육이 낳은 병폐인 동시에,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인격적 접촉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겠지요. 고도 정보화사회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하는 불교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총장=불교 본질에 충실하고자 우리 대학은 '참사람 열린교육' 제도를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발휘하게끔 보조하고 개방적이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사랑하는 대학, 그 지역을 사랑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쟁이 지상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인문학의 위기현상은 사실이고, 이는 상당부분 교육정책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을 해 나가돼 획일적이고 단세포적인 잣대로 학문과 대학을 재단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며,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아래 지나치게 작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학교육현장의 황폐화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송총장=첨단정보화시대로 갈수록 백화점식으로 널려있는 인문학이 특성화된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한능력자이고 그 마음은 죄도 없고 고도 없고 투쟁도 없는 것이라 마음자체의 평등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기르자는 것이지요. 참사람을 지향하고 개방적으로 평생을 수행으로 삼고 나가는 교육이 바로 '참사람 열린교육'입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학생 천여명이 수계를 받았어요. 매년 경주캠퍼스까지 포함 2천명이상이 자발적으로 수계를 받습니다. 또 '참사람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모집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학생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불교를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자는 취지지요.

△손총장=위덕대는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 자리하면서 한국 근대화의 한 상징인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을 접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울산도 통학권내에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동해권의 중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이러한 지역입지와 연계하여 '환동해권 중심대학'을 특성화의 목표로 삼고, 학과 및 연구소 설치는 물론이고, 특성적 교육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동해권 특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이들 지역사회의 문화와 산업에 부합하는 대학운영을

"자신 알게하는 불성계발 자비-지혜 실천교육 정보시대 탈인간화 예방"

인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오히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지요. 인문학은 위기라고 한 순간부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이제 대학도 질적인 세계화, 양적인 세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대학이 21세기에 새로운 사고(思考)를 제시할 인재를 양성하려면 백화점식의 나열된 교육과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지요. 불교를 축으로 한 한국학, 불교를 축으로 한 정보통신과 세계화 교육이 동국대와 위덕대 두 불교 종립대학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손총장=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동국대학교에서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 대학은 우선 일본의 종립대학들과 교류해 나가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불교 유관대학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계화의 실질적인 방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 추세로서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학을 중시하고, 세계 주요대학들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교수와 학생을 교류하는 실제적인 세계화 교육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성이며, 교류협정에 서명하고 교류실적이 없는 식은 이제 피해야 겠지요.

△송총장=종립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총장=설립종단과 대학은 종학일체(宗學一體)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요익하게 작용해야 하며, 이 정신을 벗어나는 관행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으로서 최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인식한 가운데, 어려운 현실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동국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동국을 나서면 미래가 보입니다.

개교 93년의 역사와 전통의 힘을 바탕으로,
15만 동국인의 민족과 사회발전을 향한 소명의식과
동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한데 모아,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吳 綠 園
東國大學校
總長 宋 錫 球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TEL : 02)2260-3011~2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회 주 이 혜 성
주 지 김 광 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주지실 02)993-5002
FAX : 02)993-3164

"조계종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야"

서옹스님 日서 본지기자와 인터뷰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야기된 조계종 사태때 '참회문'을 발표해 수습의 일단을 제시했던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조계종 제5대종정 역임)이 12일 일본 대판시 생야현 관음사(주지 원연)에서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종단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협심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3시 일본 대판시 관음사 중창 불사 상량식에서 법회를 증명하고 법어를 한 뒤 이어 가진 1시간여 인터뷰에서 서옹스님은 "이제는 합심이 돼서 서로 용서해야지 끝까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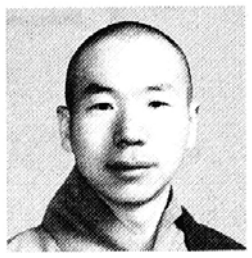
스님은 또 "부처님께서도 부모를 죽인 사람일지라도 자비심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일깨우고 "서로 도와 올바른 불법을 도모해야지 감정으로 대립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마음이 무서운 것이다"고 전제하고 "마음먹는데 따라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며, "내가 요즘 손목뼈가 불편해서 일본 병원에 갔었는데, 보통 사람의 뼈가 팔목과 손목을 연결하는 뼈가 떨어져 있는데 나는 붙어있다는 것이야. 나처럼 뼈가 붙는 사람은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나는 체격으로 봐서도 거의 육체노동은 하지 않았고 다만, 수행의 일환으로 붓글씨를 많이 쓴 것이 전부이다. 다만, 붓글씨를 쓸 때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 써왔고, 그것이 극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힘이 가해져 내 몸의 뼈까지 붙는 작용을 한 것이다."며 "종단도 이제는 서로 도와 자비심으로 올바른 불법을 함께 일으켜야지 감정으로 대립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내가 '참회문'에도 그랬듯이 마음을 텅 비우고 대화해서 서로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함께 수행풍토를 일구어야 한다"고 일깨웠다. 일본 대판=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강화봉축음악회 여는 향적스님

"종파초월 축제 대중화 되길…"



"지역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뜻을 기리며 음악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21일 강화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봉축음악회를 개최하는 강화사암연합회 회장 보문사주지 향적스님.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으로 5년간 불교 교육포교 현장에서 활동하다 1월25일 보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은 타교세가 강한 강화 지역의 한계를 안타까워 했다.

"말로만 들다가 실제 강화에 와보니 사찰이 16개인데 비해 교회는 3백개가 넘는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봉축법회와 제등행렬이 매년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축제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 스님은 초종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를 통해 봉축 대중화 분위기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사찰은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해야 합니다."

스님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강화지역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각종 회당대종사 탄생절 봉축

진각종은 종조인 회당대종사 제98회 탄생절을 맞아 10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봉축헌화식을 봉행했다.

각해 총인, 성초통리원장, 종립학교 총장과 교장, 서울교구장 스승, 신교도 등 5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종조일대기 〈진각성조 회당대종사의 생애-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가 종조전에 봉정되었다.



경찰청 경승 '나라와 국민위한 대법회'

경찰청 경승실(경승실장 자우)은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직원식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찰청 경승 기원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단 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청 경승 허정·지원, 서울 북부서 경승 세민스님과 진각복지회 혜정 상임이사, 경찰청 김광식 청장, 이근명 차장, 김진홍 경찰포교회장, 남강수 불자가수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성북구 사암련 법요식·경로잔치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본스님)는 11일 성북구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봉축법요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각종 성초통리원장, 성북사암련 회장 종본스님(경국사 주지), 수석부회장 선우스님(법륜정사 주지),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과 진영호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약사불자회 창립

수원시 약사불자회(약칭 약불림)가 출범했다. 약불림은 7일 수원시 약사회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덕신스님, 경기도 포교사연합회 김원중 회장을 비롯 수원시 약사협회 회원과 온누리영진약국 이종숙 약사 등 17명의 불자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덕신스님은 법문을 통해 "약사보살의 대원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약불림은 매월 1일 아침 7시에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용옥박사 봉원사서 특별강연

"불교의 인식론 젊은이에 심자"



김용옥 박사가 9일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에서 '공과 깨달음'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1천여 대중을 사로잡은 김박사는 중도와 공사상, 연기법과 같은 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불교의 특성과 21세기에서의 위치에 대해 강의했다.

김박사는 불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론을 꼽았다. "유일신을 주장하는 서양종교에서는 오로지 믿음만이 존재할 뿐 존재에 대한 인식론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며 "불교는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원문제와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이유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도사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양쪽을 모두 포용하는 대긍정의 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박사는 태고종의 대처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교포교에 새로운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옥박사는 "불교를 단순히 피상적인 상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진지한 고민과 깊은 사유를 통해 내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근본의를 깨닫게 해 주자고 역설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논산훈련소서 수계법회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30일 오후1시 논산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3천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구구치소서 수계법회



성덕 팔공산 동화사 주지는 20일 대구구치소 연무장에서 경비교도대원과 불자수용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봉축기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모범경찰 자녀에 장학금

성운 서울 은평구 사암연합회장 스님(삼천사 주지)은 12일 은평구청 봉축탑 점등식을 거행했다. 이어 13, 19일에는 서부 및 은평경찰서에서 오찬법회를 갖고 경찰 모범자녀들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불교신문사 사장에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는 7일 불교신문사 사장에 임명됐다.

동국대서 21세기 불교 특강



지광 능인선원 주지는 1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초청으로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불교'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이현주목사 초청 강연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22일 오후3시 서울 강남 정토법당에서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의 일환으로 이현주목사(예수살기모임 대표)의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처님' 주제의 특별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4

제2회 전국박물관인대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은 17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제2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개최한다.

5월 디보법회서 강연

강건기 전북대교수(철학과)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진흥원 5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노인시설 '더불어…' 위문



권상균 부산 조흥은행 양정동지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9일 부산 진구 부암동 소재 노인복지시설 '더불어 사는 집'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불교TV 이영숙이사가 8일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48세의 일기로 사망한 이 이사는 11일 강남 삼성의료원에서 영결식을 거쳐 경기도 용인에 안장됐다.

염불만일회 中 동림사와 자매결연



전국염불만일회(회장 김재일)는 2일 중국 정토염불의 최초 발상지인 동림사(방장 덕인)에서 염불결연식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전국염불만일회와 동림사는 매년 양국을 교환방문하며 나무아미타불염불기도와 불교문화를 교류하고, 염불에 관한 합동 세미나도 개최하게 된다. 오는 10월에는 동림사에서 한국을 방문, 고성 건봉사 등공대와 염불사찰성지를 순례할 계획이다.

"주말·수련법회 정기 개최"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 김병철회장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청소년불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불자교사들이 불법홍포에 앞장서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의 제2대 회장에 선출된 김병철(광주 숭신공고 영어교사)씨는 불자교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회장은 불자교사들의 자기수행을 철저히 점검할 주말법회와 수련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수계법회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재정자립의 기반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사들의 신심증진을 위한 신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단위 단체 및 지회 지부 등록 공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가불자의 교육향상과 체계적인 조직활동에 있습니다.
4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불교 신도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불교, 중생을 구제하는 불교를 실현키위해 새롭게 조직 정비를 통한 재가 불자의 자율적인 신도조직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기존 조직의 개편과 신규조직의 등록을 바랍니다.

▶대 상 : 1. 기존 지부 조직 [99년 개편대회를 통해 등록]
2. 신규 지부 및 시·도 단체, 지회
3. 직장 및 직능 단체
4. 단위 단체
▶등록기간 : 1999년 5월 17일 ~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 재가 불자단체
▶특 전 : 1. 사단법인 명으로 등록증 수여
2. 등록 단체는 사단법인의 법적 보호
3. 전국신도 조직의 활동 혜택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국 : ☎ 02)732-7272~4 FAX : 02)732-7275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99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진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영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생론· 반주삼매경·무량수경종요·보왕삼매론· 미타예참법·염불요문·염불의례·정토미술· 정토론·정토음악	한보광스님(동국대)·장휘옥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태원스님(승가대) 주명철교수(동국대)·정태혁교수(동국대) 강동균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 혜 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4월 10일~ 99년 5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동산 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6월 3일(목) 오후 7시 (동산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17,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장 수여
⊙ 졸업자는 소정의 고시를 거쳐 정토염불법사 수여

전국염불만일회 아미타정토대학

부처님오신날 안방극장 볼거리 '풍성'

음악회·다큐·영화등 BBS도 특집물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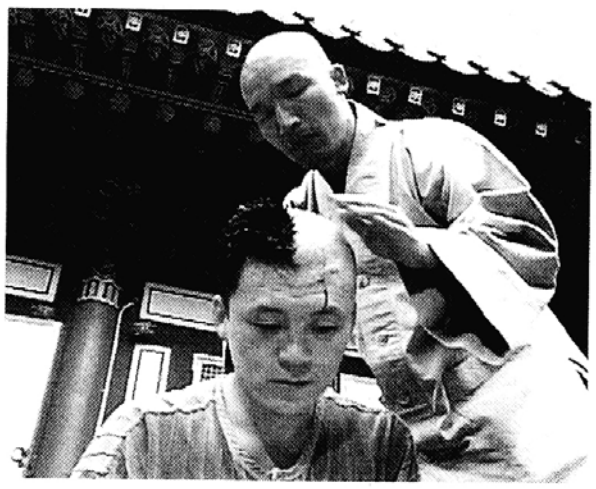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다큐멘터리, 음악회, 드라마, 성지순례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봉축 특집에는 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풍성하다. 눈길을 끄는 것이 EBS-TV의 '화두 열림과 나눔', KBS-1TV의 '질적·양적 고려대장경', 아리랑TV의 '새 절 봉원사 사람들' 등.

22일 (오전11시~오전11시40분) 방영되는 EBS-TV의 '화두…'는 행자에서 만행승, 깨달음에 이르는 선승의 수행 모습을 통해 한국선불교를 조명하고, 출가 의미를 되새기며 보는 프로다.

이 프로의 무대는 덕숭산 수덕사. 행자들의 삭발식과 울력, 선방스님들의 참선 과정, 수덕사 일성스님의 만행 모습 등이 생생히 소개된다. 또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에게 올바른 화두 참선법을 들어 본다.

같은날 KBS-1TV(밤8시~밤9시)에서 방송되는 '질적·양적…'은 고려인들의 불심과 인쇄술의 하이테크가 집약된 팔만 대장경의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대장경의 명성과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확인 시켜 준다. 특히 대장경 목판에 사용된 수종(樹種), 가공, 관각, 표면처리의 과정과 대장경 인쇄본인 영인본에서 찾아낸 3600명의 명단을 토대로 16년동안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밝혀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단한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에서는 또 팔만대장경의 조성 이유와 대장경 관각지, 운반에 얽힌 사연 등도 고증을 통해 다뤄진다.



◇EBS-TV의 '화두, 열림과 나눔'의 한 장면. 수덕사 교무 주경스님이 입산한지 2주일이 된 행자를 삭발하고 있다.

아리랑TV(밤9시~밤9시50분)도 '새 절, 봉원사 사람들'을 봉축 특집으로 편성했다. 신촌 봉원사를 무대로 한 이 프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이수자로 마을을 형성해 불교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봉원사 사하촌의 진솔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한편 김병조씨의 진행으로 대중가수들이 참여해 흥겨운 봉축 축제 한마당을 펼칠 강화봉축 음악회 공개방송 '우리도 부처님같이'(불교방송, 21일 밤7시25분~밤8시)와 부처님의 번뇌와 구도 과정을 전통 불교음악으로 재 편곡해 서울 중앙관현악단이 연주한 '천년의 소리'(불교TV, 22일 오전11시40분~오후1시10분) 등은 언제 들어도 신명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볼만한 방송프로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btn) 22일	11:40	천년의 소리	서울 중앙관현악단이 공연한 '천년의 소리'를 녹화 방송
	13:10	총무원장 특별대담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에게 새롭게 정리된 총무원의 모습과 불교계의 미래상 등을 들어본다.
	14:15	연극 '등신불'	인천시립극단이 새로운 작품 해석과 독창적인 어법으로 희곡화한 연극 '등신불'을 녹화 방영한다.
불교방송 (BBS) 22일	09:05	인도에서 만난 선지식들	시인 류시화씨와 재연스님이 인도여행에서 만난 선지식들을 소개한다.
	11:10	자비로운 미소, 우리 품안에	길상사 지묵스님이 인도 4대 성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17:10	오늘을 밝히는 등불	강화 봉축법회 및 음악회 실황이 생방송 된다.
	22:05	나의 인생, 나의 영화	리틀붓다, 티벳에서의 7년 등 불교영화를 음악과 함께 소개한다.
불교방송 (대구)	08:30	기쁜날 모든이와 함께	천주교 대구 대교구 이문희주교를 비롯한 대구 각계 인사의 봉축 메시지
	15:05	특집다큐 '또하나의 장애를 딛고'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등반을 조명한 다큐
KBS-1	12:10	특집다큐 '만행'	미국인 현각스님의 만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얻어가는 과정을 영상화한 로드 다큐
	20:00	역사스페셜 '고려대장경'	16년동안 만들어진 고려대장경의 질적·양적인 분석을 한 다큐멘터리
	24:00	특선다큐 '미소의 원류를 찾아'	경주에서 그리스까지 불상에 나타난 미소의 원류를 찾아간다
MBC(20일)	11:00	양코르 특선다큐	인도의 4대 불교유적지 소개
대구MBC (24일)	17:10	동화사음악회	대중가수, 국악인들이 함께 꾸민 동화사 사찰음악회 녹화실황
	11:00	특선다큐 '보조국사 지눌'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
EBS	11:00	특집다큐 '화두, 열림과 나눔'	수덕사 행자·만행승 선승 등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조명한 다큐
Q채널	10:00	특집다큐 '멕시코에 피어나는 연꽃'	한국에서 건너가 30여년동안 멕시코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삼우스님의 활동을 조명
	21:00	특선다큐 '달마 이야기'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달마대사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아리랑TV	21:00	특집다큐 '새절, 봉원사 사람들'	성과 속이 만나는 신촌 봉원사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그린 다큐멘터리



◇15일 천태종은 KBS 국악관현악단 협연으로 KBS홀에서 봉축특별 연주회를 개최했다. KBS는 22일 녹화 방영한다.

세대·종교벽 넘은 '자비 하모니'

천태종·삼소회 등 봉축음악회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음악회가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6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4백여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됐던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무용단 기념연주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로 진행된 이 음악회는 찬불동요와 찬불가를 국악으로 재 편곡·연주해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 오셨네' '보시하는 마음' 등이 합창단과 무용단의 흥겨운 무용과 함께 연주됐다.

8일 여의도 KBS홀에서 '한겨레 한 생명, 북녘 어린이에게 희망을 이란 주제로 열렸던 불교, 천주교, 원불교 여성 수도자들로 구성된 삼소회 음악회, 사랑, 자비, 화합의 하모니가 음악으로 조화를 이룬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은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천태종은 15일 KBS 국악관현악단과 공동으로 '부처님 오신날 특별 연주회'를 KBS홀에서 가졌다. 이상규씨(한양대 교수)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에는 천태종 금강불교합창단을 비롯 서울 경기지역의 7개 합창단 등 5백여명의 연합합창단과 천태어린이합창단 2백여명이 찬불가와 동요 등을 선보이고, 범패·사물놀이 등도 공연됐다.

이 음악회는 22일 KBS에서 녹화 방영된다. 김주일 기자

"군위마애불은 채색불상"

계명대박물관 밝혀…"회화사 다시 써야"

불상 전면을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명대 박물관(관장 김종철) 조사단은 10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동 신라 마애삼존불은 광물성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 불상"이라고 밝혔다.

92년 발견됐던 이 마애삼존불은 그동안 두껍게 쌓인 먼지 등에 가려져 불상 윤곽만이 보이는 상태였으나, 계명대 박물관과 계명사학회(회장 정만득)가 정밀조사를 하면서 먼지와 오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채색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마애삼존불은 붉은색을 주조로 하여 얼굴과 옷, 광배 등에 노랑, 녹색, 검정, 그린밀트 색조 등의 광물성 안료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색으로 채색됐다는 것.

지금까지 석굴암 본존불 입술에 붉은색을 칠한 것등 불상 일부를 채색한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전면이 채색된 불상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중국 고대 불상은 돈황석굴에서 보듯, 전체를 채색한 불상이 많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대 불상도 전체를 채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영현 학예연구팀장(경북대 박물관)은 "이외에 마애불 주위에서 연꽃문양의 채색된 그림 8개와 모양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채색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번 발견은 국내 조각과 회화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했다.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애삼존불은 높이 8m에 '돋을새김(양각)'한 것으로 모두 입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존 250cm, 우협시 220cm, 좌협시 193cm 크기.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탑골공원 영산재·음악회 보러 오세요

불자련 17~21일 문화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이하 불자연합)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7일부터 21일까지 탑골공원에서 영산대재, 작은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새천년 지구촌 화평문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영상대재(무형문화재 50호)는 18일 12시 탑골공원에서 봉행된다. 송강스님등 20여명의 스님들이 봉행하는 이번 영산재는 전쟁·환경 등 갖가지 재앙으로 죽어간 고혼의 한을 풀어주고, 21세기 지구촌 평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19일 12시에는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다. 결식아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는 불교자원봉사연합합창단, 니르바나 실내악단, 청룡사 어린이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결식아동에게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 후원 및 결연신청 행사도 펼쳐진다. 또 무형문화재 3호 이수자인 학산 김덕명 선생이 21일 3시 지성승무, 양반춤, 찬탄가, 사찰학춤, 연등바라무 등을 공연, 사찰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편 불자연합은 17일부터 21일까지 소외계층에 소망의 연등을 달아주는 '무차연등회'와 '탑돌이'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IMF를 맞아 함께 사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02)723-6258 오종욱 기자

화제의 전시

고요하고 맑은 선의 세계

이명우 달마전
18~22일 주일문화원



50여년간 달마도를 그리며 선의 정신세계를 넘나드는 소공 이명우씨의 예술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주일한국문화원이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18~22일 문화원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이명우 달마전'은 참선과 수행으로 일관한 노서화가의 반세기 숭고한 삶속에 투영된 선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다. 전시회에서 이화백은 부드럽고 유려한 선으로 달마의 다양한 표정을 담아낸 달마변상도 등 작품 35점이 소개한다.

금도서예의 독특한 멋

조성주 전각·서예전
21~29일 국제신문사

금강경 전문 5천4백자를 1천1백51개의 돌에 완각한 전각작품과 각서체로 쓴 금도(金塗) 서예작품 전시회가 21~29일 부산국제신문사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중견 서예전각가 조성주씨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전각금강경'은 총1천1백51방을 전각 석이나 옥으로 된 방촌의 인재(印材) 위에 각 서체별로 모두 새긴 것.

교육·통일염원 도자기·전각작품

김상숙서전
20~26일 백악예원

서예삼매로 교육철학을 갈고 닦는 김상숙 교감(동국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 15년동안 써온 작품들을 모아 서전을 연다. 20일부터 26일까지 관훈동 백악예원에서 열리는 서전에서는 김상숙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히 써 온 작품 47점을 만날 수 있다.

산사·선승 풍취 물씬

김성룡 '空의 뜰' 전
27~30일 통도사



산사의 바람과 햇빛 속에서 화폭 가득 선승들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설치 미술전이 열린다. 부산불교문화원(원장 원타)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27~30일 통도사에서 '공(空)의 뜰'이라는 주제로 김성룡씨의 설치 미술전을 마련했다. 투명한 색채로 선승의 모습과 선시를 담은 작품 30여점에 통도사의 자연경관이 더해져, 볼자들에게 종교·철학적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화 중견 3인 진경정신전

이호신 문봉선 권기윤씨 등 우리나라 한국화를 이끌어가는 중견작가 3명이 25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실경산수와 진경정신展'을 열고 있다.

우리 산천에 담긴 참뜻을 조형화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는 이들 3인의 최근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호신씨는 무위사 등 사찰 전경과 '환도산성의 겨울' 등 대형 작품으로 실경산수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02)733-9512

대구 향토작가 서화초대전

정법회거사림은 창립 34주년 기념으로 '향토작가서화초대전'을 열고 있다. 20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석주 석정스님 등의 글씨와 그림, 김대환 유영환 조광호씨등 유명 서예가와 화가들의 작품 1백여점이 선보인다. (053)423-8626

도서출판 황금꽃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구도의 대지침서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하는 책이나 테입들을 전화나 팩스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중, 매년 5분을 추첨하여 인도 부니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제3의 눈의 개안(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제3의 눈은 유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육체는 죽지만 제3의 눈은 그대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새로 탄생한다. 두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탄생, 죽음, 재탄생, 재죽음의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의 눈의 계발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다음은 부처, 신의 단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계뿐이다. 그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의 예속(隸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가미사마, 또는 귀신, 조상(祖上)들 등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 중에 나를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 본문 중에서 –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쇼의 이야기!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고타마 붓다 / 보현(菩賢)
곽산 / 석두(石頭)
남전(南泉) / 수산주(修山主)
대수(大隨) / 앙산(仰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장경(章敬)
바쇼(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혜각(慧覺)

정가 9,000원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쇼 / 옮긴이 류원장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쇼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토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쇼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카츠에 이시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손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다. 나는 그를 선뜻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였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하였던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은신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을." – 오쇼 –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경전 속 진리 詩로 만난다

원의범 교수가 펴낸 잠언시집 '사람은 생각 실린 구름'

교리·사상 감칠맛나게 전달 젊은이들 위한 현대판 화두



원의범 동국대 명예교수(78)가 오랜만에 잠언시집 〈사람은 생각 실린 구름〉을 내놓았다. 불교학 논저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책을 펴내지 않기로 소문난 원교수. 그가 평생 지켜온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잠언시집을 펴낸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적으로 복잡다난하게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하나씩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행복과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길 바랍니다." 각종 경전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등 교리와 사상을 감칠맛나는 간결한 시어로 소화해 낸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즉 각종 경전에 스며있는 부처님의 진리를 요즘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해 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원교수가 30여년 동안 관음회, 달마회, 만불회 등의 법회용으로 써온 4천여편의 글 가운데 젊은이들이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108편을 가려뽑아 엮은 것이다.

"…안보이는 부처님이/ 밖으로/ 걸어 나와/ 착한 일은 할 때/ 보이는 죽은 부처님/ 안 보이는 산 부처님/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죽어도 살아있는/ 세 부처님이 하나로 보이나니/ 이것이 깨달음이요/ 견성성불이라/ 견성성불 잘못하면/ 얻어먹고 사는 거지만도 못하리라"('보이는 부처님 속에 안 보이는 부처님이 있으니'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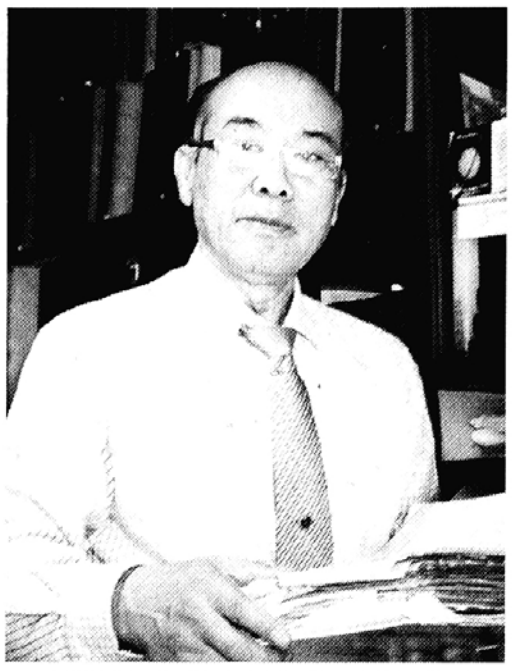
이같은 내용은 모두 경전을 근거로 했다. '보이는 부처님 속에…'는 〈금광명경〉 삼신분별품의 핵심을 간결한 시어로 풀어놓았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108편의 글들은 1개의 경전에서부터 많게는 5개의 경전과 논을 바탕으로 했다. 각 편의 말미에는 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전의 원문을 수록해 놓았다.

원교수는 "불교를 이해하는데는 여러가지 방편이 있지만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글들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 글들은 불교 진리가 생활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0여년동안 각종 경전의 요지만을 간추려 시어로 표현한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판 화두다"라고 책을 소개했다.

원교수는 한편을 정리하는데 단숨에 쓴 것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 이상 걸린 것도 있다. 원교수가 '평생동안 공부한 결과'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편 한편 정독해 가다 보면 원교수의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처럼 산문처럼 자유롭게 씌여진 것은 원교수가 틈틈히 한시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바다를 담는 그릇은 없어도/ 바다라는 말에는/ 바다가 담긴다/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도/ 사랑이라는 말에 담겨져/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간다…('하늘을 담는 그릇은 없어도' 중에서)'는 〈중하함경〉에 담긴 사성제를 특유한 시적 감각으로 표현해 낸 것처럼 이 책의 전편에서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농축된 시어는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요소가 된다. 지샘 刊.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대중들에게 보다더 친근하게 다가설수 있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 지난 30여년동안 법회용으로 집필한 원고들을 정리하고 있는 원의범교수.



◇불교시대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인터넷 불서출판 시대

불교시대사 홈페이지 독자초대
민족사·불광·시공사도 정보제공

안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출판사의 불서를 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는 홈페이지(www.buddhistbook.co.kr)를 개설 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는 입문서, 교리사상, 전기 등 불교시대사에서 출간한 모든 책들이 분류별로 수록돼 있으며 신간안내, 간행예정 도서 등까지 자세히 분류돼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 〈한국불교인명사전〉등 불교관련자료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한편 부다피아 등 불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링크하여 정보를 제공 할 방침이다.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도 민족사 불광 시공사 등의 불교출판사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각종 불서들이 목록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돼 있다.

'불교사상의 이해' 교재용 재출간



동국대학교 교양교재 〈불교사상의 이해〉가 재출간됐다.

이 책은 전국 각 불교교양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재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이 책은 여느 책과는 달리 이해하기 쉽게 강의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은 종교로서의 불교, 근본불교, 불교와 사회 등 5장으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1백여개의 불교용어 해설과 깊이 있는 불교학 공부를 위해 참고도서 목록까지 자세히 실려 있어 불교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불교시대사 刊. 값 1만2천원.

이은윤씨 중국선불교 답사기 '늙은 암소여 왔는가'



중국 호남성 시방밀인사는 위산영우선사의 선맥이 서린 고찰이다.

"늙은 암소여 왔는가"

"내일 오대산에 큰 불사가 있다는데 몸소 가시는지요"

유철마라는 노비구니스님이 선장 위산영우스님을 찾아 나눈 선문답이 생생히 전해 내려오는 위앙종의 주요 도량 가운데 한 곳이다.

이은윤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쓴 중국선불교답사기 네 번째 권인 〈늙은 암소여 왔는가〉는 중국 호남성 13곳의 선종 고찰을 현장 답사한 기록을 담았다.

각 사찰을 대표했던 13선사들의 이야기들은 중심으로 엮어 중국 선불교의 진면목도 아울러 볼 수 있게 꾸며졌다.

이 책은 운수납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선사들이 남긴 화두를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흥미롭게 풀어 헤치고 있다. 책 앞부분에는 실린 30여점의 현장사진이 생생함을 더해준다.

중국선불교답사기는 〈밥그릇이나 씻어라(하북·하남성편)〉〈그것은 바로 네마음이니라(안휘·호북·광동성편)〉〈평상심이 곧 도다(강서성편)〉 등 3권이 출간됐다. 자작나무 刊.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허공의 몸을 찾아서	지 명	불교시대사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 공 사
4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5	파란눈스님의 한국선수행기	버 스 웰	예문서원
6	선림승보전(上)	원 철	장 경 각
7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8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9	나는 누구인가	이 호 준	청 하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빈손 — 성전스님 지음

욕망과 집착서 벗어나야하는 까닭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사라져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데 내 몫이 생기게 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집착으로 괴로워한다" 월간 해인지의 편집장을 역임한 성전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서)이 '해인' '혜원' 등에 연재했던 시와 산문들을 정리한 〈빈손〉이 나왔다. 이 책에는 일상의 단상, 자유, 무소유 등에 대한 사유, 끊임없는 자기반성, 출가의 의미, 구도자의 자세, 삶의 진정한 가치 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치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맑고, 법당의 향내음처럼 그윽하게 전해진다. 저자는 "인생을 진정 아름답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미래지성 刊. 값 7천원.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 김선근 지음

신행경험 토대로 쓴 불교사상 산책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여겨라.' 불자라면 부처님의 이같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여기에는 불자들 가운데 뜻밖에 부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가 펴낸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은 자신이 불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보게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수필집. 이 책에는 오늘의 선지식과 종교의 대립 갈등과 화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대와의 대화, 불교사상 산책을 비롯 저자의 대불련 운동, 군승의 시절등 신행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수록돼 있다. 민족사 刊. 값 5천5백원.

돈연·도완녀 부부 수필집 한권씩 발간





메주가 익어가는 향기와 첼로의 선율이 흐르는 강원 두타초암의 돈연스님과 첼리스트 도완녀씨가 동시에 수필집을 펴냈다.

돈연스님의 〈시인과 농부 그리고 스님〉, 도완녀씨의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가 바로 그것.

〈시인과 농부…〉는 가난한 농부로서의 생활과 자연예찬,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등 수행에 관한 글을 담고 있다면, 〈남편인 줄 알았더니…〉는 남편과 아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제목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자 자신을 시인이자 농부로, 두타초암을 대처승 도량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자는 농사 경험에서 깨달은 기다림의 미학을 독자들에게 전하며 '힘들다, 그러나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남편인 줄 알았더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부부간의 갈등 해결법, 자연과 음악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자녀교육법,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비법 등 생활주변의 이야기를 적었다. 해냄 刊. 각권 값 7천원

20 창립20주년

믿을 수 있는 책, 믿을 수 있는 회사 김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 TEL 745-4823 FAX 745-4826

진리와 행복의 바다로 이끄는 김영사 불교총서

현재 인기 독점 속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불교연구서의 금자탑



불타의 세계

불교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최근까지의 불교학 및 인도철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계 초유의 대작.
세계적인 불교학계 거장들의 6년에 걸친 현지 고증 및 집필, 수백 점의 천연사진과 자료,
2년간의 우리말 작업끝에 나온 화제작.
삶의 고통을 체험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부처의 삶과 여정,
그가 가르친 삶의 방식이 생생하게 드리난다.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김지견 옮김/양장본/542쪽/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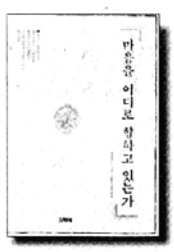


행복한 마음

생각만으로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음 하나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뉘는 것을.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다스림의 저 밖에 있고, 삶은 때로 절곡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줄 171가지 이야기들이 빛나는 잎새로 모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당신의 마음을 뉘어보십시오. 당신의 행복, 그것 하나를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

출간 이후 14년간 48쇄를 거듭 찍은 승은 베스트셀러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의 바로 그 책.

김정섭 지음/양장본/530쪽/값 8,900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한 이런저런 말 역시 내 소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이의 입장에 따라
나는 또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갖지 마라."

백성욱 가르침/김원수 받아 엮음/양장본/225쪽/값 6,900원

禪 어록 시리즈 — 선불교 거장들의 생생한 지혜와 행적, 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세계적인 명저들

육조단경	나카가와 다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15쪽/값 7,000원
달마어록	아나기다 세이잔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299쪽/값 7,500원
초기선종사 1,2	아나기다 세이잔 지음/양기봉 옮김/양장본 1권 489쪽 2권 358쪽/1권 값 14,900원 2권 값 6,000원
방거사어록	이리아 요시타카 주해/양기봉 옮김 양장본/306쪽/값 8,500원
대혜서	아라키 겐고 지음/양기봉 옮김 7월 출간 예정

불교학술서 — 국내외 불교학계에서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공 석학들의 주옥같은 명저들

대승불교개설	히라카와 아키라 외 편저/정승석 옮김 신국판/349쪽/값 7,500원
불교 요설	에가쿠 미에다 지음/석오진 옮김 신국판/188쪽/값 3,000원
바웃드하 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외 지음/혜 원 옮김 신국판/363쪽/값 4,500원
• 인도 고대사	림 사란 사르마 지음/이광수 옮김 양장본/386쪽/값 7,000원
• 종교학	기시모토 히데오 지음/박인재 옮김 양장본/189쪽/값 5,900원

우편판매 및 법보시용 단체구입 안내
•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우편판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보시용으로 5권 이상 주문시 특가판매합니다. 전화문의: 745-4823(내선번호 101)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30일 단기출가 조계사 동자승



천진한 모습 그대로 천진불

집에선 어리광부리지만 절 오면 의젓하게 합장
16일 연등축제서 '인기' 미래불교 희망 보는듯



◇인사동에서 예쁜 연등을 나눠주며 포교에 나서고 있는 동자승들. 동심 불심의 모습 자체가 환희심을 일으킨다.

"자, 먹기 전에는 뭘 하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목이 터져라 다시 시작하기를 여러번. 공양게가 이제 돌림노래처럼 돌림 지경이다. 한번으로는 부족해서 두 번 세 번 경쟁하듯 공양게를 외치고 나서 맛있게 먹는 꼬마스님들. 30일 동안 스님아닌 스님이 된 조계사 동자승들이다. 조계사 어린이회에서 뽑힌 4~7살의 7명 어린이들이 4월 29일 삭발식을 갖고 30일 단기출가의 길에 들었다. 조계사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아기스님들을 모신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앙증맞고 장삼과 가사에 108염주까지 늘어뜨린 동자승들은 연등축제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서 '마스코트'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

모습 자체가 이색적이고 귀엽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동자승이 눈길을 모으는 걸까. 동심을 간직하고 있는 동자승은 천진불(天眞佛) 그 자체다.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 어린 아이였을 때는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리기 쉬운 본모습. 거짓과 위선과 꾸밈이 없는 본래의 청정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4살바기 남정·향정 스님, 5살 창인스님, 7살이 된 선지·서향·봉선·심상 스님 등 7명은 한달동안 절과 집을 오가며 사시예불을 모시고 각종 봉축행사에 등장하고 있다.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는 절에서 생활하며 스님들의 생활방식을 몸소 겪었다. 집에 가는 날에는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며 떨어지려고 하지 않지만 절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훨씬 의젓하게 행동하고 합장인사도 곧잘 한다. 5월2일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예불에 참석해 진짜 스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가도 느껴(?)보았다. 특별히 일정이 잡힌 날은 일정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경복궁, 서울랜드 등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며 동자승 모습 자체로 불교를 알리고 있다. 5일 어린이날엔 봉은사에서 열린 그림그리기 대회에도 참석했고 인사동 거리축제가 열린 9일과 14일엔 인사동에서 예쁜 컵연등을 일반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동자승들의 모습은 sbs와 KBS-TV 에서 촬영. sbs에서는 이미 5일 특집으로 방영했고 KBS는 6월초에 방영할 계획이다.

16일에는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거리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참석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없이 사진 모델도 되었다. 17일과 20일 또다시 인사동에 나가 연등과 합장주 등을 나눠주며 포교를 할 계획이다. 19일엔 영등포 교도소를 방문하고 21일 조계사 봉축전야제에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동자승들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사 사회국장 본오스님은 "동자승들을 보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관심을 보이며 환희심을 일으킨다"며 "우리 스님들은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반성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조계사는 내년엔 이번보다 훨씬 많은 30명의 어린이들을 출가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이산 혜연스님의 〈발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일에 물안들고 청정법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탈끝인들 범하리까…." 순수하고 천진스런 마음을 고스란히 지니고 출가한 동진출가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 아닐까.

글=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경전속의 동자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자승은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 비록 어린 나이에 출가했지만 부처님 10대제자에 들 만큼 깨침이 컸다.

불경에는 동자들이 많이 나온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자타카〉의 설산동자, 〈금색동자인연경〉의 금색동자와 묘상동자, 〈불설광명동자인연경〉의 광명동자 등으로 그중 출가로까지 이어진 동자는 금색동자 광명동자이다. 〈금색동자인연경〉은 부처님입멸후 아난존자가 교화한 어느 상인의 아들 금색동자의 출생과 출가에 이르는 전기와 그의 과거에 있었던 인연에 대해 설하고 있다. 아사세 왕의 신하 용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금색동자는 아난존자에 의해 구원을 받고 출가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선재동자는 각계 각층의 53 선지식을 찾아 맨 나중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10대원(大願)을 듣고 아미타불 국토에 왕생하여 입법계의 지원(志願)을 채운 구도자이다.



◇16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연등축제에서의 동자승들. 수없이 사진 모델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백팩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에 지쳐 돌봐주는 어른 스님 품에서 깜빡 졸음에 빠졌다.



◇앙증맞고 귀여운 동승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도 찬탄과 관심의 대상이다.



◇만공스님 ◇한암스님
◇용성스님 ◇만해스님
◇경봉스님 ◇청담스님
◇고암스님 ◇성철스님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로 나투시다

조폐공사 - 현대불교 제작 보급

근세 100년 우리 민족과 불교계를 이끌어온 위대한 큰스님들이 기념메달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조폐공사와 각 문도회의 후원으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1999년, 근세 100년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문화포교사업으로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제작합니다.

역사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나라의 운명을 이끌었던 근세 큰스님들을 통해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큰 성과를 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삼보의 하나인 스님들의 영정이 담긴 기념메달로써 사찰이나 가정을 거룩하게 장엄하며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다면 생활불교실천에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승 기념메달 보급 안내

◇제작: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하며, 조폐공사가 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출시 일정: △5월-17일 용성·청담스님, 24일 만공스님, 31일 성철스님 △6월-7일 고암스님, 14일 한암스님, 21일 만해스님, 28일 경봉스님 △7월-5일 효봉스님
◇가격: 메달 1개당 5만원이며 수익금은 큰스님을 기리는 기념사업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 협 053-01-236053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847)792-6288, 794-8655 / FAX (847)792-626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⑳

若人靜坐一須臾 勝造恒沙七寶塔
약인정좌일수유 승조항사칠보탑
寶塔必竟化爲塵 一念淨心成正覺
보탑필경화위진 일념정심성정각
故知無心功 大於有心也
고지무심공 대어유심야

옛 게송에 만일 누가 잠깐동안 고요히 앉았기만 해도 항하(恒河)의 모래수만큼 칠보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

칠보탑은 결국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正覺)을 이룬다, 하였다. 그러니 무심의 공덕이 유심의 그것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洪州水潦和尙 參馬祖問
홍주수료화상 참마조문
如何是西來的的意 被馬祖
여하시서래적적의 피마조
一踏踏倒 忽然發悟 起來撫掌大笑云
일답답도 홀연발오 기래무장대소운
也大奇也大奇
야대기야대기
百千三昧 無量妙義 只向一毛頭上
백천삼매 무량묘의 지향일모두상
便一時 識得根源去 乃作禮而退
편일시 식득근원거 내작례이퇴

리고 물러갔다. 이로써 본다면 공덕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조(四祖 : 道信)대사가 나융선사에게 '대개 백천 가지의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하(恒河)의 모래알처럼 많은 공덕도 다 마음에 있으므로 일체의 계행, 선정(禪定), 지혜의 문과 신통 변화도 다 스스로 갖추어져서 그대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하였다. 이 조사의 말에 의하면 무심(無心)의 공덕이 한없이 많으나 단지 사상(事相 : 눈에 보이는 모습)의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심의 공덕에 대해 믿음을 내지 않을 뿐이다.

13. 진심의 공덕을 시험하다(眞心驗功)

或曰眞心現前 如何知是眞心
혹왈진심현전 여하지시진심
成熟無碍也
성숙무애야

물었다. "진심이 앞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이 진심이 걸림이 없이 성숙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무심의 공덕 칠보탑보다 더 크니 한 생각 깨끗한 마음 정각이룬다

據此則功德 不從外來 本自具足也
거차칙공덕 부종외래 본자구족야
四祖謂牛頭融禪師曰大百千法門
사조위나융선사왈부백천법문
同歸方寸 河沙功德 摠在心源
동귀방촌 하사공덕 총재심원
一切戒門定門慧門 神通變化 悉自
일체계문정문혜문 신통변화 실자
具足 不離汝心 據祖師語
구족 불이여심 거조사어
無心功德甚多 但好事相功德者
무심공덕심다 단호사상공덕자
於無心功德 自不生信耳
어무심공덕 자불생신이

홍주의 수료스님은 마조스님을 참배하고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 하고 묻다가 마조스님에게 차여 넘어졌다가 갑자기 깨치고 일어나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매우 기이하고 기이하여라. 백천가지 삼매와 한량없는 신묘한 이치를 단지 한 털끝 위에서 일순간에 그 근원을 알아내었다.' 하고, 이에 예를 올리고 물러갔다. 이로써 본다면 공덕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조(四祖 : 道信)대사가 나융선사에게 '대개 백천 가지의 법문이 모두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하(恒河)의 모래알처럼 많은 공덕도 다 마음에 있으므로 일체의 계행, 선정(禪定), 지혜의 문과 신통 변화도 다 스스로 갖추어져서 그대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하였다. 이 조사의 말에 의하면 무심(無心)의 공덕이 한없이 많으나 단지 사상(事相 : 눈에 보이는 모습)의 공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심의 공덕에 대해 믿음을 내지 않을 뿐이다.

曰學道之人 得眞心現前時
왈학도지인 득진심현전시
但習氣未除 若遇熟境 有時失念
단습기미제 약우숙경 유시실념
如牧牛 雖調到產 拽隨順處
여목우 수조도견예수순처
猶不敢放了鞭
유불감방요편
繩直待心調步穩 赶趁入苗稼中
승직대심보온 간진입묘가중

대답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심이 앞에 나타나는 때를 만났다 해도 아직 습기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익숙한 경계를 만나면 때로 생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치 소를 기를 때, 비록 길이 잘 들어 이끄는 데로 따른다 해도 아직은 채찍과 고삐를 놓지 말고, 좀더 기다렸다가 마음이 길들고 걸음걸이가 평온해져서 곡식 밭에 들어가더라도 곡식을 밟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놓아주는 것과 같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먼저 자기를낮추면

영공스님 〈응선사 조실〉



약력
- 1905년 경기 양주 生.
- 1933년 화성 수도암에서 박금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7년년 금강산 유점사 능인계단에서 박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금강산 마하연 선방 송만공스님 문하에서 참선 수행.
- 양주 회암사, 도봉산 천축사, 서울 응선사 중창.
- 現 응선사 조실

내가 처음 출가에 뜻을 두게 된 것은 28살에 화성 수도암을 찾게 되면서 부터였어요. 그전부터 남루한 차림의 탁발하는 스님의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설레는 게 불법에 인연이 지중했나 봅니다.

수도암에서 금봉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기(법명은 昌善) 전까지 나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당에서 한문을 익힌데다 서양문학의 새로움에 눈을 뜬 문학도 였어요. 하지만 문학이란 것도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라 결국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교에 귀의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특히 인과(因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되면서부터 불교적인 사색도 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도암에서 당시 70여세 노스님이셨던 금봉스님의 신심과 정진하는 모습에 감화되어 '나도 공부 좀 해봐야 겠다'는 발심이 생기더군요. 도교를 믿던 집안에서는 출가하면 대가 끊긴다며 반대가 심했지만, 어느날 문득 친구 집 참외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집에는 부모님과 처 · 자식이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용솟음치는 출가의 원을 꺾지는 못했어요.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확신도 컸지요.

사집은 용주사에서 마쳤어요. 대교는 당시의 대강백이셨던 박한영스님을 모시고 마하연 강원에서 공부했지요. 참선은 마하연 선방에서 한 철을 지내고 만공스님이 지도하시던 유점사 선방에서 3년을 익혔어요. 만해, 남허, 효봉스님을 비롯해 성철, 덕암스님 등 20여명의 수좌들이 함께 정진했습니다.

수좌들의 분위기는 참 진지했어요. 계율도 엄했지만 훌륭한 스승에 뛰어난 도반들이 많아서 공부가 잘 되었지요. 금강산의 절경과 장엄한 분위기는 납자를 다잡는 불교성지 다운 위엄이 있거든요.

나는 참선과 병행해 관음정진을 계속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내 두 번째 스승님은 천축사 · 마곡사 주지를 지내신 능성스님이셨어요. 당시 회암사 주지로 계시던 스님은 불사를 나한테 일임하고 금강산으로 떠나셨지요

당시 회암사는 폐사 직전일 정도로 사격(寺格)이 약해져 있었기에, 복원불사가 저의 소임이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며 울력도 하였습니다. 본래 주지 소임은 수행에 지장이 많아요. 신도들의 시주 돈과 공양물을 다루다 보면 물욕이 생기기도 쉽고 이해관계에 휩싸여 악업을 짓게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6.25동란 이후까지 양주 회암사 주지를 맡았어요.

6.25동란 때는 인민군들이 이동중에 주변 사찰을 보는대로 불지르고 스님들을 해쳐 모두 두려워 했어요. 피난가던 스님들도 불상을 버리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로서는 열심히 일궈 온 온 불사를 잘 회향하고 절을 지켜야 겠다는 마음이 간절해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관음정진의 힘을 은근히 믿는 마음도 있었어요.

결국 나는 절과 동네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한가지 방편을 생각했어요. 잔인한 빨갱이를 칭찬하는 것은 가당치 않았지만,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 겠다는 생각에 인민군들이 오면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속여 가며 50여명의 주민들에게 식량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법상에서 하는 법문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법문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귀감되는 참법문"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염하면서 모든 것을 불법의 외호에 맡기니 두려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뒤 회암사 복원불사를 어느 정도 마치자 도봉산 천축사 주지 소임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불사에는 소질이 있다 싶어서인지 다시 주지 소임을 맡겼나 봐요. 하지만 신도도 많지 않은 가난한 절에 불사 비용 마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시 방편을 써야겠다 싶어 궁녀, 나인들이 포함된 부인회를 조직했어요. 절에 올 때면 주머니에 공양미 한 움큼씩이라도 가져와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마음을 내자 신도들이 먼저 알고 더 열심이었어요.

어느날엔 봉은사 불사를 맡았던 한 도편수가 기둥하나 성한 곳이 없던 천축사에 들렀다가 중창불사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실을 듣고 불사비용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그만한 불사를 일으키기가 쉬운일 이 아니어서, 이게 다 관음주력의 힘이 아닌가 생각돼요. 신기하게도 중창불사가 끝난 이후엔 그 많던 신도들이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말하자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불보살의 도움을 받는 명훈가피를 입은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끌어내는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가피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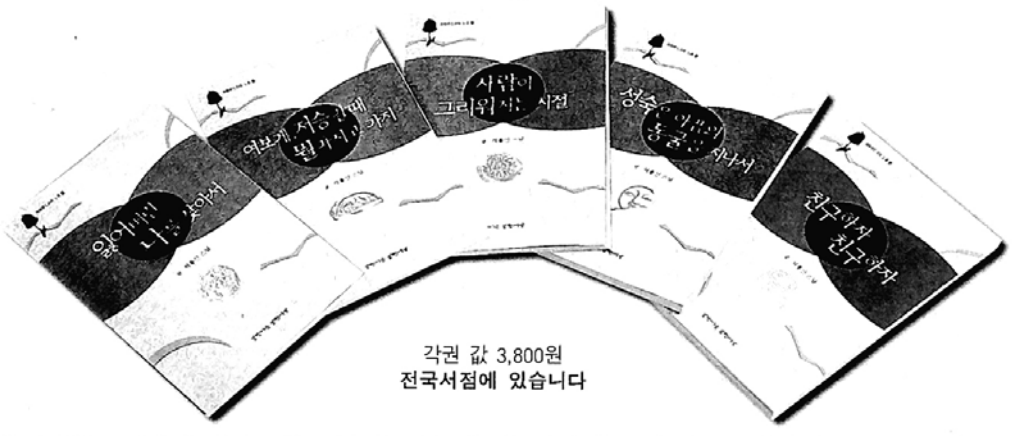
당시 천축사에는 9명의 수좌들이 참선을 했어요. 현재 있는 무문관의 모체이지요. 다들 한 번 방부를 들이면 잘 나가지 않고 열심이어서 무문관의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당대의 선지식인 전강스님(1898-1975)도 천축사에서 수좌들을 지도하면서 천축사 선방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20대 초반에 개안을 한 전강스님은 살불살조(殺佛殺祖)의 파격, 생사를 뛰어넘는 치열한 정진력 등 모든 납자(衲子)들의 수범이 된 큰스님이셨지요. 75세에 "어떤 것이 생사의 큰 문제인가(如何是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전화 (051)627-5498 팩스 (051)623-3946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①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②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③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④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⑤친구하자, 친구하자

출판기념회
5월 21일(금) 오후 8시
공덕원부산포교원 법당
☎부산공덕원(051)625-2253
☎대구공덕원(053)741-0066

공급처 법우당(02)994-4437~8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스님이 법열속에 부르신 환희의 노래들이다. 참을 수 없는 마장속에 몸부림하며 안으로 안으로 울어 흘린 신음의 소리들이 사리보다 영롱하고 핏물보다 진한 노래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적셔 줄 것이다.
-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계속 출간됩니다 -



지장불교공양차제법
지장사상을 정립하는 글들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나게 독송할 수 있는 의식집

큰스님 수행한담

남들이 저절로 존경해요”



◇ 10여년전 상좌, 손상좌와 함께 한 영공스님. 왼쪽부터 손상좌 지암스님, 영공스님, 법상좌 일송(응선사 주지), 손상좌 수암스님.

“스님들은 시줏밥 무서운줄 알아야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生死大事)? 어억(喝)! 9·9는 81이니라(九九就成八十一)”는 임종게를 내린 후 열반하셨죠.

당시 납자들은 다들 수행이 높고 발심도 대단했어요. 그때 원주 일을 맡아보던 한 스님은 내가 서울로 출타중에 좌탈입망을 했어요. 미리 입적할 것을 알고 내게 “뵙지 못하고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화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열반한 거예요. 같이 수행할 때는 공양주 일을 한다고 무심히 생각했는데 남모르게 높은 경지에 있었던 겁니다. ‘공부는 남모르게 해야 깊이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천축사 불사가 이만 하면 됐구나 싶을 때 다시 회암사 주지로 돌아갔습니다. 2년간 주지 소임을 맡은 후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던 응선사에서 당시의 대강백이자 〈불교시보〉를 창간했던 대은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노스님은 절에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경전 강독과 후진 양성에만 힘을 쏟으셨어요. 평생 절약정신이 몸에 베어서 달력을 쪼개어 글을 쓰고, 내의가 닳아 못 쓸 때까지 기워 입으셨어요. 무소유의 정신을 늘 강조하셔서 평생 돈을 안 취하시고, 시주물도 직접 만지지 않으셨죠. 나도 그 정신을 배워 물질에 걸림 없이 사니 내 마음도 한결 자유롭고 오히려 풍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시줏밥 무서운 줄 잘 알아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돈과 명예욕을 철저히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스님들은 보시금과 공양물이 흔해 씀씀이가 헤픈 것 같은데, 이래서는 큰일납니다. 그게 그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닦아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갚아야 할 짐인 것입니다.

지성을 다해 불공을 드려주고 받는 공양물일지라도 내 것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무엇을 바라고 신도들의 불공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행복과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의 안락함을 위해 불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보시물이라도 철저히 인과를 생각하며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신도들에게도 하심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금강경〉의 ‘아상(我相)’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는 공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도 무릎을 꿇은 채 절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남에게 화를 낼 일도 없고 야단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낮춘다면 제자들과 신도들도 저절로 존경심을 갖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에서 하는 법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법문이 ‘참 법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스님들도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옛날에는 60세 이후에는 계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그날까지 조·석 예불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스님이 공부 안하면 지옥이 3천개’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은사이신 금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 염불선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참선제일’을 많이 말하지만, 관세음보살도 계속 염(念)하다보면 화두가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끊어짐 없이 염할 경우 관세음보살이 내 몸에 상주하고 있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로 화현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염불선은 자기가 부처임을 바로 깨닫는 일이고 자기 속에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염불이 선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다보면 나로 인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관세음보살과 관음행자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의 32응신(應身)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이라는 하나의 명호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계를 보고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관(觀)하다보면 마음이 밝아짐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가능한 잠을 줄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앉은 채로 염불선에 매진하다 보면 결국에는 참선으로 이르게 되는 견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깨달음의 방편이 다를 뿐 그 목적과 종착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염불은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불을 통해 자비심 넘치는 마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과 주위 사람, 영가나 모든 동·식물, 사물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비의 염파(念波)’가 자신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취미와 특기가 다르듯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방편을 꾸준히 밀고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고 힘이 드는 수행법을 택할 경우 오히려 중도에서 좌절하거나 병이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수행법이 가장 수승하다’는 말은 수행하는 당사자에게는 참고가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는 인과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잘되는 것도 인과에 의한 것입니다. 해태심과 게으름, 신심이 나는 것도 인과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과를 잘 믿고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 중생과 일반 재가불자들에게는 염불선이 참 좋은 수행법입니다. 사실 참선은 일반 신도들이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 몸이 누구인가’를 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여의주(如意珠)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니 앉으나 서나 누우나 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자꾸 부르다 보면 저절로 염불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 속에 인이 배겨 화두가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죽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만 염불삼매를 익힌 수행자는 생사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안돼’ 하고 작심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면 쌓이고 쌓인 습과 업이 소멸되고 심명(心明)의 단계가 옵니다. 일초도 끊어지지 않게 부르고 또 부르면 성불의 길이 멀지 않습니다.

원효스님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방방곡곡의 남녀노소에게 가르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교는 신라시대처럼 생활불교가 되어야 살아납니다. 불자가 없으면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사찰은 생활불교의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는 삶이 가정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던지 시경을 하던지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방편을 찾아 부지런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보살 명호 불러 자비심 넘치면 염불선”
‘나는 안돼’ 좌절말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나의 수행일기



배 금 자 〈변호사〉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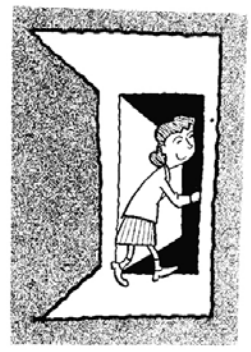
‘참나’에 맡기고 놓으니 에너지 생겨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항상 명심

미국에서 나는 공양준비와 부엌설겆이, 화장실 청소 등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즉 하심하는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난 3월 귀국 후, 나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참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3년 가까이 보낸 미국 유학생활이 내겐 무척 긴 기간이라고 느꼈다.

사실 나는 변호사업을 재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걱정을 은근히 했다. 실제 동료 변호사 한 명도 미국에서 3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고객이 없어서 고전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참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런 걱정은 곧 사라졌다.

내가 아직 업무재개 광고도 내지 않고, 인사장도 보내지 못하고 업무재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는 많은 고객들이 상담을 오고 사건을 맡기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고객들이 느끼는 시간 개념은 3개월 정도 잠깐 비운 것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참나가 배출하는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진심으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였다.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여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차원을 더 빨리 높여주기 위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때로는 경계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신심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절실한 관(참선)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계에 휘둘려 중도 포기하거나 한참 미끄러지는 것을 체험했다.

지금은 경계에 약간 빨려 들어가긴 하지만, 재빨리 알아채고는 참나에게 맡기고 놓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상을 죽이고 하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지, 나에겐 아상을 철저히 죽이기 위한 경계가 많이 찾아온다. 그때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없다”라는 생각이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우리 가족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절에 나가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내 속의 참나가 나를 정말로 잘 이끌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마음이 해이해지면, 나를 준엄하게 꾸짖고 혼을 내는 것을 체험한다.

참나에게 철저하게 맡기는 생활을 한 후로, 나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이 없다. 참나는 사랑심으로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결할 것임을 나는 철저히 믿으므로, 나는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하다. 참나는 내가 꼭 필요한 돈이라면 줄 것이므로, 나는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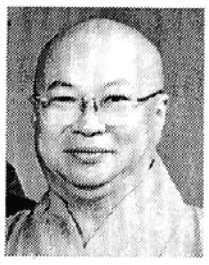
나는 이것을 잘 보관하여 써야 할 곳에 잘 써야 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무주상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철저히 알게 되었다.

나라는 이 몸뚱아리와 현재의식은 철저히 참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눈만 뜨면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의 삶도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인식하면서, 하루 하루를 정진의 연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하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가르침이 언제나 나를 채찍질한다.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불법에 귀의하여 참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던져버리고, 성냄도 벗어두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나옹선사 게송을 좋아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미국에 가기 전에 여주 신륵사에서 보았다. 그 당시는 그 진미를 잘 몰랐는데, 마음공부가 익어 가면서 진미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방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해와 같아라"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열린 16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 운동장, 종로거리는 온통 부처님 오셨음을 기뻐하는 오색연등의 물결로 장엄을 이뤘다. 특히 올해의 연등축제는 서울시 전통문화축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따스하게'를 주제로 조계사 앞에서 펼쳐진 거리행사와, 연등법회, 제등행진의 모습을 화보로 엮는다.



▲연등축제가 봉행된 동대문운동장 본부석의 각 종단 및 신도 대표. 〈사진=고영배 기자〉



◇오늘은 흥은 날, 연등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환호와 박수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3만여 불자들은 연등축제를 회향하며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새기고 앞고 밝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서원했다.



◇서울시청앞 광장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연꽃.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제등행진을 이끌었다.



◇연등 제작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인 소년 소녀.



◇소쩍새마을의 장애인불자들도 제등행진에 참여해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다.



◇삼소회 바구니 · 수녀 · 정녀들의 음성공양.



◇조계사 앞 거리행사장에서 실시된 인터넷 달마넷 시연회.

사·모·저·모

첫 서울시 특성문화축제

○… 시민축제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연등축제는 96년 이후 몇차례의 경험을 거치며 절도있고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평. 봉축위원장 고산스님은 "연등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로 정착시키겠다"고 피력.

다양한 장엄물 선보여

○… 올 연등축제는 어느때보다 다양한 장엄물들이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조계사의 대형 비천상등과 천태종의 불 뿜는 용, 수국사의 5비구 설법상, 진각종의 새 천년을 여는 회전연등으로 종로거리를 밝혔다. 한마음선원은 텔레토비를 등장시켜 어린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찰·단체 특별행사 다채

○… 조계사는 '희망의 조계사'라고 쓰인 막대기 사탕을 거리의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한마음선원도 봉축버튼을 어린이들에게 달아주었다. 또 생명나눔실천회가 장기기증 서약운동을 벌였으며, 진각종이 '함께 하는 삶, 나누는 기쁨'을 내걸고 종단홍보에 나섰다. 봉은사는 봉축카드 3천개와 연등을 시민들에게 보시, 교계단체들도 부스를 열어 홍보와 회원 확보에 열을 올렸다.

불꽃 뿜는 용등 '눈길'

○… 천태종에서 선보인 2마리의 용과 코끼리등은 조형미가 섬세하고 장중해 연등축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을 불자들의 노력을 짐작케 했다. 특히 꿈틀거리는 용등은 불꽃을 내뿜어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

파라미타의 무도행진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소속 중·고교생들의 올 제등행진은 '무도행진'. 얼룩 덜룩한 분장과 의상을 갖추고 롤러블레이드를 신은 청소년들이 종로통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갖가지 재주를 과시했다. 시민들은 이들이 지날 때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먹고 즐기는 장터같다"

○… 팔각등 제작체험, 단청문양 시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보현심보살(53)은 먹거리 천막이 즐비한 모습을 보고 "연등축제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부처님 오신 뜻을 새겨야 하는데, 먹고 즐기는 장터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에서 50分거리

저렴한 가격

전원주택, 주말농장,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실한 투자

삼보에 귀의하옵고
삼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뜻하지 않은 I.M.F한파를 잘 이겨 내셨는지요?
저는 10년전 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 부지 안내와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青山컨설팅 대표 안 태진 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 좋고 물맑은 양평 지역에 투자성이 매우 높은 전원 주택지를 소개 해 올리고저 합니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평수 : 500평, 1,000평 분할매매
특징 : 동남향, 서울에서 50분 거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토목정비작업 해드림
주위 피쉬랜드 낙씨터 근접. 평당 15만원 분할매매가능

부지1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산98번지
총 평 수 : 4980평 (준농림+생산임지) 500평,1000평 분할매매가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3,040평 (주택1채 허가필) 지목 : 준농림+생산임지
특징 : 서울에서 50분 거리 정남향, 앞에 맑은 저수지, 주위경관 수려함 평당 8만원

부지2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1번지
총 평 수 : 3,040평(준농림+생산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급매 평당 8만원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1,500평(전원주택 2가구 허가필)
지목 : 준농림(임야+답)
특징 : 저수지 근접. 서울에서 50분거리(잠실)
금액 평당 12만원 투자성이 매우 양호함

부지3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49번지
총 평 수 : 3750평 2필지(준농림+생산임지)
용 도 : 과수원, 평, 사슴목장 농업용도 개방가능
4m진입로 확보 급매 평당 5만원

CHUNG SAN전설팅
02)420-5474~5 / 011)213-4594

●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내가 모든 것 될수 있어야 자유 자재

불에가면 불덩이로
물에가면 물로
흙일땐 흙으로
영계선 영계로
하나 되어야
우주 다스릴수 있어


그림 · 최주현

내 몸속에 사는 중생들 한마음돼야 건강
타의형상 믿다보면 세세생생 노예 신세

여러분들과 한자리를 하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언제는 뭐 아니었습니까마는, 오늘 만나고 보니 더욱 반갑고 또 대구 합창단 쳐사님들을 보니 기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속담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생긴 것도 역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분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몸 하나가 나올려면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또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줄수 있는 그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돼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할때도 마음을 떠나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두뇌를 통해서 연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연구를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또 현재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지만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하는 이런 말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되었지요? 물론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의 다른 개발품들이 많겠습니다만 그걸로써 방편을 한다해도 손색은 없을 겁니다.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것, 라디오, 전화, TV할것없이 말입니다. 그것 뿐만이지 않겠지요? 일체가 그게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아픈 부위에 광선을 쬐야하고 또 재는 것이든가, 쏘는 거라든가 다양하게 레이저광선은 어디나 쓰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윤회성 · 유전성 ·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만명이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응신으로 나투어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져 찰나찰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이며,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끌어다 볼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볼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수 있으면 갖다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 천지의 모든 대권의 소유자인데….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요만큼 말씀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을 그릇이 안되면 아무리 주어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는 같이 도반이 되셨는데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모두가 하치않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 존엄성은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 속에서,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 인간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뼈져린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칼을 들어야만 싸움이 아닙니다. 좁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 넓게 펼쳐서 봐 보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애자라 하면 육신의 장애자만 장애자라 하는데, 정신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불구가 되기도 하구요. 누가 뒤에서 쫓아와서 쫓는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 먹을려고 하면서 또 잡아 먹히는 이런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기도 하구요. 어느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같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지요.

불법이다, 불교다 국한지으면서 사찰에 가고,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뚱이와 내 몸뚱이가 다르지 않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생명도 다르지 않고, 마음도 다르지 않고, 몸도 다르지 않다. 다만 생각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니, 가톨릭이니, 이슬람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상대로만 믿고 가는지요. 상대를 믿고 가다보면 세세생생을 두고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라. 이 우주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고 충고도 했고, 내 몸이 나오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느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바깥에 중생들을 다 거둬야 몸이 낫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속의 중생들,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 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것과 같이 우리 오장육부의 생명들,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줘야 한다구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같이 뭉쳐서 한마음을 내어 들일 건 들이고 낼 것은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지요. 그런 것을 모르고는 믿지 못합니다. 나의 그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같이 해줄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식들은 의식들 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공장 따로 놀고, 장공장 따로 놀고, 방광공장 · 척추공장 · 심장공장 모두 따로 노는 겁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이라고 하듯, 모두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용도가 닥친다 하더라도 대처를 못합니다. 이 모두가 내 속의 이 마음이 잡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역력하게 빛깔이 있고 잡을 수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집어 삼킬수 없고 자유자재 할 수 있는 대권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면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수많은 어떠한 여건에 따라서도,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할 때 레이저 광선이 쏴 들어가듯, 아니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한 찰나에 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식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들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우주 천지를 다스리겠습니까? 우주천지를 다스리는 것도 내가 높아서 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7)

극락 · 지옥이 다 현실생활 속에 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잃고 따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결코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 그것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불교를 믿든 안 믿든간에, 자세히 세상 이치를 살피고 고요히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명상하게 되면 점차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게 없다. 성현의 이치가 있는가 하면 중생의 이치가 있다. 그런데 왜 살펴보지 못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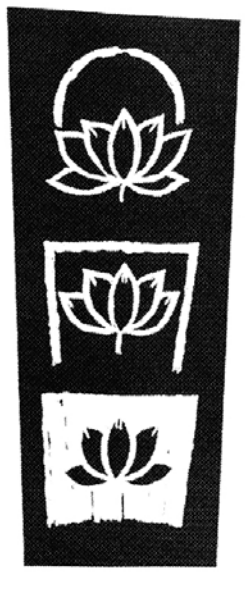
불법이란 현실의 법, 생활의 법이다. 부처님의 뜻에 진정으로 계합하기만 한다면 개개인의 생활은 말할 나위도 없고 국가와 사회의 당면 과제도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묘리가 나오게 된다. 생활을 떠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다. 평상의 생활을 떠나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기에 마음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있기에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법이라 한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짓고자 할 때 생각을 하니까 설계가 나오고 집이 올라가게 되듯이 일상 생활 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마음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인 것이다. 내가 날 알아보기 위한 것이 곧 불교다.

범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 범천도 있으며 천당도 있다.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라.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갇히질 않나, 마음으로 죄를 지어 마음 지옥에서 살지를 않나, 환난 고통에 울부짖지를 않나. 그런 반면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 기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은 내가 행하고 살아가면서 한걸음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고로 부처님 법이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고 있고 직장에도 있다. 대중이 살림하는 것이나 스님들이 중노릇 하는 것이나 공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불교란 기복이 고작이다.' 라고 인식한다면 첨단 세상을 사는 지식인이라 할 수 없고 자유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불교를 부정적, 은둔적인 종교로 보는 경향도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일체 생명에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가 다 부처' 라는 대긍정, 대평등의 가르침이다. 시대가 바뀐 지금, 활발하고 긍정적인 불교의 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풀 한 포기라도 불법 아닌 게 없다.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 전부 어느 바닥이라도 법상 아닌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터전이 전부 한 법상이자 한 방통이자 여래의 집이다.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술 떠 넣어도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치 않아도, 깊은 감사와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행이 일체 중생, 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 주신 부모의 은혜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 어찌 부처님 법의 그 은혜로운 이치를 알 수 있겠는가.

아침 예불 쳇송에 5종 대은 명심 불망' 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베푸는 이의 은혜, 좋은 벗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그 다섯뿐이겠는가.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물의 은혜, 바람의 은혜, 불의 은혜 등 모두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 하나 잘나서 독불장군이라 할 것이 없으니 둘 아닌 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면 이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도를 구하려 다니며 애를 쓰다가 스러져 간 수백 수천의 역대 조사들이 기울인 노력, 부처님께서 49년 간 설하신 가르침이 모두 허무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세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왔다.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수행해서 보리과를 얻기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작이 반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부처되는 길의 반을 이룬 셈이라 보아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를 여기 세워 주신 분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 조상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지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차례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분들을 더 잘 공경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답게 수행하는 것이다. 몸을 받드는 효자가 있고 뜻을 받드는 효자가 있다.

협찬: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우주 천하가 내마음에 직결돼 있어요

☞ 15면에서 계속

스리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불에 들어가면 불덩어리로 하나가 되고, 물에 가면 물로 하나가 되고, 공기로 가면 공기로 하나가 되고, 흙으로 가면 흙으로 하나가 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계로 가면 영계로 하나가 되듯, 모든 것이 내가 될 수 있어야만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 속에 자기와 같이 움직이는 그것도 못 믿으니 어떡합니까? 그것부터 믿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회초리가 가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한데 합쳐서 뭉쳐놓으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속의 그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 데 합쳐 돌아가는 데 어찌 그걸 꺾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픈것이 낫지 않으면 "에이, 주인공도 쓸데없어."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맡겼는데도 안된다고 마음으로 언짢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충주에서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사람의 부인이 백혈병이 걸려서 왔는데 구박이 자심하다고 울면서, 그때 돈 25만원인가 하고 쌀한말과 초를 가지고 와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소저 할머니가 여관 하실 때니까 오래 전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 분들한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을 때여서 속성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공부는 못시킬 망정 그 울고 불고 하는 것이나 없어주겠다고 생각을 할 때인데, 그 보살이 여관에서 며칠 있으면서 병이 나아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오진을 했다고 하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소릴 듣고, 오진이라는데 왜 그런 돈을 없앴느냐고 하면서 정성들인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소저 할머니더러 그 보따리와 봉투를 그냥 놔두게 했는데, 신도들 오면 밥이라도 해주면 좋을텐데 왜 그러십니까 하시는 걸 "그냥 놔 두십시오, 쓸 데가 있습니다"하고는 그냥 뒀는데 찾으러 왔으니 안 줄수 없지요.(웃음) 그것을 탐내는 사람같으면 부처님 앞에 정성드리고 간 것을 왜 되찾으러 왔느냐고 그러겠지만, 가지러 올 줄 알고 여기 놔두었다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부인은 나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업보라는 걸 면치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없애면 저게 생기고, 저걸 없애면 이게 생기고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렇게 찾아가고는 염치가 없으니까 오지는 못하고 그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딱하다고 하면서 "어린애도 낳게 해주셨고,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하는걸 "내가 뭐 병원 의사입니까?" 하고선 그래도 마음으로 안되어서 감자물이라도 해잡수라고 했는데, 그 감자물이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죽고 사는 것을 떠나야만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계시면 살려야지 죽이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안되니까 주인공도 쓸데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수억 겁 광년 동안 미생물에서부터 존재해오면서 나를 진화시키고, 쫓고 쫓기면서 형성시켜 고등동물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만이 해결을 하며, 마음으로 생긴 병은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육신에 병난 것은 육신으로 대처를 해서 병원에서 고쳐 나가는 거지요. 물질적인 문제도 없어서는 안되겠죠. 일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염파가 걸러걸러 돌아가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쏜살같이, 차이도 없고 초도 가릴 것 없이 전달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자가발전소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력이 나갈 때는 동시에 전력이 나가듯이, 전파가 흐르고 통신이 되듯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한 번 생각하면 두뇌로 해서 사대로 전파가 되고 통신이 되듯이, 통신이 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따라주게 되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도 체가 없거든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고 내 신장이 내 부처를 동시에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전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한 열댓 명이 나서더니만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길래, 아무 것도 모르는데도 그 순간 급하니까 내가 일러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주인공!", "아이고, 스님, 주인공!" 했답니다. 급하니까요. 하하하. 그리고는 그냥 거기다가 전념을 다하느라고 그 열댓명이 칼을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우두커니 쳐다보고 섰으니까, 오더니만 아래 위로 전부 뒤져 돈 만원이 나오니까 시계도 차고 그랬는데도 그 돈만 가지고선 "이 새끼는 아무것도 볼 것 없어." 그러면서 그대로 가더랍니다. 그 도리를 몰랐다면은, 발길질 한번 안하고 그렇게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다 간 뒤에 벌컥 주저앉아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급하게 맡기니까 급하게 조달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의식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점령을 해 가지고 악하던 마음을 선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관습에 의해 꽉죄어서 옴짝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고, 이렇게 하면 못 되겠고 하는 생각이 뚜렷하며, 상식은 이런 이런 것이다는 게 틀이 박혀서 진실한 믿음으로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좀 무식하고 바보 같아야 더 빠르니라' 하셨습니다. 아는게 많으면 망설이는 게 많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거짓 아닌가? 거짓이고 잘못이고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믿으라고 하는데요. 타의의 어떤 형상을 믿으라고 해야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이름을 믿으라고 하나요, 허공을 믿으라고 하나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고통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좌선을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좌선을 해야만 큰 무슨 불법을 깨닫는 도리나 얻을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그대로가 불법이고, 그대로 참선이고, 그대로 공안이고, 그대로 여여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 공(空)자가 들어간 것은 왜냐하면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정되게 한 가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가지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요것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저것 보면 달라지고, 요것 들으면 달라지고, 저것 들으면 달라지면서, 쉼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요. 그러니 그대로 여여한 줄 알고 그대로 참선인 줄 알고 그대로 불교인 줄 알고 살림살이 하는 게 종교인줄 알고 돌아가야만이, 진실히 믿어지고, 또 죽게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형성시킨 것도 주인공인데 어디 생사가 있을 겁니까? 그 생과 사의 가운데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형성이 돼서 그저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한번 병들고 쓰러지면 그뿐입니다. 보잘것 없지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하루살이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듯이, 저 산천초목, 저 산봉우리, 큰 바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강원도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이 우리를 볼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루살이로 보겠지요! 일만이천 봉이라고 하는 것도 뜻이 있고, 팔만구암자하는 것도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현실 얘기고 미래의 얘깃거리도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조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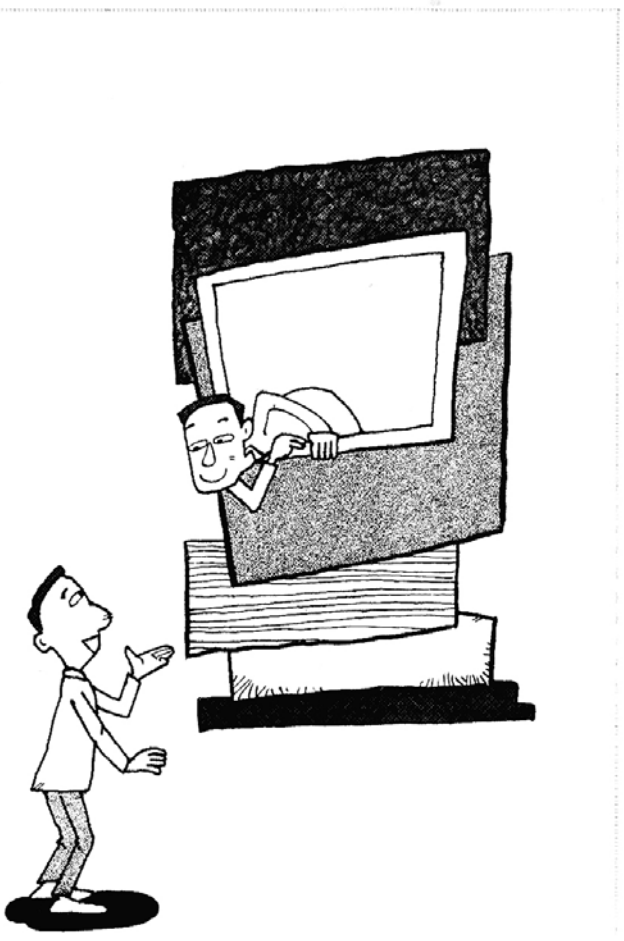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현실에 우리들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조상들이 못 먹었느니 못 살았느니 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로 하려면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착실하고 진실하게, 내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그 믿음으로, 네가 형성시킨 거니까 네가 없애려면 없애고 좀더 살게 하려면 더 살게 하라고 그렇게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번 갈 거 그렇게 믿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뜻으로 항상 이 몸뚱이 속에 사는 중생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니게 한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양호하게 건강을 유지할까요?

이 공부가 사실 따지고 본다면 엄청난 도리입니다. 그거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깡통은 깡통끼리 살기 때문에 왈가닥 왈가닥하고 살 거고, 금은 금대로 살기 때문에 빛이 있을 거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계는 체로 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독사 같이 살았으면 독사의 몸을 지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자동적인 인과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살고 있던 의식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그 독사의 모습을 가졌으니 그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가 남한테 욕을 했으면 욕한 것이 입력이 돼서 욕을 또 먹게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겨야 해요.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속에서 방송이 나오지 텔레비전 케이스에서 나옵니까? 텔레비전 케이스가 텔레비전이 아니고, 텔레비전 오장육부가 바로 텔레비전이거든요. 오장육부가 한 데 합쳐서 부합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부합이 되지 않고 선 하나만 끊어져도 안나와요. 그러니 텔레비전 케이스를 믿지 말고 텔레비전 속의 그 모두를 한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채널만 돌리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하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용도에 따라 볼 게 있으면 보고, 보기 싫은 건 다른 번호로 돌리고 해서 그냥 그대로 거기만 믿어야지 어떻게 껍데기를 믿습니까? 내 육신은 오장육부의 모든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을 증시하고 들어가거든요. 표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우리들은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모르시죠? 아는분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웃음)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인간 속에 든 세포 하나하나의 의식들이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나구나"하고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믿으려면 진실히 믿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되고 안되고 그런 걸 떠나서, 자기를 수억겁을 통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를 시키고 그랬던 것도, 쫓고 쫓겨봐야 그게 마음이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공부로 알라,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믿는 마음으로 허, 또 무너지게 했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웃고 쳐다 본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모두 이 소리를 믿지 못하면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버리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자기 자성신을 진짜로 믿어야지, 어째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자성신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게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 효부이고 부부지간이 아무리 정이 좋다 하더라도 대신 봉 눠주고, 대신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잠자주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를 자기가 믿어서 모든 가정이 밝게 살 수 있게끔, 자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지요.

제가 진짜 깨쳤는지 궁금해요

문 저는 옛날에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시심마'라는 화두를 듣고 참선을 했습니다. 부모가 나기 이전에 내 참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 생각 간절하게 참선을 했는데, 그때 가을이라 어디론가 가고 싶고 쓸쓸하고 또 세월의 덧없음도 느끼면서 무상 살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부터 해가 서산에 질 때 시작해 저녁 한 삼경이 되었는데 잠이 와 깜박 졸은 그 순간에 나는 깨어 있고, 내 의식이 저 온 허공간 온우주에 꽉 찬 느낌이라 떨리고 희열에 찬 마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잠이 들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해야 되는데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깨어있고, 또 내 속에는 또 하나의 내가 있구나하는 그 정도는 체험을 했는데, 불 속에 연꽃이 피는 소식과 개미가 수미산을 업어 가는 도리를 알고 싶고, 또 옛날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솔나무 등걸을 쓸어 안고 아빠라고 나직이 되뇌었던 그때, 그 아빠는 길없는 길을 인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건 길없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견딜수 없는 절망에 저 무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과 나와 하나가 되었던 그 캄캄한 산중에 어디선가 수꾹새 우는 소리가 슬피 들릴 때, 바람이 간간이 불어서 온 나무 숲을 뒤흔들때, 무릎을 치면서 '아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구나, 너와 나는 한 뿌린데 무엇을 빼앗고 빼앗길 것인가', 그때 그건 분별심인지 진짜 깨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 따지고 보면 전부 잔소립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도:저입니다.〉

전데, 그 저 하나만 있으면 요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저런 생각하지도 않고, 요거를 보지도 않고 저거를 보지도 않았을텐데, 그 저가 너무 많아서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요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도:아직 듣는 마음자리를 깨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방황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것조차도 거기 놓으십시오. 안되는 것도 놓고 방황한다는 것도 놓고 또는 모른다는 것도 놓으세요. 지금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이것 저것을 끌어냅니까?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작년에도 어저께도 이끌어가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이끌어 가겠지"하고 다 거기다 맡겨놔요.

병이 병이 아닌 도리

문 지구 현상계에서 보면 지구 속에서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 속에서 나오는 작용이고, 바다에 해일이 일고, 홍수가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구의 대기권이나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볼때, 지구라는 몸체는 처음 형성될때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뭉쳐졌다면, 파괴·난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지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정화하기 위한 작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몸체도 인연에 의한 업식으로 뭉쳐진 것이라면 우리가 화산과 홍수가 작용을 하듯이 나를 제도하고 정화하기 위한 주인공의 작용이라 생각하니 그대로 넉넉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가 작용을 하였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이, 나한테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도로 놓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스님 법문 중에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마라. 병이 병이 아니다'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도 공부가 되어가는 증명인지요?

진짜로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모든 가정이 밝게 살수 있게끔 능력을 기르는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역력하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패기도 생기고 잔잔한 물결같이 편안하기도 하면서 편안하고 잔잔한 그 속에서 솟아 나오는 심력은 정말 그 무엇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신다면 잘 되실 것입니다. 계·정·혜 이렇게 했는데, 계율도 한마음 속에 들어 있고, 지혜도 한마음속에 들어 있으니 계·혜·정이죠. 계와 혜도 정속에 들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 속에 듦으로써 지혜가 풍부해서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도반으로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믿는 마음의 능력이란 태산을 지고도 남음이 있고, 우주를 뚫을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도리인데, 믿지 못해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시바삐 더욱 간절히 단단한 믿음으로 세세생생에 이 중(中)세계의 통 속에서 벗어납시다.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다리 절름발이며, 한쪽 눈 장님이며, 한쪽 귀 귀머거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저 광선이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만 이 마음의 심력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만 50%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좀더 우리 도반으로서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얕으니 이런 걸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높은 게 없이, 그저 하다 못해 개가 염원을 해도 개로 화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무명을 벗겨주셨기에, 어떠한 개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의 불기둥을 표현해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전체 한 기둥을 말합니다. 한 기둥의 마음으로서 전체 한마음으로 심력을 길러 애고·병고 등 그 어떠한 업식이라도 다 태워버립시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생활이 불법이고 참선이고 공안입니다
수억겁 형성시켜온 자성신을 믿으세요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마음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

경전 속의 禪 사상 19

생활속에서의 윤회 열반 체득 제시
'유마의 침묵' 반야 空 설한 해탈 경지

유마경 ㊦

글쓴이

혜 원
〈동국대, 선종사전공〉

초기의 선사상의 바탕은 다름아닌 유마적 발상의 반야사상이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의 대승진리를 깨닫는데는 '이입사행'의 실천으로써 그대로 유마의 반야적 실행을 여실히 보인다. '이입'중 이입(理入)은 '범부나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깊히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입(行入)인데 이 행입에는 사행(四行)으로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報怨行 隨緣行 無所求行 稱法行)이 그것이다. 보원행은 자신의 업을 깊히 숙고하여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행이며 수연행은 인연에 맡기는 행이며 무소구행과 칭법행은 대승진리의 본질인 일체개공의 실재화를 나타낸 행이다. 이같은 달마선법은 불성에 대한 신심과 그러한 신심으로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행이다. 유마의 근본정신인 '불이(不二)'법문이 그 근간을 이룸을 알 수 있다.

혜능스님에게 한 납자가 물었다. "외도들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생불멸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죽지않는다고 함을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것이지." 생사의 분별이 없는 열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의 설봉의존이라는 선사는 한 납자가 "생사의 고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자, "풀 한포기도 빌리지 말게"라고 하였다. 배는커녕 풀 한 포기에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생사의 대해를 건너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데 배는 커녕 풀 한 포기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일본 경도 묘심사의 개산(開山) 국사의 처소에 한 운수납자가 찾아 왔다. 국사는 "무엇하러 여기에 왔는가?"라고 물으니, "생사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국사는 한마디로 "나의 처소에는 생사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산양개의 처소에 한 수행자가 "추움과 더움이 오면 어떻게 피할까요?" 동산은 "왜 춥거나 덥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수행자는 "춥지도 덥지도 않는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동산은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문답은 생사나 열반은 불이의 관계임을 보이는 것이다. 불이의 눈으로 보면 생사도 열반도 꿈과 같은 것이며 때문에 생멸도 거래도 없으며 따라서 보살은 생사 가운데서 열반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문수는 유마에게 불이법문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유마는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문수는 감탄한다. "문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로다." 문자·언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이의 세계를 묵(默)으로 보인 것이다. 일체의 개념과 그 개념에서 온 망상과 집착의 허물을 완전히 벗겨 버린 것이다. '체로금풍(體露金風, 거센 가을바람에 드러난 앙상한 나뭇가지)'의 묵(默)이다. 선사에게 있어서 '무'자 화두는 무문관을 뚫는 화살임과 동시에 일체 분별을 놓은 안심의 세계를 의미한다. 지도(至道)를 하지 못하고 크게 불안해 하는 혜가에게 달마는 침묵(無)의 희오리에서 '아여여안심경(我與汝安心竟,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이란 한마디는 혜가를 대오시킨다. 이러한 정법안장(佛心)의 이심전심은 중국선종의 사자상승의 혈맥에 근본이 되어 계승됐다.

현장(602-664)이 인도를 여행할 당시, 이미 유마는 전설상의 인물로서 나타나 있음을 그의 〈서유기(西遊記)〉에 명료히 나타나 있지만, 이 경이 서역지방에서 중국으로 넘어지면서 나중에 당의 시인 왕유는 스스로 '왕마힐'이라고 칭했다고 할만큼 유마는 민중적 혹은 문화적으로 침투되어 있었다. 유마는 이처럼 '정심인(淨心人)'의 표본으로서 나타나, 유마적 삶을 향유하려는 모든이들에게 삶의 현실이 그대로 불토의 세계이고 보살로서의 자타불이의 바라밀행임을 가르쳐준다. 유마의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는 말은 인간의 영성적 자각과 종교적 자유에 관한 근원적인 실천이법을 제시한 것이며 그의 불이법문에서의 일묵(一默)의 모습은 청정한 마음 즉 무의 세계를 보이는 것이다. 선사상은 이러한 유마적 반야를 체득한 원리이며 선의 세계는 바로 유마의 불이의 세계이다.

과학산책

뱀과 지푸라기



경전에 보면 '지푸라기와 뱀' 비유가 있다. 사람들이 뱀이라고 생각을 하여 겁을 먹었으나 알고 보니 지푸라기였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있지도 않는 관념(뱀)들에 의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 하루빨리 본래 자유로운 자기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헛된 관념(뱀)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이다.

우리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시간도 없이 서양 문화는 상당 부분 우리 문화를 대치해 가고 있다. 외모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는 서양식의 외형에 자신들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양의 깡마른 모델들에 견주어 자신들의 몸무게를 지나치게 줄이려는 여성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과 요법들은 옳지 않은 상업주의와 맞물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뚱뚱하다는 잘못된 관념(뱀)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딸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지나치게 몸매에 신경을 써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를 거짓되게 구속하는 관념(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경성 무식욕증'이라는 질병이 있다. 실제로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뚱뚱하다는 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먹기를 거부하는 질병이다. 이 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단순히 음식을 보기만 해도 극도의 불쾌감이 몰려온다. 밥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고 동시에 위장은 뒤틀리고 침샘은 마르며 전체 소화계통이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 질병이 심각한 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음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 심한 경우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 없지만 생각 일어나면
화학반응 일어나 고통 느껴

참선하듯 '고요' 관하면
강박관념 초월할수 있어

일단 생각이 들게 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앞 글들에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에 대응하는 화학분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이 생각과 화학분자 이외에 세 번째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고요(silence)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요소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신경성 무식욕증 환자도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즉, 참선을 할 때 느껴지는 고요한 그 곳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앞선 단어와 앞으로 올 단어 사이의 어떤 속성도 없는 고요한 그 곳. 성인들은 이 고요로부터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아마도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쇠는 이 그요에 있는 것 같다.

만약 환자가 생각이나 관념에 달려듦이 없이 바라보는 방법(불교의 관법)으로 자신의 강박관념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 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요히 관하는 사람이 된다면 일체의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마음의 심부름꾼인 화학분자들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는 컴퓨터에 혼선된 입력이 들어가 쓰레기 같은 출력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생각도 마찬가지 아닐까? 뱀이라는 잘못된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육체적 반응들이 일어난다. 이 반응들은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나 지푸라기를 뱀으로 잘못 보아 생긴 반응일 뿐이다. 즉, 필요치 않은 반응인 것이다. 만약 생각의 근원을 꿰뚫어 본다면 잘못된 관념이 머물지 않으므로 잘못된 행동이 생기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생각의 근원을 꿰뚫으려는데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불가의 수행 방법이 아닌가 싶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끝

반야바라밀다 문헌 ⑧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삼법인을 자극하고, 모든 유위의 현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 덕을 수행하는 데에 몰두하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 '열반, 평화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모든 유위적 것에 대해서 평정한 마음을 키움에 따라 명상에서 평정인 증진시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믿음은 확고해지고 정진은 강해지고 마음챙김 또한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욱 집중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힘이 강해질수록 '초월적인' 길은 더욱 가까워진다.

"길은 계속 이어진다. 길이 나타나면 전에는 타파하거나 분쇄하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들이 분쇄되고 타파된다."

어떤 사람의 지식이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됨에 달려 있다. 성스러운 사람과 일상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존재의 차이를 갖는다.

사람이 도에 들어갈 때 즉, 열반으로 이끄는 길로 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유위적인 것에서 이탈시킬 때 그는 '초월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지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세속적 견해의 근본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무위적인 것은 그것들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반은 상상할 수 없다
오직 마음 다스리는 길 갈뿐

그러면 어떻게 무위적인 삶,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 열반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적절한 관념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반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이 없으며 추리로는 그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반에 대한 모든 개념은 착각이다.

그러면 성인이 어리석은 범부보다 열반에 훨씬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 우선 명백한 것은 평범한 사람은 실제의 '열반'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만일 열반에 한 번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을 정진해온 수행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세속인과 구별되는 수행자에게 열반은 '본다'는 의미에서 '깨닫는다'고 표현된다. 이 '보는' 것은 보통사람에게는 없는 중대한 통찰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명상을 한 수행자는 이 세계에는 '고(苦)'가 아닌게 하나도 없다며, 스스로 열반의 길을 찾게 된다. 이때부터 '지혜의 눈'이라는 불리는 새로운 통찰 기관이 수행자에게 길을 안내한다.

열반이 수행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이 되면 객관적인 의지처로써 작용한다. 하나가 멈출 때 다른 하나가 생겨나 듯이 온전한 불법은 열반 자체로 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

결국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 덕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열반으로 향한 길을 재촉하는 덕목이다. 그것은 '결코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음식이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공과 무상과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마치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9년 6월 2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마늘로 커피를 만든다?
마늘의 뛰어난 효능이 농축된 건강식품, 마늘커피

●소비자가격 :
(1개월분) 분말 230g : ₩39,000
(1개월분) 환丸 250g : ₩45,000
마늘은 일해백리(一害百利)의 천연식품
마늘은 예로부터 냄새를 제외하고는 백가지의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로 불려 왔습니다.
KBS 1TV 98.7.16 「약이 되는 식품마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1TV 98.3.24 9시 뉴스 97.5.15 9시 뉴스
마늘커피는 토종마늘을 5시간 이상 구워낸 미세한 분말로 커피처럼 뜨거운 물에 타 마시면 소화 흡수력이 생마늘보다 수십배나 뛰어납니다.
마늘의 독특한 향과 맛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전의 발생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며, 몸에 흡수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 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외에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 남성의 자양강장 및 여성의 냉증에도 좋습니다.
마늘커피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드시기 편리한 [환丸]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마늘냉새 걱정없이 마늘의 효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마늘커피
●제조원 : 동양물산주식회사
전화 (02)677-4265 (011)381-815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2-21-1087-806 천정님 ●

奉 祝
20차 한일 일한 불교 문화 교류대회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 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 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온지 어언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 20차 대회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의 불교지도자가 참여하는 기념 법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제20차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본의 역대 회장스님들이 참석하시며,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된 외교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행사 세부 일정표◇
행사명 | 일 시 | 장 소
환영만찬 | 99년 5월 25일 오후 7시 | 대구 파크호텔
본대회 | 99년 5월 26일 오전 10시 | 김천 직지사
기념법회 | 99년 5월 27일 오후 7시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소공동 소재)
· 동참하실 분은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불기 2543년 5월 일
사단법인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명예회장 오고산, 회장 이법홍, 이사장 이홍파 합장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3층
전화 (02)725-3677, 720-1708 FAX (02)720-1709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부처님 마음처럼 …

韓國佛教太古宗

宗 正 德 菴

總 務 院 長 洪 印 谷

副院長 金 普 眼
副院長 金 智 庵

中央宗會 議長 金 一 宇

副議長 金 大 雲
副議長 柳 南 坡

司 正 院 長 金 蓮 雲

副院長 李 白 牛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 02)745-2030~2

大韓佛教天台宗

宗 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國星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朴德水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監査院**

宗會議長 尹德山 **監査院長 朱正山**

副 議 長 金國星 監査委員 李法山
副 議 長 裵斗出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教大學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 忠北 丹陽郡 永春面 柏子里 132-1
전화 : 0444)423-7100~8 / FAX : 0444)420-7399

大韓佛教眞覺宗

總印 覺 海

總印司書室長 惠 淨

統理院長 省超 **宗議會議長 然 明**

總務部長	悔 淨	副 議 長	一成和
財務部長	守 性	副 議 長	修 淨
文化社會部長	無 畏		
建設部長	惠 明		
文化社會局長	圓 明	**査監院長**	**鎭 山**
布教局長	浩 堂	査監部長	常 濟

教育院長 一靜

教法部長	曉 峰	**眞覺大學長**	**碩峯**
教育部長	觀 證	教務局長	惠 正
教法局長	悔 省		

宗學研究室長 惠淨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 FAX : 02)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觀音宗

總務院長兼 宗正代行 李泓坡
元老院長 李慧雄

總務部長	金智攝	教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尹法虛
監察部長	金和嚴	組織部長	李法炫
布教部長	柳牛耕	教育部長	金性哲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金法華 副 議 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3109 / FAX : 02)763-5851

大韓佛教普門宗

宗 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總務部長	李法善
教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教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02)928-3797, 926-9752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원로원장 황법운

총무원장	최법륜	종의회의장	조성관
총무부장	장체승	부의장	김인관
사회부장	임보광	사정원장	민성운
재무부장	박대월	포교원장	조성견
교육부장	이체원	문화원장	김선진
포교부장	주체법	중앙비구니회회장	박대월
종무국장	이체인		
규정국장	박체성		
사업국장	강체도	종정사서실장	임체관

각시도 종무원장

인천광역시 장체승 경 기 도 차성인
충청남북도 김체의 강 원 도 류무송
경상북도 손지관 경상남도 최천호
전라남북도 이정광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 02)857-5094 / FAX : 02)859-1042

佛教總指宗

宗 領 綠 靜

統理院長	總持華	法藏院長	曉 岡
總務部長	知 性		
財務部長	善導願		
教政部長	圓滿願	査監院長	圓 峰
		査監委員	法 靜
宗會議長	松 霞	査監委員	法 成
副議長	法 靜		

서울·경기 教區長 園 松 대구·경북 教區長 修 成
충청·전라 教區長 法水願 부산·경남 教區長 義 剛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 FAX : 02)552-1082

大韓佛教眞言宗

宗理院

종 정	육자	六字
원 로	재산	霽山
	석암	石庵
종리원장	금광	金光
재무부장	종밀	宗密
종회의장	법륜	法輪
호법원장	국복	菊馥
감사원장	혜공	慧空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3(용두 진광원내)
TEL : 02)967-2479 FAX : 02)968-3350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대 산
부종정 석 봉
승정원장 각 화

총무원장	혜공	종앙종회의장	혜승
부 원 장	진봉	사정원장	신수
총무부장	청봉	재정원장	혜광
교무부장	인봉	포교원장	법진
재무부장	지연	호법원장	대운
사회부장	암도	교육원장	정봉
홍보부장	지겸	수선원장	대심
		문화원장	우담
		교리연구원장	현강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전화 : 02)3216-0165 / FAX : 02)3216-0166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이 사 장 보현정사 주지 석 정 각
상임이사 보화정사 회주 석 탄 공

이 사 석금암 이 사 석일화 이 사 석창법
이 사 석혜안 이 사 석혜우 이 사 석봉안
이 사 석선종 이 사 진각화 이 사 석도명
감 사 석도광 감 사 석일정

〈법인사찰〉
보현정사 · 보화정사 · 원효사 · 보광사 · 지장암 · 선덕사 · 낙양사 · 정도사 · 내각정사 · 현암사 · 서니암 · 영암사 · 세명사 · 관음사 · 봉황사 · 소원사 · 운봉암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사무소

총무 광 진 재무 법 원 사무장 김현태

▶ 우)320-920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지장암)
TEL : 0461)732-5629, 733-5629 FAX : 0461)733-5628

대한불교조동종

종 정 덕공 박운파

승정원장 덕찬 윤지명
종회의장 덕천 강범해
수석부의장 덕연 연대경
부의장 행봉 우해륜
감찰원장 덕광 안송봉
부원장 행서 손혜각
선 원 장 덕진 임진일
부원장 덕련 손혜정
포교원장 행각 박심월
포교부장 행호 이동한
교육원장
교육부장 덕양 이성혜
호법원장 덕춘 한춘담
호법부장 행철 황법광
문화원장 행균 김일광
문화부장 행신 홍만오
문화국장 영평 김능각

총무원장 덕봉 한학봉
부의장 행원 김진법
사무총장 덕룡 김법공
총무부장 행성 송덕성
교무부장 대은 황순서
재무부장 행산 주대천
사회부장 행정 김정림
규정부장 행수 조성수
규정국장 행범 장현공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 02)379-0027,0028(FAX겸용)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

종 정 한 구 하
의 장 정 희 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 희 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02호
TEL : 02)730-0798~9
FAX : 02)722-3205

(사)한국대선불교조계종

종 정 동 산 (대구 범우암 조실)

총무원장 용 담 (상주 관음사 주지)
종회의장 회 암 (서울 연화사 주지)
교육원장 종 훈 (경기 천호암 주지)
포교원장 혜 성 (상주 금산사 주지)
감찰원장 덕 암 (서울 삼각사 주지)

사무총장 법 우 (대구 구룡사 주지)
총무부장 상 근 (서울 상봉사 주지)
재무부장 혜 광 (서울 광덕사 주지)
교무부장 석 담 (서울 성왕사 주지)
사회부장 성 법 (서울 내원암 주지)
규정부장 법 공 (서울 월광사 주지)

서울 경기교구 종무원장 수 봉
서울 경기교구 총무국장 현 수
대 전 교 구 종 무 원 장 길 성
대 구 교 구 종 무 원 장 정 명
경북 상주분원 총무국장 선 행
부산교구 종무원장 무 상
전주교구 종무원장 영 태
광주교구 종무원장 영 조

서울 경기교구 포교원장 법 성
서울 경기교구 규정국장 대 은
대 전 교 구 포 교 원 장 태 성
대 구 교 구 총 무 국 장 수 강
부산교구 종무원포교원장 종 준
제주교구 종무원장 동 건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969번지 한국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
TEL : 042)525-4316~7

大韓佛教總和宗

아기부처님의 誕辰을 온누리에 慶祝 드립니다.

宗 正 李 東 光
副宗正 朱 寅 鉉 · 崔 慧 山

總 務 院 長 全 南 亭
宗 會 議 長 李 萬 悟
教 育 院 長 金 華 潭
布 教 院 長 朴 春 海
監 察 院 長 白 東 悟
文 化 院 長 崔 海 正
護 戒 院 長 趙 古 潭

總 務 部 長 朴 賢 悟
教 務 部 長 尹 大 岩
社 會 部 長 黃 慧 光
財 務 部 長 李 錦 悟
規 正 部 長 鄭 無 碍
組 織 部 長 朴 大 現

各 教 區 宗 務 院 長 諸 位

한국불교 법화종

종 정 김 혜 윤 대종사
원로원장 박 종 화 대법사
총무원장 김 광 태 대법사

총 무 부 장 혜 명
사회홍보부장서리 묘 련
교 학 부 장 종 법
재무부장서리 보 광
종 회 의 장 김 영 장
홍법교육원장 김 은 산
감 찰 원 장 박 세 장
서울교구종무원장 김 혜 명
경기교구종무원장서리 박 옥 산
충북교구종무원장 김 병 준
경북교구종무원장 김 정 호
부산교구종무원장서리 김 묘 련
강원교구종무원장서리 이 법 련

▶ 총무원: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35-5(중앙B/D 503호)
TEL : 02)745-1590
FAX : 02)740-1590

奉 大韓佛教 三論宗 第4代 宗正 第2代 副宗正 推戴法會 祝

· 宗 正 : 釋 慧 巖 大宗師 · 副宗正 : 釋 道 元 大宗師

宗正推戴 委員長 僧正院長 釋 竹 山
委 員 總務院長 釋 摩 定
委 員 宗會議長 陸 大 月
委 員 司正院長 釋 慧 光
委 員 布教院長 池 慧 峰
委 員 教育院長 李 眞 空
委 員 文化院長 釋 解 覺
委 員 修禪院長 釋 德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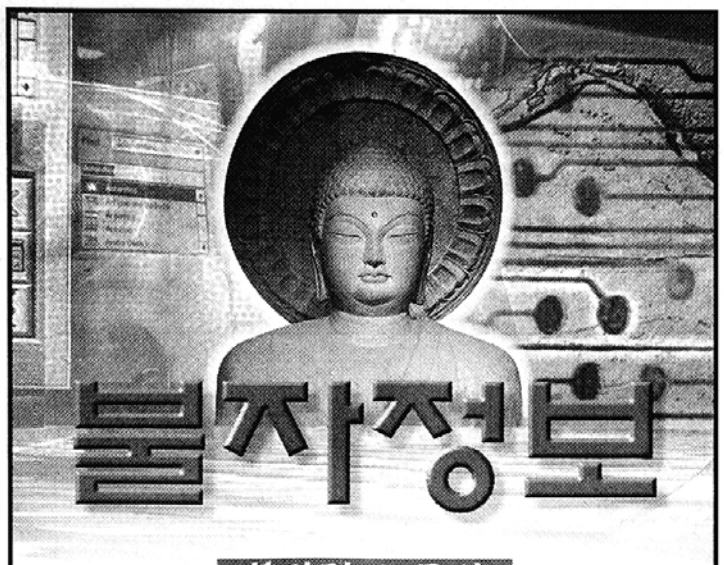
國際佛教布教師大學

奉行委員長 釋 摩 定 委 員 釋 德 峙 委 員 釋 解 昔

行政分課 委員長 釋 靑 降
總務分課 委員長 梁 碧 巖
財務分課 委員長 釋 摩 月
教務分課 委員長 金 默 巖
社會分課 委員長 釋 法 眞
規律分課 委員長 釋 法 仁
儀典分課 委員長 釋 宗 國
警護分課 委員長 金 鍾 允
弘報分課 委員長 趙法雲性
動員分課 委員長 釋 摩 因

國際禪拳法術總聯盟

◆ 일 시 : 1999년 6월 2일 11시
◆ 장 소 : 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4리 임오사 전 화 : (0336)643-8254
◆ 총무원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24-7 전 화 : 02)456-1963, 447-5291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인
불심깊은 불자간병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FAX 0671)626-4980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주지 : 진 성

불자님의 치아건강
全燦齒科醫院
JEON CHAN DENTAL CLINIC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97
(5호선 오목교역 6번출구)
상담환영 02)645-9746
頓悟 全 炳 燦 합장

강좌

통신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간편 100% 적중 용신 公式集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명(전 직교사·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水脈 찾기 강좌
1.신비주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 511- 010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80권) -1,400,000원
법화경(7권) - 170,000원
사 교(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동양 · 역학 강좌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경기 광명시 하안동

특별 상담
중국 국제 침구사 자격시험
1. 포교활동 하실 분
2. 해외 이민 또는 취업 하실 분
3. 해외 포교활동 하실 분
4. 침구학을 연구나 공부하실 분
5. 장래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실 분
6.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02)875-8310~3

구인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전세계약금 중 1천만원이
부족, 본인명의로
해드리는 조건으로 도움주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산 관음포교원
012)565-7790 범혜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태 광 에 너 지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온수기
심야전기 온 돌
전기온돌판넬
확실한 시공
철저한 A/S
062)526-5345/ 019)612-0301

정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 비밀철대보장!
▶ 약물치료가 아님
▶ 귀신병 걸렸다고 생각되는 분
지리산 **묵계사** 011)596-9461

베개의 대혁신
디몬 한방 옥베개
머리가 무겁습니까?
■머리를 맑게 하는 특별한 秘方!
동의보감 「신침법」에 의한 32가지 한방약초와 우리나라 유명백옥의 자연정기가 머리를 맑고 시원하게 합니다.
■한방옥베개가 꼭 필요한 분
1. 신경이 예민하고 잠을 푹 이루지 못한 분 2. 잠자고 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치 않은 분 3. 항상 목, 어깨가 뻐근한 분 4.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5.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가 맑지 못한분 6.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세광산업(주) 주문처:02) 766-8273~4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줄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등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능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최면-명상치료사 양성
■타인 → 자기 최면 → 명상
■병인인 심상(업)치료 → 치유력 강화 → 세균 약물 면역력 약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관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달마사

보이차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里
02)911-6798
017)406-6682

◇ 숯 침대 ◇

■숯의 신비한 효과로 인한 건강증진
■1인용 : ₩350,000
2인용 : ₩500,000
02)935-3585/936-4383
이 조 공 예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한말순
▶나이 : 69세
▶키:1m 50m
052)282-1490
0653)832-5769
017)546-1490
박차남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현대으뜸타워 104동 1004호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자석+금첨+은의 3가지 복합효과
동광자기금침
실용신안특허 제118585호 보건복지부허가제조허가 131호 제품허가 31호
근육경직, 무료, 어깨, 통증은 이제 그만!
동광자기금침은 이제 가정상비 필수의료품 입니다.
동양의 신비가담긴 금침과 인체에 좋은 자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동광자기금침은 한방의학의 경락과 생체 에너지에 직접 작용하여 혈액순환, 요통, 관절염, 류머티스, 근육경직 무시고 결리는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CATV 및 통신판매 중! 적은 투자! 고수익! 확신!
※ 지역총판 및 사찰판매점주를 모십니다. ※
제조원 동양전자의료기기 (주) 판매원 東成通商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11
대표전화 (0344)938-6292 FAX(0344)973-3505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2평
◇법당 : 23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급매)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김해
◇법당 겸 요사 : 35평
◇부지 : 360평
◇가액 : 1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자(급) 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대지 : 120평
◆가액 : 4,900만원
011) 582-1736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목천
◆부지 : 약 1천평 (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칠성각 요사채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1억2천만원
(꼭 필요한분 연락바람.)
02)838-2929
0417)566-5892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2번지
◆법당 : 15평(기도,방 6개)
◆건평 : 40평
◆가액 : 6,500만원
(즉시 입주가능)
삼정정사 주지 해석 스님
042)255-5063/011)703-745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4-11
◇ 평수 : 20평
◇ 법당시설 완비, 한옥 1층, 주차장 완비
◇ 가액 : 시설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6만원
◇ 마석 시내 중심가
0346)595-1302/011)202-02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복현동 4거리
◇ 평수 : 43평, 2층의 2층 (옥상사용가)
- 법당,주지실,공양칸 욕실, 주차장 완비(입주즉시 법회가능)
- 삼존불(개금 4자), 후불·신중·산신탱화
◇ 가액 : 2천만원- 월 40만원 (보증금+시설비포함)
053)957-9551/016)5519-9551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총 61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포교원 운영하실 분
인도 유학관계로 포교원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대리 운영해 주실 스님을 모십니다.
◇ 위치 : 광주광역시 신도심지
◇ 법당 : 50평(최신 시설완비)
◇ 주지실, 후원, 목욕탕(옥상사용가)
◇ 현재 법회 운영중
◇ 전세 : 5천만원(월세가능)
011)320-8541

사찰(급) 안내
◇ 위치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전원주택지
◇ 부지 : 200평 (단독 법당 및 요사채 30평)
◇ 가액 : 1천만원에 월 20만원
0331)283-707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1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0576)862-0319
011)9570-353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대지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금정산아래 동신대학 뒷편
◇ 대지 : 250평
◇ 평당매매가 : 135만원 (가격 조정가능)
※사찰부지 입지좋음
※기초공사완료, 지하수개발완료
011)607-3155/012)601-4041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2번지
◆법당 : 15평(기도,방 6개)
◆건평 : 40평
◆가액 : 6,500만원 (즉시 입주가능)
삼정정사 주지 해석 스님
042)255-5063/011)703-7453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광양읍에서 10분 거리 (백운산밑)
◆건물 : 법당1칸, 방2칸
◆가액 : 1년 20만원
시설비 350 만원
0667)762-5909

사찰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APT앞 (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1)563-4454

사찰 안내
◆위치 : 통영시내에서 차로 10분거리
◆평수 : 법당20평 요사채50평 총 72평
◆산밑에 위치 (큰마을 有)
0557)644-1054
017)590-1900/012)581-9295

포교당 안내
◆위치 : 길음역 3분거리
◆평수 : 50평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전세 : 7,000만원
02)941-3195 수도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지리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876번지 외 2필지
◆현재 밭 210평(준농림지 1,500만원)
◆함양읍 또는 생초 I.C →남호리 소재 한남마을 서측 근거리(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50m위치
⊙지리산(천왕봉)밑 중산리 계곡 옆 토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428번지 550평, 위 같은 리에 산 50번지 3,060평)
▶합 3,610평 ◆가격 : 7만원(준농림지)
0596)972-4968

사찰 안내
◆법 당 : 30평
◆요사채 : 30평
◆ 방 : 5개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3천만원
◆비품일체 제공
0613)337-4020
011)579-9865

일본 최대 한국사찰 세운다

오사카 관음사문화회관

법당-납골당-문화공간 등 조성
1080평 규모 12월5일 낙성법회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 불교문화회관으로 한국사찰이 건립된다.

이 불사는 멀고도 가까운 한일관계의 20세기를 접고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일본인 스님이 한국민에게 보은의 뜻으로 흔쾌히 시주해 이뤄진 불사여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일본 오사카 이루노구 관음사(주지 원연)는 5월13일 대지 360평에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 연건평 1080평 규모의 초현대식 사찰과 문화회관 건립 상량식을 봉행했다. 오는 12월5일 낙성법회를 예정으로 하는 관음사 문화회관은 건축비 3백억원으로 지상 1층에 전통 한국건축양식으로 법당이 조성되고, 2층에 장의예식장 5층에 문화 전시공간이 들어서고, 3층부터 9층까지 불교의식의 납골당이 자리잡는다. 9층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모셔지고, 지하 3층은 전층 주차시설로 활용된다. 특히 이루노구는 구민 4명당 1명이 교포로 일본내 가장 많은 교포가 살고 있는데다 중심가에 자리잡은 관음사 문화회관은 바로 뒤에 코리아타운이 위치해 명실상부한 한국인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량법회에는 백양총림 방장 서옹스님을 비롯 조계종 고려사 주지 회정, 보현사 주지 소연, 태고종 법성(금강사 총무), 일붕종 영산(금강사주지) 원효종 화쟁(연역사)스님 등 범종단차원의 현지 스님들과 일본 정토종 승운사 주지 安井스님, 재일본한국민단 홍성인단장 각 부장과 신도대표 등 2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경과보고 법어 상량 정근 부처님사리친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 불사의 화주인 故요시무라(吉村大徹)스님(99년1월 입적)의 영정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서옹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사를 장엄하게 건설해 훌륭하게 수행해서 인류 평화 행복의 도량이 되기를 확신하고 기원한다"고 설하고 즉석에서 불사 원만성취를 축원하는 '자비무궁'이라는 휘호를 썼다.

이 불사는 한국민단이 공식 추천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오는 12월 5일 낙성법회를 갖는 일본 관음사 문화회관. 지하 3층 지상 9층의 골조공사를 마치고 5월 13일 상량식을 가졌다. 원내는 주지 원연스님.

불교복지 통신망구축 서비스

조계종 복지정보지원센터 사업목표 보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일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열고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이하 복지정보지원센터) 개원보고를 통해 설립목적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혜숙 정보지원센터 팀장은 '정보화 시대의 종교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복지정보지원센터는 △사회복지 관련정보 수집 및 체계적 관리 △복지정보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구축 △불교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인력 육성 △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서비스 수요자간의 긴밀한 연결체제 구축 △지원 및 후원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보지원센터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mahayana.or.kr)를 개설, '불교사회복지포럼'과 '전문가 포럼',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포럼' 등과 교계복지기관과 시설안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정보망이 구축되면 자원봉사조직이나 복지시설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불교복지를 포함한 종교계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 민간복지정보망과도 연계함으로써 불교복지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지대회에서 승가원, 소쩍새마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직지사, 진각종이 불교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불교계 복지활동을 지원해온 임인철씨(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와 보건복지부 복지자원과, 서울시 사회복지과 및 고용안정과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명우 기자

송광사 "대중공의 운영"

문도회의서 결정…25인 총림운영위 구성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가 총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총림의 인사, 불사 등 일체의 사중일을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총림운영에 있어 일대 모범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광사는 12일 제789회 보조국사 종재를 지내고, 방장 보성스님을 비롯하여 주지 현지스님, 종회의원 현봉 범종 영조 스님, 현문(약수암주지) 지묵(길상사 선원 유나) 현묵(목우회 회장) 스님 등 80여명의 문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와 불사문제등 사중 제반일을 논의 결의하게 될 25인 총림운영위원회(위원장 현지)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송광사의 인사와 불사추진 등이 공의보다는 일부 스님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 앞으로는 모든 문파를 초월, 누구든 총림에 애정을 갖고있는 뜻있는 스님들에게 사중 소임을 맡기기로 함에 따라 주지 천거 및 입명도 공개키로 뜻을 모았다. 또 비대하게 추진돼온 불사도 앞으로는 규모있고 계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장 보성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산중공의체제를 확립하고 송광사 선방을 널리 개방하여 승보종찰의 면모를 일신키로 했다.

총림운영위는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20일 대구 망월사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해 법정 법흥 보성 원명 스님 등 송광사 원로스님들의 자문을 거쳐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광사의 한 스님은 "그동안 주지직이 일부 스님제자들로 이어져 왔던 전례를 파기하고 송광사가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며 "원로스님 등 모든 대중들이 마음을 합했기에 문도화합도 이뤄지고 앞으로 총림에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시대불교포럼 12일 출범

초대회장 박승원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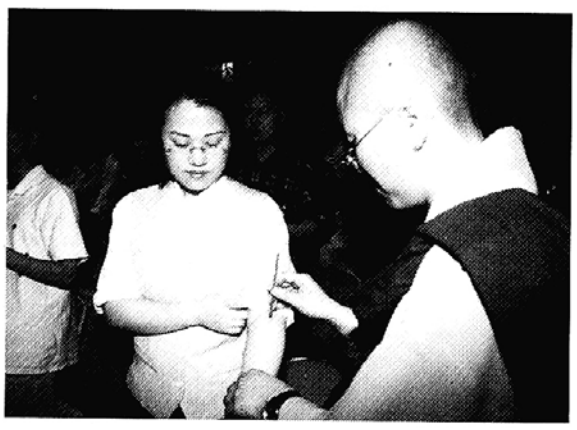


한반도 불교문화의 부흥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 단위로 '문화복지재단'을 만들어 새로운 포교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기념 포럼에서 제기됐다.

'21세기 한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렬(성균관대 강사)씨는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자로서의 불교를 만들기 위해 승가를 지식인 집단화하고 불자지식인들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된 박승원씨(시스템연구소장)는 "앞으로 지식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핵심에 치중하여 한국불교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생 1천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전동국인 춘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1천여명이 오계를 수지한 이날 수계식은 녹원스님(동국대 이사장)을 전계화상으로 이뤄졌다. 녹원스님은 "수계를 받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25~27일 직지사서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20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직지사 등에서 열린다.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법요식(26일, 직지사) 세미나(26일, 직지사), 20주년 기념법회(27일, 서울 롯데호텔), 동학사 관문사 봉원사 조계사 불교전래사은비(부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지하스님(조계종 종회의원)과 미와바이시 쇼오겐 스님(일-한불교 부이사장, 대정대학 교수)이 각각 기조연설을 하며, 토론을 벌인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문에는 △한-일 불교문화교류의 20년 회고 △역사 문화 지정학적으로 한-일 두 나라는 이웃임을 확인 △21세기 정신문화를 주도할 불교인의 역할과 사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대회에 일본측에서는 정토종 일련종 진언종 조동종의 종정급 스님들을 비롯 90여명, 한국측에서는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조불련, 불추위에 방북초청장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지선(민족화합불교추진위 싱임추진위원장) 명진(〃상임집행위원장), 성조(〃 공동집행위원장) 스님, 유지원사무총장, 김기창(보광사신도회 후원회장)씨 등 5인에게 이달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내, 남한불교계의 공식적인 북한방문이 교계 최초로 이뤄지게 됐다. 초청장을 받은 불추위는 5월 25일 북경을 경유하여 방북키로 하고 평양시와 묘향산 보현사 백두산등 북한사찰지역 중심으로 답사하겠다고 밝혔다. 불추위는 방북기간중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남북불교회담을 갖고 △남북불교인사 상호교류 방문추진 △남북한 합동법회 추진 △북한지역내 사찰및 불교문화유산 현장조사및 자료집 발간 △남북 불교학술회의 개최등의 내용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배영진)도 조선불교도연맹이 3일 8·15법회와 토론회및 강연회를 남북공동으로 갖자는 제안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재가연대 심포지엄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은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 실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는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방안 모색'을 통해 "사찰운영방식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목표는 한국불교 발전에 바탕을 두고 사부대중 참여의 사찰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도교육과 신도역할 증대, 신도조직 형성, 스님의식 고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재정투명화 사례를 발표한 최연(봉은사 사무장)씨는 "봉은사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교역직 종무원과 재가종무원이 참여하는 종무회의이고 중요사안은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며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따른 지출과 수입과 지출의 경리업무 분장, 수입원의 다변화 추구, 신도회 위상강화등의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사찰운영의 확산, 정착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한 정용정씨(재가연대 사무처장)는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분규가 계속되는 원인이 삼보정재가 투명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며 "사부대중 참여의 사찰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본산인 조계사를 모범사찰의 모델로 창출하고 재가신도의 지위확대, 사찰운영위원회법의 보완, 캠페인 전개, 총무원의 행정지도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8월20일 회장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7일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조영황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선관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6월17일 선거공고 △7월20일 대의원 명부 확정 공고 △8월 3~5일 후보자 등록 △8월 6~19일 선거운동기간 △8월20일 임시대의원 총회 및 당선공고.

전국신도회 조직강화 지회·지부 등록 공고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6월30일까지 기존 지부 조직과 신규 지부 및 시·도단체, 지회, 직장 및 직능단체, 단위 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하 단체의 등록을 받는다. 기존 조직의 개편과 신규 조직의 등록을 통해 산하 조직으로 편입된 단체는 사단법인 명의로 등록증을 수여받고 사단법인의 법적 효력을 받게 된다.

"김태복소장 불공정재판 시정"

종교편향위 기자회견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원혜·현진스님)는 12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김태복소장과 관련한 육군검찰의 부도덕성, 육군보통군사법원 재판부의 불공정성, 불교시주금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육군보통검찰부는 지난 9일 포교원장과 국방부장관의 면담후 신중히 검토하여 선고하겠다는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소사실에도 없는 자료를 제공해 오보를 쓰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유감표명을 담은 공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주변 특별 방범활동

경찰청 초파일맞아

경찰청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전국 각 사찰의 방화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사찰방화가 잇따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25일까지 보름동안 전국 각 사찰 주변에 대한 특별방법 활동을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국 사찰 주변에 특별방범조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백령도의 종교편향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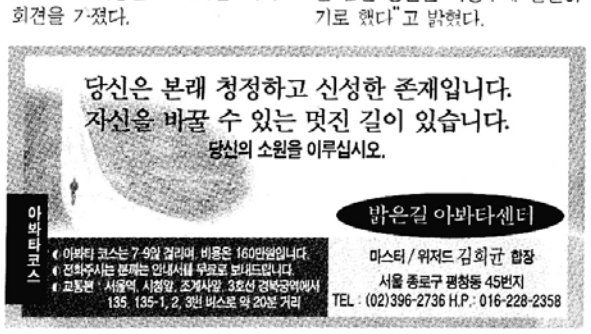
주민의 95% 이상이 개신교를 믿는다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기독교가 전래된 코스였기 때문에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타 종교에 대한 편견과 편향이 유달리 심해 불자들이 배겨나질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백령도 주둔부대인 해병6여단 내에 있는 철탑을 불교와 개신교가 함께 쓸 정도로 종교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울들어 개신교계는 철탑을 함께 쓰기로 한 관련 목사들을 퇴출시키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은 지난 8일, 태고종 인천종무원과 백령불자협의회가 북녘땅 장산곶이 보이는 심청각에서 봉축 연등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이었으나 기독교도인 백령면장의 일방적인 거부로 점등식을 치르지 못했다. 스님과 군불자 가족 등 3백여명은 심청각 야외마당에서 점등식을 봉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회를 마친 뒤 백령면장 관사 앞마당에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공개 참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일 백령면장은 행사장소인 심청각이 내부공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점등행사를 허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일 오전 면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등불을 밝히기 위해 설치한 전기선을 사전통보도 없이 강제로 해체하고 문까지 걸어 잠근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일부 관공서의 개신교인 직원은 불자회에서 제공해 온 장학금조차 "사탄이 주는 것이니 받지 않겠다"면서 반납했으며, 목사들이 공공연히 부처님 오신날 법회나 거리행진(물을 뿌리는등)을 방해해 왔다는 것이다. 종교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갈등을 막아야할 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종교편향을 자행한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천광역시등 상급기관은 즉각 불교계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금융감독원 불교회 창립

금융감독원 불교신행모임이 출범됐다. 금융감독원불교회(회장 홍순우)는 15일 2층 강당에서 대승사 주지 법성스님을 증명법사로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금융감독원불교회는 지난 1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이후 30여 명의 불자들이 한국은행불교회의 도움으로 결성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경기도 포교사련 19일 창립

경기도포교사연합회(회장 김동균)는 19일 수원 북문노인회관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반야회, 수원교도소·구치소직원불심회, 수원불교청년회, 운전불자회, 경기불교대학총동문회, 수원포교당거사회, 수원시약사불자회 소속 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경기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동균회장은 "불교세가 약한 경기지역의 포교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자"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봉은사 '서원의 사랑나누기'

봉은사(주지 원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서원의 사탕 나누기' 행사와 '서로서로 마음의 등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22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열리는 '서원의 사탕 나누기'는 관욕을 마친 불자에게 사탕을 나누어주고 서원대에 꽂힌 서원 문구(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매일 108배를 하겠다 등등)를 뽑아 그 서원을 다음해 초파일까지 행하도록 권장하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접찰법회를 현대화한 행사다. 이 행사는 초파일을 국민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범행사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추위 봉축기념 토론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는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세가지 과제: 이산가족, 탈북자, 그리고 장기수'를 주제로 봉축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산가족'에 대하여 박찬봉(통일부 인도2과장)씨, '탈북자'에 대해 한창권(자유북한인협회 회장)씨, '장기수'에 대해 김성만(민족회의 정책위원장)씨가 주제발표한다. 토론에는 지현정사(진각종 사회복지재단) 정안숙(불교운동본부 사무국장) 혜조스님(불교장기수후원회 운영위원장)이 참가한다.

김원우 기자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0일 오전 11시에 대광맹인불자회 법당에서 '시각장애인 한마당 잔치'를, 3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남산1동 신라다방에서 '녹음도서 제작기금마련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수익금으로 제작된 점자경전과 녹음테이프를 전국 각 사암에 장애인 편의시설물로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복지타운 기금마련 바자회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은 횡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26~28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대바자회를 개최한다.

97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생활도자기, 불교용품, 음식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복지타운 건립기금으로 충당된다. 승가원은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연등달기 캠페인과 사찰 및 개별 후원자 발굴 등의 후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종합복지타운은 현재 토지 형질변경 인·허가 관련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02)928-0750 한명우 기자

5년째 매주 무료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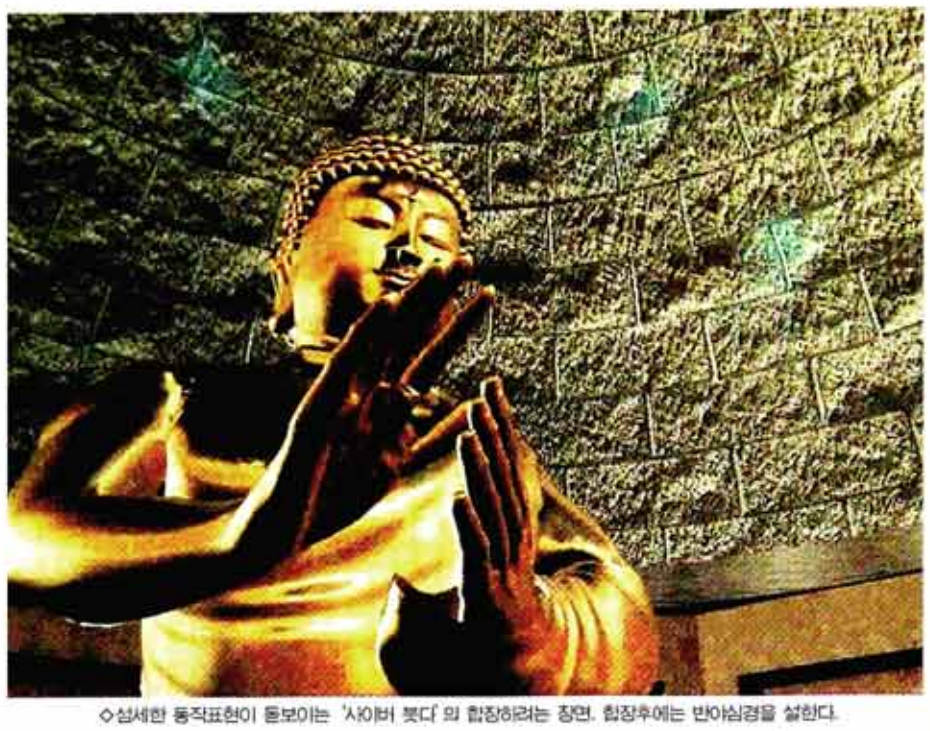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손정수)는 13일 구서동 전철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5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실시해온 총동문회는 이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로잔치를 겸한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으며, 8백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총동문회는 매주 4~5백여명분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동문회원 20여명이 당번을 정해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해인사 대장경판고로 빛을 보낸다.


◇합장하며 반야심경을 염송한다.


◇섬세한 동작표현이 돋보이는 '사이버 붓다'의 합장하려는 장면. 합장후에는 반야심경을 설한다.


◇석굴입서 걸어가는 '사이버 붓다'.


◇연좌대에서 일어선다.


◇연좌대에서 걸어나온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3D 입체 동영상 '사이버 붓다' 탄생

본사 부다피아팀 경주예술대전서 공개

"님을 저만치 우러러뵙자마자 그냥 선 채로 탈혼(脫魂)이 안된다면 한국인이 아니리라. 어느덧 공손히 두손이 모아지고 정례(頂禮)를 올리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불자가 아니리라."(박희진시인의 시 '석굴암 대불' 중에서)

통일신라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며 종교미술의 이상미를 구현한 최고의 석불로 손꼽히는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석굴암 부처님이 사이버 공간에서 재탄생되었다. 이제까지 '사이버 가수' 등 사이버 인간이 여러 곳에서 제작되었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사이버 캐릭터로 등장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굴암 본존불을 모델로 한 '사이버 붓다'를 3D 입체 동영상으로 제작해 4월30일~6월5일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99 불교예술대전 '사이버 법당'에서 공개했다.

화면 보호기(Screen Saver)로도 제작돼 일반인에게 공개될 '사이버 붓다'는 석굴암 본존불이 1300년의 선정에서 깨어나 역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대장경에 빛을 쏘아 대장경판각이 '현대불교신문'으로 변화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 모델… 불상·탑도 영상화
가상공간 전법… 활발한 법음 전파 기대

석굴암의 문이 열리고 본존불 안으로 걸어들어가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클로즈 업 된다. 이어 본존불을 왼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부처님의 상체를 올려다 보면 서서히 합장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합장한 상태에서는 반야심경이 한문 자막으로 올라온다. 이후 빛이 사방으로 방사되면 이 빛이 대장경판으로 들어간다. 상서러운 빛을 머금은 경판은 발광(發光)한 상태에서 서가에서 튀어나오며, 공중에서 현대불교신문으로 변화된다. 상영 시간은 40초다.

'부다피아'가 올 초부터 제작을 시작해 첫선을 보인 '사이버 붓다'는 상호연화좌대에 앉아 있던 부처님이 서서히 일어서며, 좌대가 아래로 내려간다. 좌대가 땅에 닿으면 부처님께서 석굴암 밖으로 걸어나가신다. 석굴암 입구에 도착한 부처님께서 오른 손을 들자 엄지손가락에서 빛이 나온다. 이 빛은 다시 해인사 장경각안으로 쏘아지고 장경각 중앙의 촛불에 점화된다. 촛불에서 빛이 사방으로 방사되면 이 빛이 대장경판으로 들어간다. 상서러운 빛을 머금은 경판은 발광(發光)한 상태에서 서가에서 튀어나오며, 공중에서 현대불교신문으로 변화된다. 상영 시간은 40초다.

'부다피아'가 올 초부터 제작을 시작해 첫선을 보인 '사이버 붓다'는 상호가 석굴암 부처님에 비견될 정도로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점차 이를 보완해 완벽한 상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굴암 내부의 부조(浮彫)와 해인사 장경각을 세밀한 부분까지 재현해 인터넷을 통해 석굴암과 고려대장경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희 실장은 "앞으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을 비롯한 불상과 다보탑, 석가탑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보급 성보를 입체영상으로 제작, 인터넷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불교 이벤트에 한국불교의 정보화 기술을 알리고 불교문화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다피아'는 또 사찰에서 전통사찰의 주요 성보와 경내지 전체를 입체영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제작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에 '사이버 붓다'를 출연시켜 경전을 음성과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불교성지를 '사이버 동자승' 등을 통해 영상과 함께 안내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쌍방통신으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불교 교육프로그램에 '사이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이버 붓다'의 출현은 또 다른 불국토인 인터넷 상의 네티즌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가상공간의 본존불로서 사랑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이버 스님' 등 '사이버 불교캐릭터'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서 불교 콘텐츠의 다양화에 많은 자극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곰과 같은 현상세계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터넷.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신망 속에서는 존재하는 '가상 공간'속에서 '사이버 부처님'의 전법(傳法) 활동이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어! 휴대폰에 법구경이 뜨네

본사 문자서비스

현대불교신문사는 6월 1일부터 '법구'와 '교계소식'을 핸드폰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본사 정보센터 부다피아는 최근 한글 텍스트를 핸드폰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문자전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영구 및 일반독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구' 서비스는 경전구절을 40자까지, '교계소식' 서비스는 교계 뉴스를 각각 매일 제공해, 독자들의 신심과 신행을 다지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영구 구독자는 핸드폰으로, 일반 구독자는 전자우편으로 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핸드폰의 경우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며, 부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02)732-1520
webmaster@buddhapia.com

톡톡 튀는 부다피아 새 메뉴

상담코너 · 영문버전 · 뉴스속보 · 잡지정보 서비스

현대불교신문사 정보센터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가 '뉴스속보' '상담코너' '영문버전' '불교잡지' 서비스를 제공, 국내·외 불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섰다.

뉴스속보



교계 소식을 매일 실시간 제공하는 '뉴스속보 서비스'는 주간단위 보도라는 교계신문의 한계를 넘어 1일 속보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선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생생한 정보를 취합, 매일 업로딩(Uproading)하는 이 서비스는 교계 뉴스의 '신속성' '현장성' '정확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자네티즌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다피아에 접속함과 동시에 제공된다.

상담코너

'이용자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정보센터 부다피아



에서 최근 개설한 서비스. 보도기사·건강·교육·법률·세무·인생·종교등 7개 분야에서 불자네티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가는 코너. 인생상담에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 건강상담에는 이근후박사(이화여대 부속병원 신경과)와 이반성원장(영재한의원), 교리상담에는 조계종 포교원과 이재열법사(유마선원장), 교육상담에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법률상담에는 수원지역법조인불자회, 세무상담에는 한국세무사불자회, 종교상담에는 이경우원장(한국새종교연구원)등이 각각 맡고 있다.

영문버전

'영문버전 서비스'는 고승법어, 뉴스속보, 부처님오신날봉축 등의 코너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 외국인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는 아직까지 한정된 코너에서 제공되지만, 앞으로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고승법어' 코너에는 현자 숭산스님 법문이 제공되며, 순차적으로 현대 고승들의 법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영역은 불교번역작가 최윤정(46)씨가 맡았다. 최씨는 〈부처님께 재를 털면〉(고려원·90년) 〈허공에 뼈를 타고〉(예하·91년) 〈바람이냐 깃발이냐〉(법보출판·92년) 등을 번역했다.



불교잡지



'불교잡지' 서비스에서는 교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월간잡지의 '목록'과 '내용'을 제공한다. 현재 〈금강〉 〈불광〉 〈여성불교〉 〈맑고향기롭게〉 최근호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불자 네티즌의 컴퓨터로 다운로딩(가져오기) 가능하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를 말한다

실시간 속보 인기
뉴욕교포 접속열풍

■미국-효원스님

뉴욕에 살고 있는 효원스님(상원사 주지, 前 뉴욕사암연합회장)이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고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상원사 법회를 찾아온 교포신도들에게 고국의 분향을 전해주는 게 포교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실 뉴욕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10여개 한국사찰과 1만5천여명의 교포불자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의 '부다피아 열풍'은 '대단함' 그 자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사토기자

재일교포 2세 사토(佐藤孝雄·30·중외일보)기자는 부다피아 뉴스 속보에서 한국불교계의 대소사를 점검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교계신문 중외일보의 기자라는 직분에서도 부다피아 뉴스속보는 놓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사토 기자는 "특히 지난해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사태 변화를 매일 상세히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교포 2세로서 한국어에 익숙하지만, 일본어버전 서비스가 개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부다피아에 온 메일

△금정스님(kumjong@mos.com.np)=부처님의 고향, 네팔에서 부다피아를 통하여 한국불교의 소식을 접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마리아수녀(jjh99@hahnnet.org)=조심스럽게 부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낯선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지만, 풍경소리와 목탁소리 그리고 푸른 한내음이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진현(나우누리 대표시샵·nowbud)=뉴스나 불교행사안내 코너를 통해 최신불교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 불자네티즌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용품 10~30% 할인판매

본사 쇼핑몰 '몰, 부다피아'
염주·서적등 1천여종 구비

가상공간에는 불교에 관한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쇼핑몰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가 만든 '몰 부다피아(http://mall.buddhapia.co.kr)가 바로 그 곳. 여기에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상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곳은 향로, 염주 등 1천여종의 불교상품을 시중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 전시장은 염주, 발우 등을 판매하는 '불교용품'과 조형물, 탱화 등을 공급하는 '불교미술' '불교서적' 코너로 나눠져 있으며, 정상가와 할인가, 상품 설명 등이 사진과 함께 제공된다. 또 '식품' 이외에 도자기, 목공예, 포구, 문방사우 등을 판매하는 '전통공예'와 '서화분구' 코너도 개설돼 있다.

상품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모든 상품을 품목과 가격별로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회원에 가입하면 구입하는 상품의 3%를 적립해주고, 적립금이 3만원 이상 되면 누적 금액만으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은행계좌이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제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된다.

몰 부다피아는 교계소식, 해외 불교상품보기 등 불교정보도 제공하며 네티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천불전 법당' '사랑방 소식' 등도 마련돼 있다.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제 223호 21
서기 1999년 5월 19일 수요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02)732-1522
http://mall.buddhapia.co.kr F. 02)737-0697

싯달타연못에 마음씻고 "봉축"

룸비니동산의 부처님오신날

본지 고영배 사진기자 '부처님의 고향 가다' ㊤

4월 30일, 네팔의 부처님오신날(네팔력 1월15일)이다. 룸비니 동산의 아침은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새소리로 가득했다. 망고나무 숲길이 펼쳐진 룸비니의 봉축행사는 인근 사할 신도들의 퍼레이드로 시작됐다. 부처님을 모신 작은 트럭을 앞세우고 그 뒤를 세계 각국의 스님과 신도들이 줄지어 따르며 아기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 전통악기로 연주하는 흥겨운 찬불가와 염불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불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 부처님의 고향에 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

마야데비 사원터의 정비는 잘 되어 있었지만 식당과 상점등의 부대시설이 부족했다. 정부의 자금과 기획력 부족으로 성지순례지 정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순례자 들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마야당 자리는 발굴작업중 이어서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발굴현장을 법신스님(룸비니 대성석가사 주지)의 도움으로 네팔측 발굴단장인 바산타 비다리씨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부처님 모신 트럭 앞세우고
스님과 신도들 뒤따르며
아기부처님 오심 축하
흥겨운 찬불가 염불소리
망고나무숲은 환희 가득

그곳에서 아기부처님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돌을 볼 수 있었다. 이 돌은 일본 발굴조사단의 켄조 탕에(Kenzo Tange) 박사에 의해서 지난 97년 12월 1일 발견됐다고 한다. 그뒤 7개의 돌도 발견됐는데 이날 첫번째 돌만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기자에게 처음 공개한다는 말에 기대와 흥분이 앞섰다.



◇스투파 중앙에서 발견된, 아기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면서 탑았다는 돌. 한국언론으로는 본지가 첫 공개.

아기부처님께서 첫발을 내딛으셨다는 돌 앞에 서는 순간 "아~" 하는 기쁨과 감탄을 감출 수 없었다. 전율과 감동의 시간을 뒤로한 채 밖으로 나오니 따가운 햇살 속에 룸비니 동산이 새롭게 다가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순례자들은 마야데비 사원의 부처님 탄생 장면을 부조한 돌에 향, 꽃, 초 등을 정성스럽게 공양하고 있었다. 마야데비 부인이 출산 후 목욕을 했던 싯달타 연못에서는 순례자들이 머리와 얼굴에 성스럽게 물을 바르고 있었다. 마치 성수로 마음을 씻는듯 했다.

오후의 순례를 마치고 별이 쏟아져 내릴듯 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연등이 켜진 룸비니로 향했다. 연등은 한국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종이로된 사각등으로 만든 것이었다. 등은 서울 대각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도들에 의해서 네팔로 보내진 것이다. 화려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저마다의 정성과 감사의 빛을 밝히고 있었다.

새벽날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다시 느끼고자 룸비니를 찾았다. 밝아오는 태양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추듯 어둠을 밝게우고 있었다. 광화스러운 룸비니를 거닐다 한곳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서 가장 뛰어났다. 삼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큰 법구름을 베풀어서 큰 법비를 내려 장차 안락케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탄생 게송이 귓가에 들려오는듯 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룸비니동산에서 개최된 퍼레이드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봉제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등으로 장엄된 아쇼카석주.

협찬: 대한불교예술원 (0357)542-3296



◇싯달타 연못에서 순례자들이 머리와 얼굴에 물을 바르고 있다.



◇마야당 부처님탄생 부조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 모습.



▲한국의 신도들에 의해 밝혀진 1만 연등이 마야데비사원 싯달타 연못에 드리워진 모습.



▶ 부처님의 자비처럼 느껴지는 마야데비 사원의 일출.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이땅에 오신다면 소외되고 삶에 부대끼는 어려운 곳을 찾아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나누는 보시행은 육바라밀중 첫번째로 불자들이 필히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기에 소개하는 네곳뿐 아니라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곳을 찾아나서는 보시바라밀을 실천합시다. 물질적인 보시도 소중하지만 부처님가르침이 가득 들어있는 현대불교신문을 법공양 한다면 더욱 좋은 봉축선물이 될 것입니다. 1000원의 적은 돈으로도 희망과 행복,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부처님 여기도 와 주세요

통일안국사

고아 25명 보금자리
영어·컴퓨터 과외 걱정

의정부시 호원동 223번지. 2층짜리 조립식 가건물로 이뤄진 조계종 통일안국사. 2층 법당과 1층 27평 공간에는 비구인 주지 지산(智山)스님이 20개월된 아이부터 초·중·고생 25명을 돌보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 아빠스님의 팔과 다리에 매달리려고 수시로 울고 보챈다.

아이들의 장난 받아주고 숙제점검, 잠자리를 보고 나면 11시가 넘어야 취침이 가능하다. 아침에도 4시 예불을 마치고 자원봉사할머니(76세)와 식사준비하고 도시락 싸서 학교보내고 집안청소와 빨래를 하고 나면 오전은 잠깐이다. 스님은 10년동안 버티게 해준 살림밑천인 1천평에 심은 3천그루의 나무묘목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는 일로 오후를 보낸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나를 보고 웃을때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천진난만한 부처님들에게 배우고 살지요"

지산스님은 우연히 부모가 이혼하여 돌보기 어려운 갓난아이를 맡게된 것이 계기가 돼 90년부터 10년째 오갈데 없는 아이 25명을 기르는 아버지가 됐다. 그린벨트지역 남의땅을 임대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스님 걱정은 다른데 있다.

이곳 아이들도 영어, 컴퓨터, 피아노등을 배우고 싶어하지만 엄두를 낼수 없기 때문이다. 0351) 876-2235.



◇따뜻한 오후 지산스님과 아이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제일은행 641-20-383234 정경택.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진주 성양원

결핵환자 20명 수용
법당·요사채 수리 '꿈'

진주에서 30여분의 거리인 명석면, 마을에서 외떨어진 산중턱에 자리한 성양원(주지 정혜)은 불교계에서는 하나뿐인 무의탁결핵환자 무료요양원이다.

처음 성양원은 결핵환자였던 원정 스님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네 사람을 모아 시작했으나 몇 개월후 입적하자 공주결핵병원 법당에 있던 정혜스님이 맡게 됐다. 그 이후 마산, 공주 결핵병원의 무의탁 환자들이 부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 이제 식구가 20여명으로 늘어났다. 10년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2명을 비롯 30대에서 70대의 결핵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가빠오는 숨을 가다듬으며 하루 세 차례 예불을 빠짐없이 드리며 차일 따기등의 일과를 보내고 있다.

폐질환의 특성상 완전한 회복이 힘들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드물다. 성양원을 떠나는 경우는 죽음이 유일할 정도. 작년에 세상을 떠난 결핵환자 2명을 비롯 정혜스님과 성양원 식구 모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12사람의 눈이 되었고, 시신 4구를 영남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환자를 돌보다 세 번이나 쓰러져 결국 자신의 한쪽 폐를 떼어낸 정혜스님은 금방 쓰러져 갈 듯이 보이는 법당을 바라보며 "어렵게 마련한 법당과 요사채를 수리하고, 식구들이 건강을 회복할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될텐데…"라고 말문을 흐렸다. 0591)44-2181



◇성양원 식구들이 연꽃을 만들고 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소녀가장 지현이네

삼남매 근근이 생활
동생들 등록금 걱정

서울 성북구 길음1동 길음시장 뒷편 단칸방에는 정지현(협성대 사회복지1), 소현(동구여상2), 지훈(7세) 삼남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들의 끔을 키우고 살고 있다.

3년전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이들을 남겨둔 채 어머니조차 소식을 끊었다. 등회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어린나이에 두동생을 보살피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결코 쉽지 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현이는 올해 수원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부(야간)에 어렵사리 입학했다. 부모없는 아이들이란 소리 듣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지현이에게 동회와 학교에서 1학기 장학금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지현이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다음달에 동생 소현이의 등록금을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2학기 등록금 마련도 막막하다. 또 내년에는 막내인 지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지하철 가판대 신문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현이는 요즘 또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힘들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02)919-5375



◇소녀가장 지현이네는 단칸방이지만 꿋꿋이 삶을 개척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북한 경수로 연꽃회

북녘땅서 매주 법회
법사·교재없어 어려움

지난 1년사이 분단된 남과 북은 금강산유람선이 으고갈 정도로 발전했지만 북녘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멀기만 하다.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꽃회(회장 김경철). 회사측에서 마련해 준 10평짜리 콘테이너 법당에서 석굴암 본존불 사진을 걸어 놓고 17명의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 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끌어줄 지도자도, 마땅한 불교자료도 없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연꽃회는 올해도 북녘땅에 부처님 오신 큰 뜻을 기리는 연등을 밝힌다. 이미 남한에서 연꽃잎과 줄전구 구입해 틈틈이 연등 100개를 만들어 법당 안팎을 장엄했다.

연꽃회는 22일 오전10시 봉축 법회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는 17명의 회원이 콘테이너법당에서 정군, 시공단 사무실, 법당을 돌며 제등행렬을 할 계획이다. 연꽃회 김경철회장은 "최근 공사현장에 새로운 인력이 새로 투입되면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당에 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들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자체적으로 불자회를 운영중인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 연꽃회 회원들이 법당에 모였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

후원자 명단

간중흠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복복지관 강성묵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옥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정희 강종남 강종남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공광근 구진모 구필희 권갑남 권계순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성령 권 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진 권옥숙 권옥순 권은경 권진순 권치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정 김근상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문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김두영 김둘남 김목인 김명덕 김명옥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정 김범수 김병서 김병석 김병선 김병숙 김병애 김병임 김병주 김복남 김분순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영 김애란 김에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경 김연옥 김연봉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심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옥련 김옥선 김용구 김용범 김용준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화 김은성 김은중 김은한 김은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선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창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주곤 김준만 김준모 김준영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원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 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 호 김호영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환수 김환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나숙희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남하지 남하자 노민호 노유택 노은택 노진희 노창순 노혜숙 녹원화 논산신도회 명형관 도유희 도재관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님 류조창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민하식 박강숙 박경남 박경례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광용 박광호 박구숙 박금숙 박남순 박내순 박명의 박무순 박미정 박봉주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순덕 박순특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자 박영우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은기 박은주 박일향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박정화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형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찬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정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방순하 배경숙 배등급 배병진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실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백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본사직원 본원신도 본원익명 봉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원 사당5동지원 상미숙 서경자 서귀연 서말희 서명희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용 서옥경 서울은행 서은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희선 서충우 서형관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현지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묘경 성민자 성재영 성원제 성효승 소진임 손관지 손금화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인화 손장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복희 송성의 송양숙 송연숙 송안영 송정구 송팔재 신경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애 신순희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은진 신재철 신초현 신진임 신태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영 심단희 심묘희 심보희 심성학 심원희 심일희 심순자 심향숙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양명덕 양영애 양은숙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염남주 염정임 영등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희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만 오형희 오희숙 용산구법법회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지원 원정욱 유강수 유금자 유미양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택 유재훈 유정연 유정용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미희 윤병창 윤병혜 윤상분 윤석범 윤 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하 윤준상 윤지용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남심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번택 이병규 이병민 이병진 이보경 이복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규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호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애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승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일순 이장덕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준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훈 이춘자 이필순 이현숙 이현주 이현희 이혜숙 이혜옥 이혜진 이혜숙 이화숙 이희영 이효순 익명 인천 신행회 임경희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재순 임종미 임채원 임춘심 임혜순 임형대 임흥만 입회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옥 장점 장정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혜기 전갑임 전계연 전병임 전복순 전상우 전순남 전순자 전승현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호 전정순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향 정미희 정민아 정현순 정분선 정상준 정상열 정숙남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은옥 정은옥 정은채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숙 정필수 정필순 정하선 정혜정 정혜택 정현동 정흔채 조경자 조귀지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분옥 조상호 조승우 조약식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완희 조유복 조은숙 조은효 조은미 조인자 조정현 조혜숙 조혜연 주우순 주인공 지로봉사모임 지순임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영화 진옥례 진묵상 진환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수향 차용욱 차점순 차천주 차희자 채희순 천재경 천현숙 천현숙 천희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자 최경진 최광례 최명희 최명순 최명연 최복내 최복순 최상철 최서운 최석원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운 최정희 최주헌 최행선 최형선 최형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타행납부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석남 하순임 하홍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배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자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명덕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재승 허정남 허종환 허찬웅 허학연 허희숙 허재승 허정남 허종환 허찬웅 허학연 허희숙 현수천 현원스님 현주원 혜원당 홍기장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순아 홍영준 홍영호 홍인자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정숙 황정옥

법보시 동참방법

현대불교신문은 기르침의 사각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 교민시설을 대상으로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 상 처: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해외교민 시설
■동참방법: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제일은행 100-20-560799
서울은행 15501-226911 농 협 053-01-236053
뱅크라인 50-01-124050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없이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02)737-8881 · 722-4162



◇1972년 남산에서 열린 봉축행사는 세계평화기원대제로 열렸다.(사진제공=봉축위원회)

되돌아본 초파일 봉축 100년

해방전 국민의 명절
해방후 교계 행사로

1900년대 마지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근세 100년동안 불교최대명절 부처님오신날을 총 결산한다. 그때 그시점 부처님오신날 표정을 돌이보며 2천년대 부처님오신날의 좌표로 삼는다. 〈편집자 주〉

해방전

▲1914년-해인사 불탄절 기념으로 2만연등회 개설. ▲1921년-석가탄신일을 명절로 기념합은 물론 관등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렀다. 국상이후 3년 만에 열린 사월초파일 행사. ▲1923년-조선불교대회에서 석존강탄축하식 거행, 활동사진 영사. ▲1925년-각황사 석탄일 기념식에서 석가여래 사리배관식 봉행. ▲1927년-불교중앙교무원 법요식 거행. 소속단체 회원이 총출동해 선전지 3만매 배포. 각황사에서 관불회 관등의식 등 봉행. ▲1932년-석존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및 경성동맹이 주최하는 기념강연 및 '아란과 마등가' 등 연극 공연. ▲1933년-불교교무원에서 불교총동맹 주최로 5월1일부터 2일 양일에 거쳐 기념식 거행.▲1934년-경성제국대학 불교청년회 불탄2500년(구 불기) 기념 조선불교 전적전람회 개최. ▲1936년-조선불교중앙교무원 주최 강연 및 연극 공연. 나남 관북불교회는 명성학원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극대회 개최. ▲1938년-석존강탄기념 봉축회 성탄기념식 거행. 총독부의 방침으로 양력 4월8일에 개최키로 함. ▲1939년-불타제전 봉행회 주최로 불타탄생 봉축식 거행. 저녁에는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방전도(路傍傳導)함. ▲1940년-경성부청앞 파고다 공원 및 경정(京町) 광장에 만든 석존당에 모여 배례를 드림. 부민관에서 경성불교아동연맹의 아동대회 등 개최.

해방후

1947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요식을 비롯해 세존강탄경축회, 한글경전전시회, 강연회, 음악회 등 다양한 불교행사를 개최했으나 국민의 명절에서 불교계의 명절로 많이 축소된 분위기였다.

1955년에는 대처측 총무원과 비구측 선학원이 분리되어 봉축 법요식을 따로 봉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총무원 측은 창경원에서 석가세존 탄일을 축복했고, 선학원은 조계사에서 불전 예식을 거행했다. 또 조계사에서 종로3가 을지로3가 시청 앞을 지나 안국동을 돌아 조계사로 가는 제등행렬을 벌였다.

1957년에는 조계사에서 관불식을 거행하고 각 사찰에서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1958년에는 조계사에서 관욕식 및 봉불식을 거행했다. 오후8시부터는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고 10대의 트럭을 동원한 제등행렬을 개최해 서울의 밤거리를 색색의 연등으로 화려하게 수놓았다.

1959년 부처님오신날에는 조계사에서 법요식을 갖고 찬불가 승무 등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날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오후8시부터 10시까지 두차례에 걸쳐 종로 을지로 광화문에서 봉축 가두방송과 더불어 코끼리 등 장엄물이 등장하여 개최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1960년은 4.19의거로 인해 관등행렬이 허가가 나지 않는 아픔을 겪었다.

1962년에 발족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듬해

1963년 총무원이 주최하는 봉축 법요식을 조계사에서 열었다.

1966년에는 부처님오신날 전야제 행사로 주한외국인 26명이 참석한 법회를 조계사에서 가져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인 27일에는 봉축 법요식을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봉축문을 낭독해 화제가 됐다. 조계사까지 제등행진을 하고 종묘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전국 그네대회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967년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도량석을 돌 듯 새벽에 탑골공원 조계사 일대를 돌며 가두독경행사를 연출했다.

1968년에는 총무원이 4월초파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통일을 했다.

1969년 2월에는 불교 13개 종파가 대표자 회의를 열어 4·8 공휴제정운동을 결의했다.

1972년에는 서울시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4·8 봉축탑을 건립 첫 선을 보였다. 1974년 제등행렬은 동국대에서 시작해 조계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됐는데 때마침 남한에 머문 북한 사절단이 볼 수 있었다. 1975년 1월14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로 제정됐다. 공휴일이 된 첫 부처님오신날인 5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불교예술대전이 11일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개최됐다. 1976년 5월1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제등행렬은 6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강연회 개최 이후 열렸다. 1979년 분규를 겪던 조계종이 조계사 개운사 총무원이 각각 주최해 별도의 봉축 법요식을 개최했다. 서울을 위주로 열리던 제등행렬이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

1980년 5월21일은 불탄일 범불교연합봉축행사가 조계종 분규로 취소됐다.

1981년 5월11일 부처님오신날에는 통금을 해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재소자 5백87명이 특별 가석방됐다.

1982년 범종단 차원의 제등행진을 처음으로 벌였다. 18개 종단 20만 불자가 참여하는 제등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1914 해인사 2만연등 개설
1968 부처님오신날 명칭통일
1975 초파일 공휴일 제정
1982 범종단 첫 제등행진

1984년 18개 종단 대표가 참가해 '나라와 국가원수를 위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 1989년 부처님오신날은 봉축 제등행렬이 무장경찰에 의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사에서 경찰 폭력 만행 규탄 및 불교자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91년 여의도에서 시작된 제등행진 때 비구니스님과 어린이들의 행렬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20일 최루탄 발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김수환 추기경이 '용서와 사랑이 곧 자비'라는 봉축 메시지를 방송 화제가 됐다. 24일에는 제등행렬 최루탄 발포에 대한 시경국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25일에는 불교탄압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조계사에서 열려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1993년 부처님오신날부터는 문화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졌다. '화엄경 선재동자' '탈속' '사모곡' 등 불교연극을 비롯 전시 강연 국악공연 등이 다채로웠다. 또 여의도에서 열리던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져서 개최됐다. 1995년 다시 여의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및 대법회를 봉행했다. 5월5일 조계사에서 첫 외국인 노동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봉원사는 법요식 후 고려시대 전통시장인 난장을 재현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1996년 제등행진이 다시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졌고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종로통 곳곳에서 거리 연등축제를 시민축제로 열었다.

〈자료:한국현대불교사일지 ·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권선의 글 "보시로 정토 가꾸자"

작은 베풂이 어둠 밝게하고 세상 훈훈하게



성열스님
강남포교원 원장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건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이들도 곳곳에 있어 이 사회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주인공들을 보면 대개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서 큰소리치던 이들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존경 같은 것은 아예 거리가 멀었던 이들인 경우가 많다.

남보다 많이 배워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제몫을 더 차지할까 하고 예나 지금이나 자리 다툼하기 바쁜 것이 보통인데 비하여 남이 자신을 알아주건 말건 관계하지 않고 묵묵히 제 위치에서 제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가며 알뜰히 저축해 온 것을 아무런 미련 없이 사회에 희사하는 것을 보면 삶의 가치와 보람이 무엇인가를 생각케 한다.

남의집살이를 해 온 사람, 젊어 가족과 헤어져 삯바느질을 해온 이들, 넝마를 줍고 거리를 청소하던 이들, 간판도 없는 가게를 꾸려 왔던 그런 분들이 알뜰하게 저축해 온 전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인생을 부자로 산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이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어둠을 밝게 하고 삭막함을 훈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런 행위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으로서 보시행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만났을 때 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네주는 마음씨 그 어떤 베품에 못지않다. 실의와 좌절에 빠진 이에게 용기와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말 한마디도 훌륭한 베품이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역시 그 무엇에 못지않은 베품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 밝은 미소를 짓는 것도 베품이요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 보다 남을 칭찬하는 그 자체도 크나큰 베품이다. 남이 말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베품이기는 마찬가지다. 남들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나 행동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심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 베품은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정신적인 것들까지도 물량화하고 수치화 하려는 버릇이 있어 믿음의 세계까지도 세속화시켜 버리고 있다. 종교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요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수치로 따지고 계산하려 하니 타락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려는 것이 어리석은 범부들의 짓이라 말씀하셨으리라.

폭풍우는 사람들을 집안으로 몰아넣지만 훈훈하고 따스한 바람은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듯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명을 주고 존경해 마지않게 하는 선행은 세상이 놀랄 만큼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거짓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선행들이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으며 남이 그것을 가지고 칭찬이라도 하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작은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어쩌다 별러 가지고 하는 선행은 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을 힘들게 했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 하기 쉽다. 좋은 일 하고 나선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속이 상하게 되니 그의 좋은 일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 못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그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기 바라지 말며 좋은 일한 체하지 말라고 하였던가.

좋은 일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의 좋은 일은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사실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큰 일은 위선이기 쉽지만 작은 일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맞는다. 그날이 한낱 연례행사로 그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오시는 날이 되기 위해서라도 작은 베품을 실천하도록 하자.

나누며 사는 사람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 하지만 나누면 그만큼 가벼워진다. 〈증일아함경〉에 "보시하는 마음에 부처님 만나고 구제받는 인연 맺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보시 받아 무거운 짐을 더는 사람들과 보시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부처님말씀대로 극락정토를 만들어가는 보살들이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시를 생활화하며 정토를 가꿔 나가는 불자들을 소개하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책보시 10년 이경희씨

사찰·학교등 곳곳에 7만6천여권 기증



충북 청주에 사는 이경희 보살(50)은 며칠전 창원 해인선원에 책 2천권을 보시했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보살들이 힘을 합쳤다. 이렇게 책보시를 시작한지 벌써 10년째. 보시한 책만도 7만6천여권이나 된다. 주로 보시하는 책은 금강경, 천수경 등 경전을 쉽게 풀어쓴 것들이다. 그밖에 스님들의 법문집이나 불교소설도 읽어볼만하다고 판단되면 보시목록에 끼워넣는다.

이보살이 책보시를 하게 된 것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수효사의 성훈스님(90년 입적)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문서포교'라는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고나서부터였다. 지금까지 책을 보시한 사찰은 해인사, 수덕사 등 전국 각지 30여곳. 물론 해군사관학교 등 각급학교 및 단체들과 불자와 비불자를 포함한 개인은 기억조차할 수 없이 많다. 이보살은 매달 10~15만원어치 불서를 사서 보내준다. 이 돈은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한 것이다.

"보시한 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신심깊은 불자가 돼가는 것을 보고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책을 변변히 갖춘 사찰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한명우 기자

불우청소년 돕는 윤종성씨

셋방 살면서도 연금모아 장학사업



의족을 한 채로 매일 오토바이 한 대로 부산 가로를 누비는 윤종성거사(68)는 회원이 자기 하나뿐인 용두산 장학회 회장이다.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그는 80년부터 국가유공자 연금으로 매월 나오는 2십4만5천원을 적립해 매년 3백만원을 30여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처음 용두산에서 그 장학금을 지급한 계기로 스스로 용두산 장학회라 이름붙였다. 그는 신문팔이부터 볼펜, 껌팔이까지 밑바닥 궂은 일을 전전한 아픔과 국가를 위해 몸바친 대가로 얻은 연금 모두를 털어 내고 있다. 스스로는 아직도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살면서도 그는 그 장학금을 나누어주며 당부한다. "이 돈은 다른 사람의 천만원, 일억보다 귀중한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대가로 받은 것이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너희들에게 마음의 힘이 되었으면 한다."

부인을 따라 전국의 사찰을 참배하는 것도 그의 주요한 생활의 일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 놓는다.

천미희 기자

병원법당 봉사 박영숙씨

매일 13개 병동 돌며 환자돕기 8개월



박영숙 보살(44)은 부산대학병원 법당에서 그 원을 이루었다.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법당에 나와 부처님을 뵙고 법당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맞이한다. 오후에는 1층에서 10층까지 13개 병동을 빠지지 않고 돌아보며 경전을 읽어주고 불교서적도 군하며 환자들의 마음에 불법의 불씨를 당겨주고 있다. 처음에는 선뜻 응하지 않던 환자들이 참된 불자가 되어 부처님께 귀의, 병마와 싸워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8개월째에 접어든 병원봉사는 10대 후반에 악성 관절염을 앓아 죽게 되었을 때 부처님의 가피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보은의 기회로 여기고 선뜻 환자들의 고통에 하나 되었다. 그러나 박보살의 철칙은 환자들을 절대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느 봉사자에게나 꼭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이라고.

"봉사자가 와도 며칠 일하다 그만두곤 해서 안타까워요. 전문적인 간병봉사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많이 나와 지속적인 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박보살은 불자라는 사명감이 확고한 봉사자들이 환자의 80%가 불자인 부산대학 병원에서 참다운 봉사를 펼칠수 있길 발원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차보시 20년 박동춘씨

직접 차 따고 덖어 '다선일미' 공유



과천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당을 운영하면서 올해로 20년째 사람들에게 차를 보시해오고 있는 박동춘씨(48). 박씨의 차(茶)보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이 직접 제조한 차를 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차의 우수성과 다도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다도법으로 좋은 차를 마시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느끼게 돼요."

박씨는 해마다 4월이면 전남 승주 송광사 인근 광천에 내려간다. 그리고 이곳의 차밭에서 직접 차를 따고 덖어서 완제품을 만든다. 이토록 어렵게 만든 차는 아무런 댓가없이 주위사람들과 지인(知人)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박씨에게서 차를 보시받는 사람들은 1백여명에 달한다. 처음 보았더라도 차에 관심을 갖고 차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박씨는 주저없이 자신이 만든 차를 나눴다.

박씨가 만든 차는 워낙 맛이 좋아 주위로부터 팔아보라는 권유도 있지만 한사코 거절하고 있다.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자신이 만든 차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부처님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한명우 기자

무료 사물강습 김청자씨

북치고 장구치며 노인들 웃음잔치



김청자 보살(59)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노인들의 흥겨운 웃음이 함께 한다. 김씨는 4년 전부터 인덕노인학교와 독립문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며 민요와 고전무용, 사물(四物)을 무료로 가르쳐 주며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적적하게 보내는 노인들에게 우리가락의 흥겨움을 가르치고 함께 어깨춤을 추면서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가 이같은 보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은 96년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국악강좌를 수강하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과 뜻있는 일을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바쁜 일상속에서도 1주일에 한 두번은 꼭 시간을 내서 경로당이나 노인학교를 찾는다.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사물놀이를 배우면서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볼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만의 견성을 위한 불교이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포교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씨는 파고다공원에서 노인무료급식과 노인 위안잔치도 벌일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결식아동 돕는 박미희씨

점심 거르는 아이들 정성어린 밥 한끼



"점심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소외감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죠."

지난 4월24일 대구 남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大바자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미희씨(38·달성중학교 영양사)는 신심깊은 불자다.

박씨는 대구시내 초중고교 영양사 1백70여명이 참가한 이 바자회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아 총 2천6백만원을 모금해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초등학교 영양사로 재직하던 90년대 초부터 결식아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박씨는 주변의 영양사들과 '1인1결식아동 결연맺기' 운동도 벌이고 있다. 박봉을 쪼개 월 2~3만원의 급식비를 대납하는 것은 물론 결식아동과의 대화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

박씨는 "결식아동은 배도 고프지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며 물질적인 도움외에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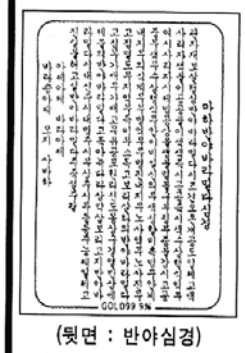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처럼 불쌍한 일도 없을것"이라는 박씨는 현재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빈곤가정의 어린이도 보살피고 있다.

이윤호 기자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영업부 : 02)877-6090
·FAX : 02)876-3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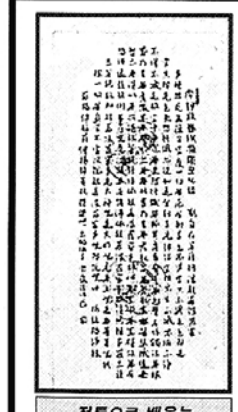
滴天髓闡微
적 선 수 천 미
上·下 (卷)완결판 芮光海 譯
명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바른 길이 있으며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써 올바르게 行할 수 있으니 흥미로움에만 관심을 두어 뭇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출처(出處)도 근원(根源)도 알 수 없는 허황된 말들만을 나열한 그릇된 冊과 이러한 글을 배우고 익혀 잘못된 논리에 젖어든사람의 말에 이끌려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의 辯에서-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上₩下각권 20,000원
통신판매 예금주 서 찬 배
·조흥은행 436-04-054683 ·국민은행 833-24-0147-067
·서울은행 39807-0602412 ·축 협 047-11-12095-316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02) 387-8429, 2264-5139

행운의 순금 달마도

(앞면 : 달마도)

(뒷면 : 반야심경)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님의 작품을 99.9% 순금카드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TV방송에 증명된 수맥차단과 기(氣)발산의 신비건강, 사업번창, 부, 명예, 사랑, 운전사고 예방 효험을 이젠 당신의 품속에 간직하시고 느껴 보세요!

구분	크기	판매가	비고
대	5cm×7.5cm	20,000원	일반 카드
소	3cm×5cm	15,000원	크기 지갑
대+소 Set		35,000원	소지용

부처님오신날 선물
특별보급가
20% D.C(大小)Set
₩28,000
※스님 또는 불자님들의 보시용으로 최고상품
※다량 주문시 원하시는 그림 문안 넣어드립니다.
대형액자 순금 달마도 상담환영
행운의 스티커 순금 카드
(실용·신안 등록원 제24266호)
전국우편배달 :5일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제조판매원 : 한국지·앤·씨
우:130-072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2-22(안약국 B/D 203호)
TEL. (02)926-7315~6
(02)927-336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얼굴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아)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믿음 확고…교리이해 실천 부족

'21 세기'라는 말이 인류의 화두가 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혼돈과 희망의 교차점에 서 있지만, 불자들의 지향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깨달음에 이르는 것에 있음은 당연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연구원과 현대불교신문은 오늘 우리의 신행을 점검하고 21세기 한국불교 신행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주〉

현대불교신문사 · 한국불교연구원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

바른삶 위해 불교신행 72%
30~40대 입문 54%
연령층별 포교대책 세워야

불자들 10명 가운데 7명은 체계적으로 교리공부를 했으면서도 교리의 체계적 이해와 이웃을 위한 보시의 실천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사회봉사를 중요한 신행활동으로 여기고 있다. 응답자의 82.7%가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찾았다. 이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가 실시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보살행 실천 프로 시급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능을 나누는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18.5%의 응답자들만 그렇다고 답했다. 어쩌다 실천한다거나(44.5%)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응답이 27.6%에 달해 보시바라밀을 실천키 위해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관심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직능모임의 구성과 법률 의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의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재가오계는 대부분 지킨다(18.7%)거나 지키려 노력한다(76.8%)고 답해 거의 모든 불자들이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부분 지킨다는 응답자 가운데 여성불자들의 비율이 남성불자의 2배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통해 불자들은 평소 신행활동을 주로 법회 참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찰과 불교단체의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질문(복수 응답)에 법회 참석은 67.2%, 경전독송 · 교리공부 54.5%, 염불 35.1%, 참선 20.2%, 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 15.8%, 포교 9.8%의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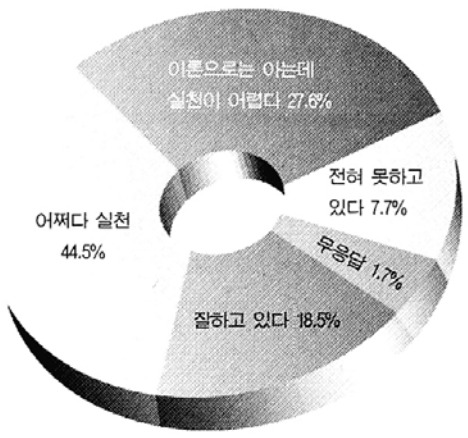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수행과 신행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 교리공부(63.2%)와 사회봉사(54.3%)에 비중을 두었다. 즉 불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자비실천을 불교인의 큰 덕목으로 꼽은 것이다. 이어 참선 · 염불(34.1%), 법회 등 사찰행사 참여(33.3%), 합장 발우공양 화장 등 불교의식의 생활화(23.5%), 전법(20.0%)의 순으로 중요도를 매겼다.

개종 생각 한 일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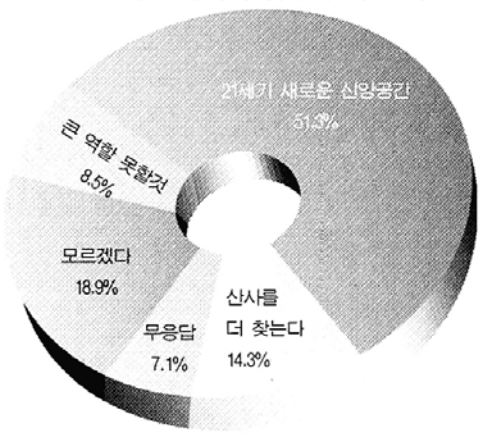
개종에 대해서는 86.3%의 응답자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68.4%의 불자들이 자녀를 사찰에 보내고 있거나 보낼 예정이라고 답해 불교인들은 불교를 믿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신념을 보였다.

기복적 요소도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주 · 관상 · 점을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보겠다거나 수시로 본다는 응답이 12.1%에 그쳤다. 10년 전 같은 질문(불교신문)에 42.8%의 불자들이 응답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월간 〈여성불교〉가 지난 1월 여성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시 바라밀 실천



■인터넷 사이버 법당에 대한 의견



"반야심경 이해" 40%

그러나 교리 이해의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드러냈다. 전생과 윤회를 믿는냐는 질문에 55.9%의 응답자들이 믿는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믿는다는 불자가 37.6%에 이르렀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업을 쌓고 이 업이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게 나타났다.

윤회를 믿는다고 응답한 290명의 입문 경륜 분포를 보면, 5년 미만 58명(20.0%), 10년 이내 109명(37.6%), 20년 미만 72명(24.8%), 30년 미만 24명(8.3%), 40년 미만 12명(4.1%), 50년 이상 7명(2.4%)으로 묵은 불자일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를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72%를 차지했다. 견성성불이 신행의 이유라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불과했다. 불교신행의 근본이유가 견성성불에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깨달음을 스님들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의식 때마다 봉독하는 반야심경의 뜻을 이해(39.9%) 또는 반쯤 이해(46.2%)하고 있었다. 13.9%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불교사상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응답자의 46%가 반쯤 이해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반야심경 이해도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불자들이 69.9%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기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63%).

신행 정례화 확산

불자들의 불교입문 시기는 30대가 30.1%, 40대 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문 시기가 30, 40대에 주로 몰려 있음은 인생의 여러 경험을 거치며 불교를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불자가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74.4%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답과 이어진다. 즉, 30~40대에 이르러 불교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부모, 친구, 배우자의

지성화 뚜렷…이타행 미흡

설문결과 평가



정병조 〈동대 교수 · 한불련 이사장〉

과거의 불교인들은 흔히 '기복성'을 그 특징으로 꼽아왔다. 특히 이기적 기복성은 호국불교의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조사대상자의 82.7%에 달했다. 또 재적사찰이 있다는 응답자 또한 71.3%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경전을 접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리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은 형태의 맹목적 불교관 대신에 뚜렷한 불자로서의 자기 확신이 나타난다.

신행경륜과 신심 불일치

흔히 오랜 신행경륜이 굳건한 신심과 정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사찰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또 어느 정도 보시를 하는가하는 문항에 대해서 갈 때마다 한다는 대답은 절반 수준인 56%였다. 이들 대상자들의 신행연륜을 분석해 본 결과 불교입문 5년 미만이 25% 10년 미만이 35%였다. 30년 이상은 6%, 40년 이상은 4%에 불과했다. 즉 갈수록 보시정신이 퇴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고, 불교나름의 무주상보시에 대한 확고한 인식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참선 20%, 염불(기도) 35%, 경전공부 54%, 사회봉사 16% 등이었다.

교리공부 여전히 필요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이들 신행활동중 여럿을 겸수(兼修)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양한 불교신행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호국의 불교가 종파주의를 지양(止揚)해 왔다는 불교학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있는 통계수치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행생활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교리공부(63.2%)를 들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사찰들이 여전히 교리공부에 등한시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래의 법회운영은 이와 같은 대중심리를 적절히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교교리의 핵심은 윤회설이다. 그러나 윤회를 믿는다는 불자는 56%,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어정쩡한 대답이 38%, 아예 안 믿는다는 대답도 6% 정도이다. 이 점은 불교신행 동기와 맞물려 해석이 가능하다. 즉 견성성불을 목표로 한다는 대답은 22%에 불과하였지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72%였다. 이점은 한국의 불자들이 지성화되었다는 반증이면서 동시에 이타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증거이다.

오계를 받은 수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연 재가오계를 어느정도 지키는가 확인해 보았다. 예상대로 지킨다는 이들이 19%뿐이었다. 지키려 노력한다는 응답이 76%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가불자들이 그와 같은 성향속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키려는 노력이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어기고 있다는 뜻도 된다. 그 가운데 지킨다는 응답자를 성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응답자 대비하여 남성은 12%에 불과하였지만 여성은 근 두배에 가까운 23%였다. 따라서 윤리의식의 면에서는 여성불자가 단연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의 불음주(不飮酒)가 여성쪽에 강력하게 유리했을 개연성은 있다.

한국불교 미래 긍정적

우리나라에 종교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0%였다. 즉 많은 불자들은 여전히 서양종교의 극성스러운 선교전략에 대해 회의와 비판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72%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점은 국수주의(國粹主義)적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종교인 불교에 대한 만족도로도 볼 수 있다.

불교에 입문한 시기를 묻는 설문에서는 30대, 40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 불교를 믿게 된 계기 또한 스스로의 선택이 74%로 가장 높았다. 물론 이 대답은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포교방향은 30대, 40대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전후세대를 위한 현대적 번역경전, 구태의연한 법회의식 탈피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돔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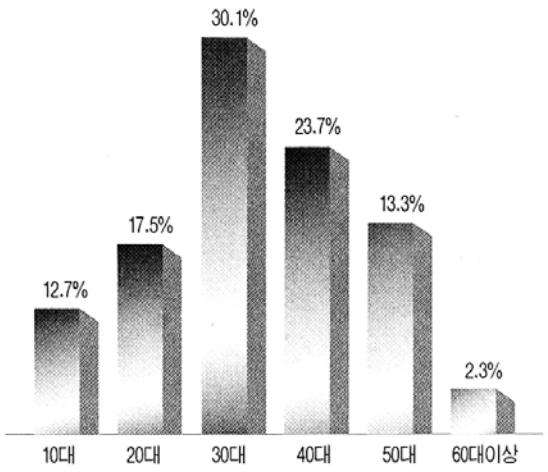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보시 봉사 오계 생활화 2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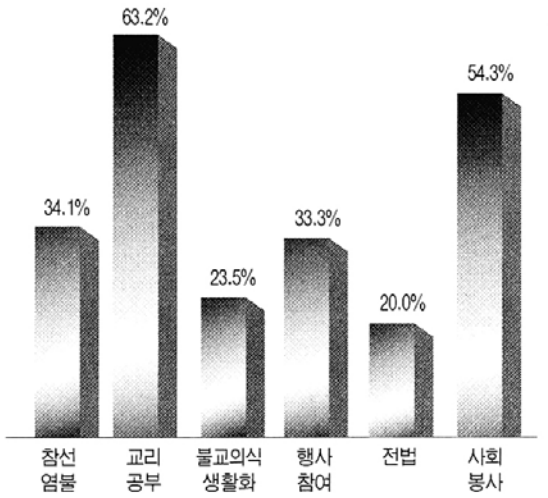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 불교입문시기



■ 수행 · 신행에서 강화해야 할 분야





◇불자들은 불교인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반면 보시의 적극적 실천에는 다소 미흡함을 보였다.

"전생·윤회 믿는다" 56%
'오계 준수' 여성이 남성 2배
입문 10년불자 신행 활발

권유는 21.0%, 7.5%, 7.1% 였다. 따라서 30~40대에 불교와 불교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포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뒤쳐지고 있는 10대와 20대 포교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함도 일깨워 준다.

이번 설문에 응한 불자들의 71.3%가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재적사찰 갖기와 신도등록에 참여한 불자들이 15만명 선이어서 조계종이 추진하는 재적사찰 갖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재적사찰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여러 사찰을 찾기보다는 특정한 사찰을 신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사찰을 찾는 횟수도 월 1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82.7%에 달해 정기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다는 234명 가운데 남자는 86명, 여자는 142명이었다. 여성의 48.6%가 매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 전체 응답자 218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은 '매월 1회 이상'으로 41.3% 였다.

매월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429명을 입문기간별로 분류해본 결과 신행이력이 많다고 사찰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았다. 10년 이내가 59.7%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30년 이상은 14.3%에 그쳤다.

사찰에 가면 꼭 보시를 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6.6% 였다. 그중에서 35%가 10년미만의 불자였다.

경전읽기는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 읽는다는 불자들은 6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전은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유마경, 법구경 순으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 519명 가운데 경전을 추천한 응답자가 296명에 그쳐 여전히 경전읽기는 불자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1년간 불교서적을 몇 권 읽었느냐는 질문에 5권 이하가 59.3%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1권꼴로 읽은 응답자는 12.5%에 머물렀다.

불교, 인류구원의 희망

인테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신앙활동에 대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사이버 법당에 대해 51.3%가 21세기의 새로운 신앙공간으로 받아들였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46명 가운데 35명(76.1%)이 새로운 신앙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주목된다. 연령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버 법당의 등장은 오히려 산사를 더 찾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14.3%였다.

'한국불교가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72.0%의 응답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같은 응답에 학력 연령 성별에 따라 유의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종을 생각해 본일이 없다 86.3%에서 볼수있듯 확고한 믿음과 불교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불교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50.1%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종교간의 화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대도시 6개 신행단체 519명 응답

한국불교연구원과 본지는 4월 28일부터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서울, 부산, 대구, 광주)과 우리는 선우(대표 박광서)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삼보법회(이사장 신근식)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정토회(대표 법륜)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5월 10일 최종 회수했으며, 51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이번 신행의식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비교적 체계적인 불교학습을 받은 집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실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9%가 배웠다고 답했다). 수거된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각 문항에 대해 성별 연령별 신행이력별 학력별 교차분석을 했다.

설문내용 및 응답률(%)

1. 언제 불자가 되셨습니까?
 1)10대……12.7
 2)20대……17.5
 3)30대……30.1
 4)40대……23.7
 5)50대……13.3
 6)60대……2.3

2. 불자가 되신 동기는?
 1)스스로 선택……74.4
 2)부모의 권유……11.0
 3)친구의 권유……7.5
 4)기타(부부의 권유)……7.1

3.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깨닫기 위하여(견성성불)……21.8
 2)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72.3
 3)나와 가족의 복락을 구하려고……3.3
 4)집안 대대로 믿으니까……1.7

4. 재적사찰은 있습니까?
 1)있다……71.3
 2)없다……20.0
 3)앞으로 정할 예정이다……4.4
 4)재적사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3.7

5. 사찰을 찾는 횟수는?
 1)매주 1회……45.1
 2)매월 1회 이상……37.6
 3)1년에 1번……6.7
 4)초파일 등 불교 4대 명절에만 간다 ……6.6
 5)무응답……4.0

6. 절에 가시면 보시를 하십니까?
 1)갈 때마다 한다……56.6
 2)가끔 한다……39.1
 3)거의 안 한다……3.6
 4)무응답……0.6

7. 월 평균 보시(후원금, 기부금 포함) 금액은?
 1)1만원 이내……25.2
 2)3만원 이내……30.1
 3)5만원 이내……22.7
 4)10만원 이내……13.8
 5)10만원 이상……5.8
 6)무응답……2.3

8. 경전을 자주 읽으십니까?
 1)매일 읽는다……32.9
 2)일주일에 한두 번 읽는다……33.7
 3)한달에 한두번 읽는다……22.7
 4)거의 안 읽는다 ……8.7
 5)무응답……1.9

10. 지난 1년간 불교서적은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1)1~5권……59.3
 2)6~10권……17.5
 3)10권 이상……12.5
 4)한 권도 안 읽었다……6.7
 5)무응답……3.9

11. 반야심경의 핵심을 이해하십니까?
 1)이해한다 ……39.9
 2)반쯤 이해한다 ……46.2
 3)잘 모른다……13.9

12.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셨습니까?(강좌 참여 등)
 1)배웠다 ……69.9
 2)배운 일 없다……9.8
 3)배울 예정이다……18.9
 4)무응답……1.3

13. 물질을 나누는 재보시와 더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나누는 것은 보시바라밀 실천입니다. 이를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1)잘 하고 있다……18.5
 2)어쩌다 실천한다……44.5
 3)전혀 못하고 있다……7.7
 4)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어렵다……27.6
 5)무응답……1.7

14. 평소 수행과 신행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여러 항목 선택 가능)
 1)참선……20.2%
 2)염불……35.1
 3)법회 참석……67.2
 4)경전독송·교리공부……54.5
 5)사회봉사(보시의 생활화)……15.8
 6)포교……9.8

15. 참선 염불 중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1)있다……83.0
 2)없다……15.8
 3)무응답……1.1

16. 재가불자의 수행과 신행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여러 항목 선택 가능)
 1)참선·염불……34.1
 2)교리공부……63.2
 3)합장, 발우공양, 화장 등 불교의식 생활화……23.5
 4)법회 등 사찰행사 참여……33.3
 5)전법……20.0
 6)사회봉사……54.3

17. 전생과 윤회를 믿습니까?
 1)믿는다……55.9
 2)어느 정도 믿는다……37.6
 3)안 믿는다……5.6
 4)무응답……1.0

18. 인터넷에 사이버 법당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세기의 새로운 신앙공간이 될 것이다……51.3
 2)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8.5
 3)오히려 산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14.3
 4)모르겠다……18.9
 5)무응답……7.1

19. 가족은 모두 불자입니까?
 1)그렇다……59.0
 2)그렇지 않다……27.7
 3)믿게 할 예정이다……12.7
 4)무응답……0.6

20. 자녀를 사찰법회에 내보내십니까?
 1)보낸다……26.2
 2)보내지 않고 있다……17.0
 3)보낼 예정이다……42.2
 4)보내지 않겠다……0.6
 5)무응답……14.1

21. 수계를 하셨습니까?
 1)했다……71.5
 2)안 했다……18.3
 3)받을 계획이다……9.2
 4)무응답……1.0

22. 재가 오계를 잘 지키십니까?
 1)대부분 지킨다……18.7
 2)지키려 노력한다……76.3
 3)지키기 어려워 포기상태다……2.7
 4)무응답……2.3

23. 사주, 관상, 점을 봅니까?
 1)안 본다……38.7
 2)본 일이 있다……48.2
 3)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본다……10.0
 4)수시로 본다……2.1
 5)무응답……1.0

24. 개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1)있다……11.9
 2)없다……86.3
 3)무응답……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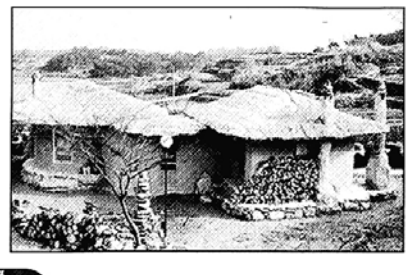
25.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있다……50.1
 2)없다……23.9
 3)모르겠다……22.9
 4)무응답……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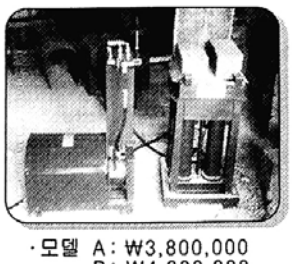
26. "한국불교가 인류구원의 희망"이라는 말에 동감하십니까?
 1)전적으로 동감……31.2
 2)대체로 동감……40.8
 3)과장된 것 같다……12.5
 4)모르겠다……10.6
 5)무응답……4.8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신제품 걸 망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ㅎ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31cm 세로 46cm
小 가로 29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서울·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온라인구좌 | 농 협
061-17-001230 | 예금주(주)천화무역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석굴암식 돔형 황토토굴과 피라미드의 기가생동하는 신비한호능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온.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온,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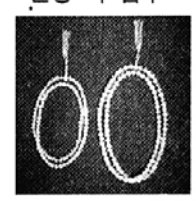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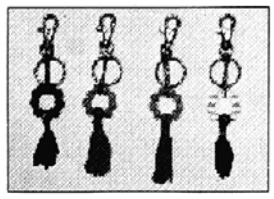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림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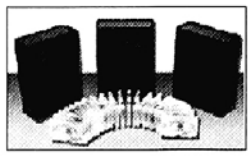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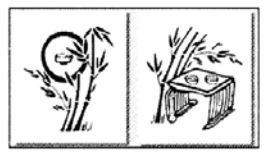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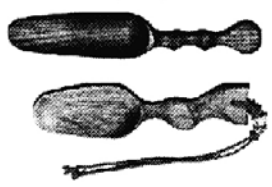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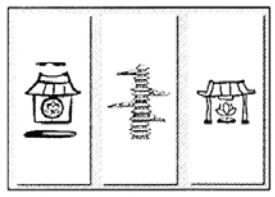

한국불교 총 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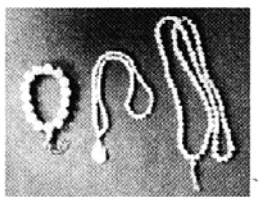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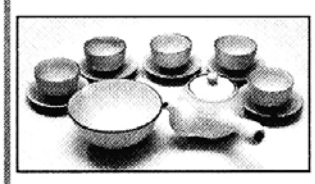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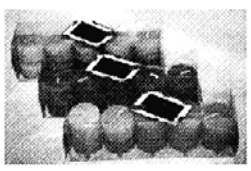
가 격
₩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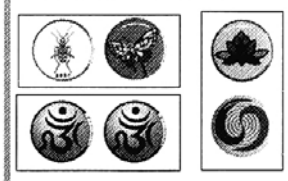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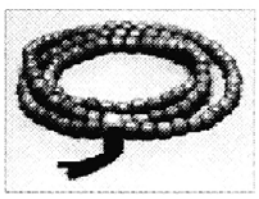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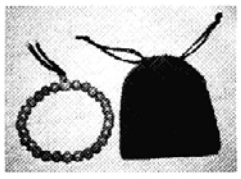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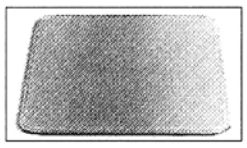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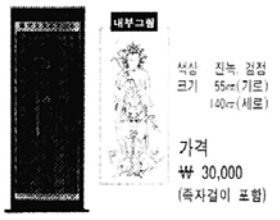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석풍 건강옥 카페트

가격 ₩ 138,000
크기 170㎝×240㎝ 비닥재 미끄럼방지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1kg (우렌탄+바이오
코선 젤트지 세라믹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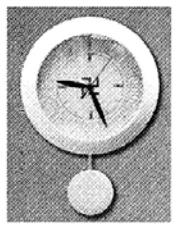
석풍 건강옥 방석

크기 44㎝×44㎝
윗면 국내산 연옥 분말
코선 젤트지
가격 ₩ 9000
비닥재 미끄럼방지(우렌탄+바이오 세라믹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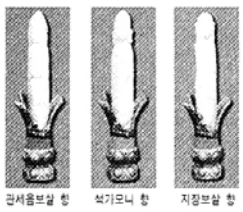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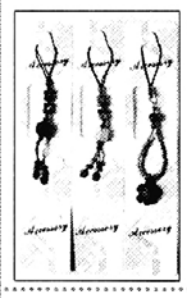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이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지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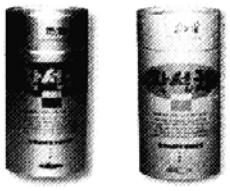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전통식품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부제,무조미료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판매가
· 고추장 1kg기준	12,000원	· 무 장아찌1kg	12,000원
· 된장 1kg기준	7,000원	· 마늘쫑 장아찌1kg	12,000원
· 쌈장 1kg기준	7,000원	· 된장 콩잎 1kg	12,000원
· 간장 1.8L	8,000원	· 된장 깻잎 1kg	12,000원
· 더덕 장아찌1kg	30,000원	· 된장 고추 1kg	12,000원
· 오이 장아찌1kg	12,000원	· 산초 장아찌 1kg	30,000원
· 감 장아찌1kg	12,000원	· 울외 장아찌(나나스키)1kg	12,000원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후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 ASH(느릅원목)
규격 :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신흥사 극락보전

은해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봉은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강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인동출생
1923년 선학원에 출가
1928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3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마하연 · 덕숭산 정혜사 · 묘향산 보현사 선방서 읻거
1953-84년 은하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해사 · 관음사 주지
1959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선학원 이사장
1965년 칠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1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중정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류하던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와 일본, 대만의 작주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친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
이분청자기를 여법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진정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점의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빵집아저씨 장가가던날



윤 제 학
동화작가
본사 출판부장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사람들은 그 곳을 하늘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들 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가파른 언덕바지에 따깨비 같은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워낙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한 채의 커다란 집처럼 보였고, 하나하나의 집들은 하늘을 향해 열린 커다란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동네가 하늘마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주위에 높다란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하나같이 '은빛마을'이나 '달빛마을'과 같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요. 네모난 통처럼 생긴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도 않게 말이예요. 그러자 이 동네도 자연스레 '하늘마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지만 참으로 하늘마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었고, 밤이면 또 별빛이 한달음에 달려와 눈맞춤을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예요. 봄이면 손바닥만한 공터에서도 상추나 쑥갓 같은 푸성귀들이 얼굴을 내밀어 사람들의 눈을 파랗게 물들였고, 여름이면 매미들이 일 나간 엄마 대신 하루종일 자장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또 잘 여문 햇살이 겨우살이 준비하는 엄마들의 등에 엎혀 낮잠을 즐기곤 했지요.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펑펑 눈이 내리는 날은 동네 전체가 멋진 눈썰매장으로 변하니까요. 어른들도 이 때만큼은 아이들을 위해 길을 양보했습니다. 차가 다니기 쉽도록 하기 위해 연탄재를 깨뜨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예 동네 입구에다 이렇게 써 붙여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눈이 녹을 때까지 이 골목은 아이들의 눈썰매장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차에서 내려 걸어 주십시오."

동네 자랑이 너무 길었나요? 사실 동네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하늘마을 입구에는 '김씨네 빵집'이라는 자그마한 빵 가게가 있습니다. 간판 글씨도 비뚤비뚤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빙그레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빵집이지요. 더욱이 요즘은 대부분의 빵집들이 'OO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잔뜩 멋을 부린 탓에 단골이 아닌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려다 말곤 고개를 갸우뚱하곤 한답니다. 그러나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랍니다. 맛만큼은 으리으리한 빵집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빵을 사기 위해서는 하늘마을로 오곤 하는 걸요.

언제부터인가 김씨네 빵집은 하늘마을의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씨는 여느날처럼 아침 일찍 빵을 굽고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경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출입문에 무언가를 붙이더니 휑하니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게 문 앞에는 역시 간판처럼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노총각 빵집 주인 장가가는 날. 그래서 아주 기분좋은 날. 오늘 오시는 손님께는 공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빵집을 찾은 손님들은 벙그러진 입을 채 다물기도 전에 힘차게 문을 열고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토끼처럼 동그랗게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글씨로 쓰여진 글귀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에 사시던 양만큼만 가져 가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온 손님도 헛걸음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시장 한 귀퉁이에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목수일을 하는 박씨 아저씨가 몇 번의 톱질과 망치질로 뚝딱거리자 멋진 결혼식장이 만들어졌고, 문방구 아줌마의 손길이 지나가자 도무지 길거리 예식장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화려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노점상들도 손수레를 저만치 밀쳐 놓고 신랑 신부가 행진할 길을 청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뭐예요. 채소 가게 아저씨의 트럭으로 하얀 피아노가 실려 오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하얀 그랜드 피아노로 말이예요. 트럭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부르릉' 하는 발동 소리가 '또르릉' 하는 피아노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독립심이 강했을 뿐 아니라, 오늘 걸어나올 이 길 또한 두 사람에게는 눈 감고도 다닐 만큼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하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 "잃어버린 돈이야 다시 채워지겠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어디서 찾을꼬" 노스님의 음성이 귓가로 다가와…

피아노 소리를 밟으며 신랑 신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습니다. 입이 벌어져 귀까지 보태도 모자랄 줄 알았는데 말이예요. 너무 긴장된 탓일까요? 아니면 결혼식장 앞에 있어야 할 부모님들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그럴까요?



그림 · 문병성

들꽃 꽃다발을 받은 신랑 신부는 트럭을 타고 시골절로…

빵집 아저씨 김덕봉. 하지만 아저씨는 본래의 성이 '김'인지 '박'인지 '윤'인지 모릅니다. 갓난아기 때 맡겨진 고아원에서 김덕봉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래도 성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김씨였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착하고 말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착한 아이는 위험한 아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낳아 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질수록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은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하늘을 훨훨 나는 꿈을 꿀 때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돈이 조금 모이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살아가야 할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 갔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를 떠돌 때였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이 났고, 배고픔은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마침 지나던 길가에 조그만 절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도 지긋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불전함을 열어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움켜 쥐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착해야 해.' 마음 속으로 다짐하며 넙죽 절까지 하고는 법당문을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도 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고양이 걸음으로 절 마당을 다 벗어날 쯤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니 자그마한 몸집의 노스님 한 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그렇다고 웃는 것도 아닌,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앙다짐을 하며 다시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노스님의 나직한 음성이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서 도무지 자신을 향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다시 채워지겠지만 잃어버린 자네 마음은 어디서 찾을꼬."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솜씨 좋은 제빵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복덕방 할아버지의 주례사가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수많은 신혼 부부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넓고 좋은 집을 장만하여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생 처음으로 주례라는 걸 하면서 저는 그 동안의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는 집의 평수를 넓혀 나가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두 사람은 우리들의 이웃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비록 길거리이긴 하지만 겨울이면 따근한 커피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고, 여름이면 값싸고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우리들의 갈증을 달래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의 하늘마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듭시다."

결혼식장은 속 깊은 호수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일렁임도 없는 호수의 얼굴엔 하늘이 먼저 내려앉고 그 위로 사람들의 편안한 웃음이 드리워집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다시 푸른나라 대통령의 파아란 음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동안은 장기만 잘 두시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모두 멋짱이 주례 할아버지께 박수."

다시 결혼식장은 흥겨움이 넘쳐 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감짝 놀랄 순서입니다. 우리 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햇살보육원의 어린이들이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골목에 숨어 있던 아이들은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신랑 신부에게 안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

노랫소리를 따라, 먼 곳에서 지켜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팔던 아줌마도 생선을 팔던 아줌마도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순식간에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라면 통 조각에 적힌 가격대로 물건 값을 치르고는 흐뭇한 웃음을 덤으로 얻어 갑니다.

노래를 끝낸 아이들은 길다란 종이를 펼쳐 듭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날마다 주셔서요."

김씨는 감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몰래 문앞에 두었을 뿐인데, 난 그저 지난 날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절에서 훔친 돈을 조금씩 갚고 있을 뿐인데….'

신랑 신부는 신혼 여행길에 오릅니다. 시골 마을의 조그만 절을 찾아서. 푸른나라 대통령이 특별히 빌려 준 트럭을 타고요. 그곳엔 지금도 그 노스님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지금쯤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겠죠. 그러나 만약 돌아가셨다면 누가 두 사람을 반겨주죠?

하지만 그건 걱정 마세요. 벌써 부처님께서는 동구에 나오셔서 이제나저제나 하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佛教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 · 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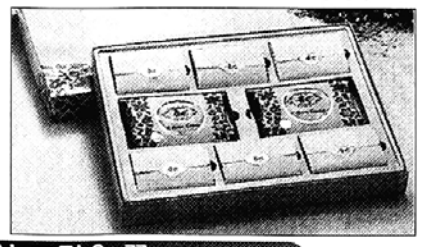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주문가230,000원)
밀교사전 70,000원

♣. 신한은행:324-12-407937
♣. 농 협: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 지 진 관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주 지 일 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9번지
TEL : 02)444-4321, 7215

약사포교원(改:약사절)

주지(철학박사) 장 각 성
신도회장 김 수 복
총 무 신 정 섭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TEL : 02)474-0554
FAX : 02)472-5292

청 용 암

주 지 해 일

신 도 회 일 동

■ 서울 동작구 흑석1동 산 5-12
TEL : 02)813-1820

만불(지장보살)조성 도량
대성사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 중구 신당4동 340-8
TEL : 02)2237-9796(원융원)
■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 0356)584-1541(대성사)

지장기도 참회도량
심학산 약 천 사

주 지 허 정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284
TEL : 0348)942-3880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 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마이산탑사

주 지 이 왕 선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 0655)33-2900, 0303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주 지 지 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 0556)72-0100
FAX : 0556)72-0481

삼 보 사

주 지 대 평
신도회장 신재철

신 도 일 동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31-3
TEL : 032)542-5131

대한불교 조계종 청법도량
청소년수련원 신흥사

주 지 오성일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 0339)357-2695, 3916

대한불교조계종
황금절 수 국 사

주 지 김 자 성
신도회장 김자비심
합창단장 문안락행

■ 서울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TEL : 02)356-2001/359-6297

적멸보궁
사자산 법 흥 사

주 지 도 안

신 도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TEL : 0373)374-9177
FAX : 0373)374-9178

대한불교 태고종
석 왕 사

주 지 편 백 웅

강원불교대학
룸비니유치원

■ 춘천시 소양로1가 78-45
TEL : 석왕사 0361)252-5040
대 학 0361)251-5040
유치원 0361)255-5040

우 주 정 사

주 지 법 현
기적의 손
부처님의 氣를 전달하여
디스크 환자 팔, 다리마비환자,
신경통, 관절염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손을 가진 스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8-2
TEL : 0331)251-2871/252-1766

불 광 사

주 지 조 광 현

신 도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5-1
TEL : 02)359-5367

대각사 · 대각선원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조실 · 주지 불심 도문
부주지 무심 보광
총 무 각천 청청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TEL : 02)765-0972
FAX : 02)742-2126

기 원 정 사

주 지 도 영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9-116
TEL : 02)736-0367

불광불교미술원

원 장 박 갑 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18-4
TEL : 0356)584-3952/011)216-4848

원효성사 탄생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 석 사

주 지 태 경

신 도 일 동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26-1
TEL : 053)857-2271/856-7014

두타산 삼화사

주 지 (자원) 이원행

총 무 정법륜
교 무 남혜명
재 무 김현오
지 전 김현심
신도회회장 이상록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 0394)534-7661~3,7668,8313
FAX : 0394)534-7546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 녕 사**

주 지 지 광
신 도 일 동

■ 서울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 02)577-5800
FAX : 02)577-0052

종정 예하 주석 사찰
대한불교 삼론종
우암정사

조 실 대 산

신 도 일 동

■ 충북 충주시 교현2동 539-21

대한불교 삼론종
수 도 사

주 지 석 봉

신 도 일 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67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부 석 사

주 지 석 봉

신 도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의리

대한불교 삼론종
혜 림 사

주 지 혜 광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3-44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법 륜 사

주 지 법 진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4/8

대한불교 삼론종
혜명정사

회 주 혜 공

신 도 일 동

■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2구 299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보문정사

주 지 혜 승

신 도 일 동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고모2리 211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청 용 사

주 지 이지연
회 장 정경숙
총 무 이재현
총 무 김병순

신 도 일 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585번지
TEL : 0342)752-6830